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8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9월 25일)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가을 고운사서 마음방생을…**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오랜만에 길에 올랐다. 상월결사는 10월 28일 등운산 고운사에서 마음방생 평화순례를 개최했다. 전국 400여개 사찰 4000여 불자가 참석한 이날 순례에서 사부대중은 평화를 발원하며 고운사 법계도림과 천년숲길을 걷기 수행했다. 사진은 법계도림을 걷기 수행하고 있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참여대중들. 〈관련기사 5면〉 의성=신중일 기자

# "중앙분담금 없애자"…자승 스님 '작심제언'

## 10월 31일, 제18대 중앙종회 불교광장 간담회서

**"10년 안에 중앙분담금 없애고 총무원, 직할 · 직영사찰로 운영"**

**총무원장 권한, 감사 징계 집중**

**사실상 '본사중심제 전환' 제안**

**총무원 비대… 조직 축소 필요**

**"향후 스님들이 종무원 맡아야"**

**중앙종회, 종단미래특위 구성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단은 너무 비대해졌다. 속된 말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중앙분담금을 본 · 말사가 감당할 수 없다. 10년 뒤 총무원은 직영사찰과 직할사암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조계종 제33 ·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조계종의 미래를 향한 이같은 작심 제언을 내놨다. 10월 31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열린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불교광장 간담회서다. 화엄1~3회와 무량회, 비구니회로 구성된 불교광장은 사실상 모든 중앙종회의원이 소속된 종책모임 연합체다. 자승 스님은 불교광장 총재를 맡고 있다.

간담회에는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70여 명과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 등 총무원 부 · 실장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이 중앙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꼽은 가장 큰 원인은 총무원과 산하단체 일반직 종무원 인건비다. 스님은 "현재 산하단체를 포함하면 300명이 넘는 종무원이 있다. 일반직 종무원은 급여가 매년 올라 10~20년이 되면 고액연봉자가 된다"면서 "말사 주지도 없는 상황에서 분담금이 계속 높아지면 무슨 재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승 스님은 특수종무직을 제외한 일반직 종무원 퇴직 시 빈자리에 스님들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인건비 축소와 함께 총무원에서 쌓은 업무능력을 향후 본사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와 더불어 스님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 중앙분담금을 본사중심제에 맞게 본사가 교육 · 포교에 활용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제는 교육원과 포교원의 존재가 필요치 않다는 뜻을 밝힌 자승 스님은 "교육원과 포교원이 생긴 이래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승려가 늘어나거나 교육의 질이 높아지거나 어린이법회 활성화, 청년불자 확대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며 "지금의 교육원장과 포교원장 임기가 끝나면 원이 아닌 부로 축소해 인원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중앙종회와 총무원 집행부가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 운영 재정을 직영사찰과 직할사암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승 스님의 발언은 총무원장이 당연직 교구장인 직할교구 소속 사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종단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의 권한 축소를 뜻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하지만 스님은 총무원장의 권한이 축소돼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큰 틀에서 (총무원) 다이어트를 하지만 총무원장 권한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본사로 이관하고, 총무원장은 감사와 징계로 이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본사주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질 것을 대비해 교구종회의 힘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승 스님은 이뿐만 아니라 이웃종단인 천태종과 태고종의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스님은 "태고종은 (종단협 의전서열) 2위였는데 5위로 밀려났다. 그걸 회복하려고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인다"며 "천태종은 사찰 하나를 지으면 우리의 천년고찰보다도 더 크게 짓는다. 부산 삼광사 같은 곳은 조계종 절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단양 구인사와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면 조계종을 깔본다. 구인사는 모든 사부대중이 모이지만 조계종은 부 · 실장 몇 명이 안내하기 때문"이라며 "조계종은 그만큼 조직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가톨릭이 추진하는 2027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세계청년대회를 언급한 자승 스님은 그에 비견될 만한 한국불교의 청년대회 필요성도 역설했다. 스님은 "우리 종단도 100만 명은 못 모으더라도 중학생 이상, 50세 이하까지 20만 명은 모아서 세계불교 청년대회를 열어야 한다"며 "달라이라마 초청행사를 제안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중국 압력에 의해 허락한 적이 없지만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다. 내년 3월 임시회 전까지 계획안을 구상해보라"고 사회부장 도심 스님에게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2일 제229회 정기회에서 종단 미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종회, 집행부, 교구본사가 참여하는 '종단미래대비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에는 심우 스님이 선출됐다. 특위는 종회의원 9인,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2인, 본사주지 2인, 총무원장 추천 2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제18대 중앙종회 전반기까지다.

## "교회 돌봄시설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서 성명서 채택… 반대 목소리

기독교계가 교회시설을 이용해 추진하는 '유 · 아동 돌봄사업'에 대한 불교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11월 2일 오전 속개한 제229회 정기회에서 '교회 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 철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기독교TV인 CTS 김경철 회장을 본부장으로 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돌봄시설 추진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사업은 유 · 아동 돌봄 입법청원을 통해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으로 종교시설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중앙종회는 성명에서 "세금으로 선교를 획책하는 교회 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며 "저출산과 아동돌봄을 볼모로 국비를 지원받아 교세를 확장하려는 개신교의 움직임에 공공돌봄정책이 붕괴 위기에 처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앙종회는 이어 "인구절벽 위기에서 기존 돌봄시설인 어린이집들이 정원 미달로 폐업하고 있고, 개신교계에서 운영하던 시설도 반납하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다"면서 "국가의 돌봄정책은 기존 시설을 강화하고 공공보육이 곳곳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를 활용한 돌봄정책이 공공 보육시설과 같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견해를 밝힌 중앙종회는 "교회 내 돌봄시설을 국가가 허가한다면 보육을 가장한 선교행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국가의 명백한 종교편향 정책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며 "국회와 정부당국은 개신교계의 부당한 청원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더 내실있게 운영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 발족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기독교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총재인 이철, 이순창, 권순웅, 김태영 씨 등 다수가 한국교회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이채익 · 김회재 국회의원이 개최한 관련 국회토론회 역시 방송사 CTS와 CBS가 주관했다. 이채익 의원은 국회조찬기도회장, 김회재 의원은 교회 장로기도 하다.

윤호섭 기자



# 장기간 구족계 못 받은 스님 구제된다

## 조계종 중앙종회, '특별구족계 특별법' 제정안 가결

**229회 정기회 11월 1일 개원**
**'승려복지법 개정안' 등 다뤄**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 추대**
**호법부장 보운 스님 임명동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년 이상 구족계를 수지하지 못한 채 수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미 · 사미니 스님들이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11월 1일 개원한 제229회 정기회에서 총무원장 명의로 발의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이전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199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전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는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대상자에 포함된다. 대상자를 구분한 것은 단일계단 시행 전후로 출가자가 법계법을 다르게 적용받기 때문.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이 시행되면 1991년 이전 출가자는 수계 이후 중덕 · 정덕 법계까지 자동으로 품서하며, 이후 법계는 승가고시를 거쳐 법계를 품서한다. 이는 기존 출가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법계법에 따르면 1991년 이전 출가자는 종사 이하 법계까지 자동 품수하도록 하고 있다. 1991년 출가자부터는 승가고시를 거쳐 법계를 품서하는데, 특별구족계 대상자는 수계 이후 5년이 지나야 승가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조정했다.

중앙종회는 또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추대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정여 대종사는 지난 10월 26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구성원 377명 중 2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중총회에서 방장후보로 추대됐다. 중앙종회는 이어 10월 30일 총무원 호법부장 서리로 임명된 보운 스님에 대한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도 통과시켰다.

보운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을 잘 보필하고 종단 스님들이 전법 · 포교 · 수행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제228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금지 완화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과 연동법인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종도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 부족을 이유로 다시 이월했다. 또한 본사주지의 중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종정법 개정안,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집권자가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요구자들이 산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재차 이월됐다.

11월 2일에는 원명 스님이 조계사 주지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발생한 '대한불교진흥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제정 스님을 선출했다. 지성(직할), 법전(마곡사), 지근 · 성문(동화사), 정일(해인사), 도실 · 상운(범어사), 법운 · 원천(통도사), 도원(금산사), 동명 · 철산 · 재석(선운사) 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법공 · 요명 · 법영 · 성욱 · 지연(직할), 현각(동화사), 도명(해인사) 스님에 대한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가결했다.

중앙종회는 또 호암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사찰매장문화재관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불기 2568(202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한 뒤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다.

정기회 개원일에는 재적의원 80명 중 69명이 참석했으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탄공 · 탄보 · 향록 · 법륜 스님 의원 선서를 했다.

## 中불교협회와 '한 · 중 불교교류' 논의

### 상진 스님, 중국 베이징서 간담회
### 태고종-중국불교 협력방안 모색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방중해 중국불교와 교류 · 협력을 논의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28일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불교협회를 종단 교역직 스님들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사서실장 원오 스님, 규정부장 진화 스님, 사회부장 도휘 스님 등 대표단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는 중국불교협회 상임부회장 중싱(宗性) 스님, 후덕핑(胡德平) 국가종교사무국 중앙통전부 교류처장, 푸증(普正) 부비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태고종은 중국불교협회 상임부회장과 한 · 중 불교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상진 스님은 "한국과 중국 불교는 법맥이 형제와 같다. 태고종 종조 태고보우 국사께서 석옥 청공 선사의 법맥을 이어받아 한국에 널리 법을 전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

중싱 스님은 "상진 스님께서 총무원장 취임 후 중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중국불교협회와 태고종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저장(浙江)성에 있는 석옥청공 선사의 유적지를 함께 방문하자"고 제안했다.

상진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대표단은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방중해 중국불교와의 교류를 이어갔다. 앞서 상진 스님은 후난성(湖南省) 장자제(張家界)시 인민 정부가 마련한 '한중 불교 교류 간담회'에 참석해 상호 교류 활성화를 중국 측과 논의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업무 인수인계

### 12대 집행부 공로패 수여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10월 31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2층 회의실에서 '제12 · 13대 집행부 인수인계식'을 진행했다.

이날 본각 스님과 광용 스님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2대 집행부가 진행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전국비구니회와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재무회계 사항을 살폈다.

광용 스님은 12대 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과 부실장 스님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13대 집행부도 4년 뒤 오늘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인계서 작성 후에는 12대 집행부 스님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됐다. 본각 스님은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에게 공로패를, 회칙제개정위원장 정운 스님, 총무부장 현진 스님, 사업부장 덕환 스님, 총무국장 설해 스님, 재무국장 덕효 스님, 교육국장 유정 스님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11월 14일 오후 2시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큰법당에서 '본각 스님 이임 및 광용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400일을 맞아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를 올리는 진우 스님.

## 진우 스님 취임 400일…"감동 주는 불교로"

### 11월 1일 조계사서 기념법회
### 원명 스님 주지 취임식 겸해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400일을 맞아 "감동을 주는 불교가 되자"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11월 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기념법회에서 교역직 종무원 스님들과 108배를 올리고, 제37대 집행부의 원력을 다졌다. 스님은 108배 이후 짧은 법문을 통해 취임 400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출가수행자로서의 마음은 소임을 맡기 전후에 차이가 없다"고 운을 뗐다.

진우 스님은 이어 스님과 불자들이 중생구제라는 불교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고,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데 진력하자고 당부했다. 스님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부처님법"이라며 "이를 어떻게 잘 전해서 개개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무원 소임자들이 더 조직적으로 전법해야 한다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그런 의미에서 선명상을 보급해 대중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불자가 되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도 염불, 독경, 불공, 기도 모든 게 명상이니 생활에 녹아들도록 노력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날은 최근 조계사 주지로 임명된 원명 스님의 취임식도 진행됐다. 원명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기도와 수행으로 부처님 정법을 세우고 교육과 법회로 널리 전해 모든 이들이 신김과 원력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은 아미타요양병원 기금 1000만원을 후원해 행사 의미를 더했다. 윤호섭 기자

## 각산 스님 "명상으로 내안의 부처 만나길"

### 정각회, 11월 1일 정기법회 봉행
### 매주 화 · 목요일 아침 명상도



"낙관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가십시오. 희망을 잃지 않으면 그게 바로 성불로 가는 길입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정기법회를 실시하고 있는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가 11월 1일 정각선원(본청 B105호)에서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 스님을 법사로 11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명상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각산 스님은 명상의 본질과 수행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법회에는 주호영 정각회장과 이수진 의원, 천우정 국회직원불교신도회장 등 정각회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본격적인 명상에 앞서 각산 스님은 수행에 대해 쉽고 명쾌한 법문을 설했다.

"운명은 습관이 만들고, 습관은 바로 마음에서 온다"고 강조한 스님은 "나의 자문자답과 반문을 통해 생각을 돌려 쓰는 것이 위빠사나의 본질"이라며 "내 상태가 현재 어떤지 스스로 묻는 것이 마인드풀니스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보거나, 듣거나, 닿거나, 인식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통해 '내가 집착했구나' 혹은 '애착했네'를 알게 된다"면서 "그 다음, 화두를 하나 들고 호흡하며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내 안의 부처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문 이후에는 본격적인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돈하고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정각회는 11월부터 매주 화 · 목요일 오전 7시 30분 정각선원(본청 B105호)에서 저스트비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을 법사로 아침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불교경전 강의도 실시한다. 불교심리학을 주제로 하는 강의에는 상주 도각사 보만 스님이 법사로 나선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전국비구니회 이·취임식 준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이 · 취임법회

지난 4년간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를 위해 노력하신 제12대 회장 본각스님 이임식과
더불어 앞으로 4년간 참여와 도약, 미래로 나아가는 제13대 회장 광용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불기 2567(2023)년 11월 14일(화) 오후 2시
장소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큰법당

■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대신 쌀로 보시하시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쌀보시 안내 : 1구좌 10만원 ■ 쌀보시 계좌 : 국민은행 208601-04-073935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 문의 : 02) 3411-8103 / 010-7588-6450(혜광스님)
■ 오시는 길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 “이천오층석탑 환수, 이제부터 ‘시즌2’입니다”

## Interview 이천오층석탑환수위 공동위원장 보문 스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019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이천오층석탑 환수에 대한 일본 오쿠라문화재단(이하 오쿠라재단)과의 협의를 재개한 것이 이번 방일(訪日)의 가장 큰 성과죠. 석탑 환수가 이제 시즌2로 접어든 만큼 다시 환수 운동의 동력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려 합니다.”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공동위원장 보문 스님(평택 자비사 주지 · 사진)은 11월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10~12일 방일 성과를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 대표단은 방일 기간동안 석탑을 소유하고 있는 오쿠라재단과 4년 만에 협상을 진행했다. 10월 11일 진행된 협상에는 보문 스님을 비롯해 이상구 환수위 상임위원장, 서학원 이천시의원(환수위 실무위원), 이우정 환수위 사무처장, 김세진 통역사가 참여했다.

4년 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당장 오쿠라재단의 실무자인 사무국장이 히데야키 후쿠다(福田秀明) 씨로 교체돼 협상에 참석했다. 오쿠라호텔의 장식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석탑의 훼손도 지속되고 있었다.

실제 석탑 점검을 위해 함께 한 오금석 석예석재 대표(석공예명장)는 방일 보고서를 통해 “잦은 이관과 지진으로 석재와 석재 사이의 이음부분이 많이 갈라져 있고, 이를 시멘트로 붙여놓았다”며 “1, 2층 탑신의 풍화가 심각하고 훼손도 상당하다. 오쿠라재단은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석탑의 훼손 상황을 지적했다.

**10월 10~12일 1박 2일 방일**
**오쿠라재단과 환수 협상 재개**
**코로나 시기 오쿠라 재단 측**
**“환수위 활동 종료”로 오인**
**활동 상황, 국내 성명 전달해**
**장기화된 환수 운동 ‘새 전기’**

**부석사 관음상 대법원 판결로**
**문화재 환수운동 악영향 우려**
**“도와주지 못할망정 대못 박아”**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대표단은 10월 11일 오쿠라 호텔에서 오쿠라문화재단과의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했다. 사진 왼쪽부터 5번째가 환수위 공동위원장 보문 스님. 뒤로 석탑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오쿠라재단이 한국 측의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고, ‘환수위의 활동이 2019년 종료됐다’ 고 파악해 이를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일본 정부기관에까지 알렸다는 점이다. 협상에 나선 환수위 대표단은 당황했지만, 2019년 이후 환수염원탑 건립, 사생대회, 순회교육 등 국내에서 진행된 환수 운동 경과를 설명하고 석탑의 환수가 끝나지 않았음을 오쿠라재단 측에 고지했다.

또한 대표단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김경희 이천시장이 직접 서명한 환수 지지 성명서와 환수 촉구서를 재단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도 난관이 있었다. 두 문건 내 ‘무단 반출’의 문구가 문제가 돼 재단 실무자인 후쿠다 사무국장이 전달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환수위 측은 기지를 발휘했다.

“후쿠다 사무국장이 ‘무단반출’의 문구를 문제 삼아 성명서와 촉구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받을 경우 이천오층석탑이 무단반출 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후쿠다 국장에게 ‘이는 한국의 입장이며, 한국불교 장자 종단인 조계종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스님과 이천시장이 직접 서명한 성명서와 촉구서한이다. 이를 받지 않을 경우 벌어질 파장은 재단 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어필했습니다. 결국 재단 측은 PDF전자문서로 받기로 했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4년만의 협상에서 이정도의 입장을 전한 것도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봅니다.”

이제 환수위는 오쿠라재단 이사회의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환수 협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난 10월 26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를 관음상의 원소유주로 인정하면서도 소유권에 대한 준거법 적용을 일본 민법에 두고,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불상의 소유권 취득 후 20년 시효가 완료돼 그 소유권이 관음사에 있음을 판결했다.

“여러 국제 협약을 통해 불법 반출, 약탈 문화유산이 취득시효와 상관없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부석사 관음상 판결은 이를 무시한 최악의 판결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환수 운동 활동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번 판례는 문화유산 환수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난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스님은 초심을 잃지 않고 환수 운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2009년 이천 영월암에서 첫 주지 소임을 봤습니다. 이때 이천오층석탑 환수 운동과 인연이 됐어요. 이제 평택 자비사 주지로 활동하고 있지만, 석탑 환수 원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은 민-관이 하나가 돼 운영되는 시민 환수운동의 모범입니다. 이제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우보천리(牛步千里)라고 했습니다. 소의 걸음으로 천천히 환수를 위해 나아갈 겁니다.”

# 35돌 조계사 원심회…“불교수어 활성화”

### 11월 12일 오전 11시, 창립법회
### ‘불교수어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불자들의 소통과 공감에 앞장서 온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불교 수어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원심회는 11월 12일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원심회법당에서 창립 35주년 기념법회(오전 11시)와 불교 수어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오후 3시)를 개최한다.

창립법회는 1988년 창립 이후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회와 수어통역과 교육, 인식개선에 앞장서 온 35년간의 활동을 되짚어보고 장애인 포교 활성화를 위한 원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의 격려사와 내빈 축사, 우수회원 시상, 감사패 전달 등으로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는 조계사불교대학 2층에서 ‘불교수어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김장경 전 원심회장과 강주해 주은농선교교회 은퇴목사, 한유 에파타 성당 봉사분과 부분과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 김경환 포교사, 박미애 수어통역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원심회는 불교 수화언어를 표준화하고 정립한 단체로 평가받는다. 원심회는 한국수화 단어 내 불교관련어가 5개 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기본의식인 삼귀의와 사홍서원, 반야심경 등 불교수화를 창안했다. 1998년 〈불교수화용어집〉(자비의손길)을 출간했고 2010년부터 불교수화 표제어 1071개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해 누구나 불교수화사전을 검색할 수 있도록 무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수화로 연극을 만들어 공연하거나 찬불가를 수화로 통역하는 방법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게끔 시도했다.

2008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찬불가 55곡과 불교수화단어를, 2013년에는 불교의식 및 찬불가 총 46편을, 2015년에는 ‘천수경’ 수어 역경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임은호 기자

# 금나나 교수,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

### 11월 2일, 일면 스님 위촉장 수여

동국대 과학영재교육원장 금나나 교수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11월 2일 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금나나 교수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금 교수는 먼저 미국 유학시절 경험한 생명나눔과 관련된 추억을 떠올렸다. 금 교수는 “홍보대사 제안을 받고 미국 유학 중 운전면허증에 붙어있는 빨간 마크를 보여주며 뇌사상태가 되면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하던 친구가 떠올랐다”면서 “당시 친구가 멋있다고 생각만 했지 나 스스로 실천하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교수로서 후학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금나나 교수가 생명나눔에도 동참하게 돼 기쁘다”면서 “홍보대사만이 아닌 생명나눔 대표라는 생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다
# 10 · 27법난 추념문화제

### 조계종, 43주년 맞아 봉은사서
### 진실규명 · 명예회복 노력 다짐

1980년 신군부가 군홧발로 불교를 짓밟은 지 43년. 희생자들이 하나둘 세연을 접은 가운데 10 · 27법난의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법회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0월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제43주년 10 · 27법난 추념문화제’를 봉행했다. 추념문화제가 열린 봉은사는 10 · 27법난 기념관 건립이 예정된 곳이다. 기념관은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들어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념문화제는 1부 추념법회와 2부 추념문화공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선업 스님,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장 성화 스님(총무원 총무부장),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정용욱 문체부 종무실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10 · 27법난의 아픔을 되새기며 제대로 된 진실규명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기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먼저 10 · 27법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헌신하다 올해 입적한 명선 대종사와 피해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10 · 27법난의 피해가 온전하게 치유되지 못한 채 법난의 기억은 흐려져만 가고 피해자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시어 오늘이 자리가 비워져 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우 스님은 봉은사로 건립 예정된 10 · 27법난 기념관의 의미를 설명하며 불사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스님은 “앞으로 10 · 27법난에 대한 홍보와 교육, 명예회복과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 예우의 핵심 공간이 될 것”이라며 “기념관 건립으로 10 · 27법난의 아픔을 국민과 공유하고 다시는 공권력에 의한 종교탄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스님은 “법난의 슬픔을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진실을 기억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계승해야 한다”며 “종단은 10 · 27법난을 온전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피해자들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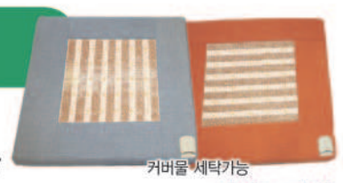
추념문화공연에서는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고금 스님이 법고 시연을, 뮤지컬 갈라팀 어쏘티드가 10 · 27법난 추념극을 선보였다. 봉은국악합주단과 국악인 박애리씨도 무대에 올라 국악합주 공연을 펼쳤다. 김내영 기자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추천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온열요법 건강매트 · 방석



커버물 세탁가능
방석 3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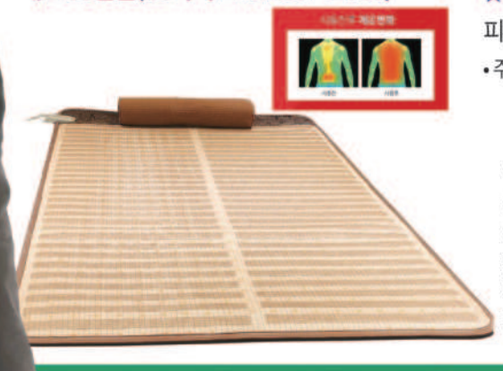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황토알파토 수제약제 비누

★ 코로나 예방 효과 증명 ★

피부질환 건조한 피부에 효과가 큽니다.

- 주요성분 : 천연식물성오일, 포졸란, 피톤치드, 히아루론산, 비타민E 등이 함유된 천연 수제비누로 계면활성제와 경화제, 인공향료 등을 첨가하지 않은 수제비누 입니다.

기능성 약제비누
한박스(3개) 3만원
식약처 허가 업체 제조

“황토알파토”란? 백악기 시대의 화성암으로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여 세계에서 주목하는 고급미용재료 입니다.
아주 가벼운 광물로 다공성의 공기 구멍을 갖고 있어 피지 및 각질의 흡착 및 제거 효과가 뛰어나고 천연 무기질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젊고 생기 있는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민감성 피부에 효과, 오래 사용해도 무르지 않아 단단하고 좋습니다.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하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하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하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 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다. 한편, 베개를 뱰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다.



베개 20만원

그림액자난로

공기오염 NO! 탄소배출 NO!
전자파 NO! 전기요금 걱정 NO!
난방비는 내리고!
건강난방은 올리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원적외선 대류 복사열 건강난방



실내 · 외 활용도 높음, 보조난방
★ 열효율이 높아 화장실 동파예방 ★

탄소에너지 난로 국내산입니다.
최고온도 105℃
원적외선 대류 복사열 난방으로 90%이상 절감

공기중 산소를 태우지 않고 수분을 데우는 방식으로 가까이 사용해도 전자파 발생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며 빛이 공기를 투과하지 않고 직접 물체에 도달합니다. 음이온 공기정화 기능으로 인체 살균작용, 향균 및 곰팡이 제거효과 ※ 야외화장실 추천(화장실 냄새제거) 음이온발생※

무색 표면 온도가 100도 넘어도 색깔이 없습니다.
무취 공기중에 산소와 음이온이 잡냄새를 잡아줍니다.
무음 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액자난로 15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전제품 국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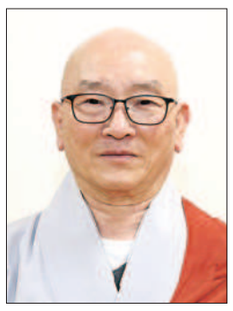
# 2023 불교복지 유공자…'차별 없는 세상' 발원

## 조계종복지재단, 유공자 발표

천안 각원사 주지 대원 대종사 등

시설·단체·사찰 등에서 43명 선정

12월 5일, 한국불교기념관서 시상


조계종 각원사 대원 스님


연화보호작업장 구견 스님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자비마을 묘전 스님


시립죽전어린이집 김향림


홍천군장애인복지관 허종국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이 12월 5일 개최되는 제25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앞두고 불교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발굴, 포상하는 불교사회복지유공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복지재단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통한 정서적 지지 및 격려로 불교사회복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더불어 정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불교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단체, 사찰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정부부처 추천 등을 통해 시설운영과 후원, 자원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공자 43명을 선정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에는 복지 사각지대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안정적인 결식지원과 취약계층 아동 장학사업 등 천안의 다양한 불교사회복지 운영에 기여한 천안 각원사 주지 지산 대원 스님과 2008년부터 농촌 살리기 복지활동과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공헌한 나노인텍(주) 대표 박영식 등 총 15명의 개인 및 단체가 선정됐다.

대표이사 표창은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위해 경상북도북부 지역의 주민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공감시키고 노인학대 예방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유도 및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한 경상북도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황은정 시설장, 여수시노인복지관의 찾아가는 농어촌이동복지사업 연계를 통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1회 이상 주말을 활용하여 농어촌지역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의 열악한 환경에 처한 주택의 전기 수리를 진행하고 200세대 이상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화재 예방의 최일선에 이바지한 여천ncc(주) 자원봉사단 등 총 19명의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된다.

약 16년간 홍천군장애인복지관과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을 역임하며 사회복지사로 강한 책임감과 추진력을 기반으로 서울 거주 1000만 어르신께 급식을 제공하였으며, 서울국제노인영화제 등 노인권익과 노인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희유 스님이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하게 됐다. 서호노인복지관 문태원 부장 외 2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이,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설 주간보호센터 팀장 외 2명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여성가족부장관표창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재단과 함께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 운동과 자원봉사활동,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한화시스템 기업 외 2명의 개인 및 단체에 여성가족부장관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제25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자비나눔 유공자 시상식은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다.

# 불교언론인상에 故김주일 현대불교신문 前편집국장

## 10월 31일 불교문화대전 폐막

## 언론·출판·찬불가 통합 시상



'제31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10월 31일 개최됐다.

故김주일 현대불교신문 前편집국장이 불교언론문화상 불교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0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31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 한 해 한국불교 우수성을 널리 알린 작품과 언론인을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은 10월 18일부터 2주간 열린 '2023 불교문화대전' 폐막식 행사의 일환으로, 불교언론문화상, 불교출판문화상, 신작찬불가 공모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사부대중과 시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기량을 선보이신 불교문화 예술인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오늘날 불교문화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큰 매개이자 미래에 계승될 소중한 가치다. 앞으로도 불교문화단체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격려했다.

스님은 특히 "26년을 다양한 분야에서 취재하고 보도함으로써 한국불교 및 불교언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故김주일 현대불교신문 前편집국장에게 '불교언론인상'을 수여하게 됐다"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게 돼 다행스러운 마음"이라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불교언론인상을 수상한 故김주일 현대불교신문 前편집국장은 1997년 〈현대불교신문〉 공채 2기로 입사해 평생을 불교언론인으로 살아왔다. 〈주간불교〉에서 편집국 총괄부장을 지냈으며, 〈현대불교신문〉에서 편집부장과 편집부국장,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26년간 종단, 포교, 문화,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취재하며 불교계 소식을 대내외에 알렸다. 〈현대불교신문〉에서 불교문화체험기행을 기획해 4년 동안 진행했으며, 불교방송에서 '문화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행복스튜디오' '주간불교소식' '무명을 밝히고' 등의 프로그램 패널로 활동했다. △한국불교기자상 취재부문 우수상(2000) △한국불교기자상 대상 '선원빈 기자상'(2011)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우수상(2011)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상은 故김주일 현대불교신문 前편집국장 아내 박지현씨가 대신했다.

올해 불교언론문화상은 BTN '특집 다큐 스님의 눈물 2부작'이 대상을 수상했다. 방송부문 최우수상은 KBS청주 '특별기획 직지 시절인연',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은 BBS제주불교방송 '제주불교 4·3기억의 흔적을 되짚다', 언론보도부문 최우수상은 불교신문사 '이제는 禪명상 힐링의 시대',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은 비브로스팀 '걸어서 템플속으로'가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은 임영대 동국대 교수가 저술하고 동국대출판부가 출간한 〈금강역사상〉이 수상했다.

제10회 신작찬불가 공모전은 작사부문과 작곡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다. 작사부문에서는 박인숙·강민영·임대열·안나현 작사가가, 작곡부문에서는 권유미·이서연·고원기 작곡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내영 기자

# "조선시대 종교 박해, 천주교만 받았나"

## 불교사회연구소 호국불교연구 2차 학술세미나

### 박해 내세운 천주교 성지화

### 이웃종교와의 갈등 불가피



천진암 터와 주어사지, 서소문 등 여러 종교의 역사가 함께 서린 장소가 천주교의 독자적인 성지로 개발되는 현상을 짚어보고, 현대사회 종교의 공존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사진〉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10월 27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호국불교연구 2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선의 종교는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주제로 마련된 세미나는 조선시대 유교를 제외한 당시 배척종교의 박해 역사를 살폈다.

가장 먼저 불교에선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조선불교의 부침과 역사적 위상'을 발제했다. 한 교수는 △종단 통폐합과 사찰 철폐 △승가 해체와 의례 금지 △승역과 수탈 등 조선의 억불시책을 설명하면서 불교 말살 행위가 다각도로 전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도교의 조선시대 박해는 성주현 청암대 재일코리안연구소 교수가 맡았다. 가장 대표적인 박해는 동학 창시자 수운 최제우(1824~1864)의 처형. 성 교수는 "당시 동학은 서학으로 취급돼 박해를 받고 함께 배척됐다. 최제우는 동학이 서학으로 취급받는 것을 모욕으로 인식해 동학을 버릴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다"며 "그럼에도 교세가 성장하자 유림과 관의 박해는 점차 심해졌다"고 밝혔다.

동학의 배척운동은 영남뿐만 아니라 호남지역에서도 전개됐으며, 곳곳에 향약이 설치돼 동학에 입교하는 것을 막았다. 특히 다섯 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조직한 '오가작통'으로 주민을 감시하고, 이는 동학농민혁명 시기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데도 활용됐다.

이창익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한국천주교 성지 조성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천주교의 성지 개발방식이 종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천진암과 주어사가 이미 폐사된 사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천진암성지 같은 식의 개발은 타 종교의 성스러움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며 "서소문, 포도청, 광화문, 광희문, 해미읍성 등에서도 국가적인 성스러움을 지우고 그 자리에 천주교의 성스러움을 각인하는 형태의 성역화가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교수는 또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박해의 이미지만을 덧씌움으로써 장소의 본래적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한국 천주교회가 순교자 헌양과 성지 개발을 위해 어떠한 편법도 마다하지 않는 한 이런 방식의 성지 개발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학술세미나에선 박종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가 '조선 후기 남인의 서학 활동과 지식인 사회의 평가'를 발제했다.

윤호섭 기자

# "노래·연기로 부처님법 전하겠다"

## 연예인전법단, 선업 스님 예방

## 바자회·송년법회 등 활동다짐



조계종 연예인전법단(단장 우봉) 연예인들이 노래와 연기 활동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릴 것을 다짐했다.

연예인전법단은 10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을 예방하고 "단원들이 합심, 전법 활동을 활발히 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예방에는 연예인전법단 연예인 대표 임혁 씨와 연극인분과 위원장 독고랑 씨, 가수분과 부위원장 진미령 씨, 가수분과 국민가수 임지민 양 등이 동참했다. 또 이한규 사무총장과 자문위원장인 장정화 대불청 회장이 배석했다.〈사진〉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연예인 전법단장인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단원들이 결속력 있게 활동하길 기대한다"면서 "포교원에서도 연예인전법단 홍보뿐 아니라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혁 연예인 대표는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전법활동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면서 "단원들과 결속해 활발한 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예인전법단은 11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하림각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 "한국·해외 불교계 교류 협력 방안 모색"

## 조계종, 10월 31일 해외불교세미나

## 베트남·네팔 등 불교 변화 살펴

해외불교 현황과 특징을 파악해 한국불교와 교류 협력점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10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 해외불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베트남·티벳·네팔·몽골 불교를 중점으로, 각 국가의 최근 10~20년 불교 동향과 변화, 시사점, 교육체계 등을 살폈다.

세미나에서 파주 베트남 사찰 주지 각려효 스님은 '베트남 불교의 신행 특징과 대표종단 죽림파 소개'를 주제로 발제했다. 각려효 스님은 현대 사회에서 불교를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대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은정 (사)나란다불교학술원장은 '티벳의 승가교육 제도'에 대해 고찰했다. 박 원장은 "여전히 많은 선지식과 뛰어난 스승들, 풍요로운 배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티벳의 승가 교육제도는 티벳불교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라며 "중국의 침공으로 나라를 잃고 현재 망명하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인도로부터 전승받은 정신적 유산을 지키기 위해, 불교의 미래를 위해 망명지에 사원을 건립해 승가교육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몽골불교의 전통과 현황'을 발표한 김경나 단국대 몽골연구소 연구교수는 "1937년부터 1990년까지 공산화로 불교는 큰 타격을 받았다. 현대 몽골불교를 복원하는 데 기여한 것은 티벳불교의 망명정부와 사원"이라며 "단절됐던 몽골불교는 티벳 망명정부가 건설한 겔룩빠 사원을 중심으로 스님들을 교육하고 교류하면서 점차 옛 면모를 찾아갔고, 몽골만의 색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내영 기자

## 로터스월드, 미얀마 홍수 이재민 지원 캠페인

국제개발협력단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59년 만의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미얀마 남부 이재민들을 위해 12월 31일까지 긴급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

미얀마 바고 지역(양곤에서 북동쪽 약 68km에 위치)을 포함한 남부 지역은 10월 초 일주일 가량 내린 폭우로 시내의 90% 정도가 약 2m 내외로 잠기고, 1만8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등 심각한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로터스월드는 수해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빈민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특히 고아 등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바고 지역 다수 사원학교가 홍수로 피해를 입어 운영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사찰과 불자들은 로터스월드가 개설한 네이버 해피빈이나 후원계좌(기업, 024-071023-01-063, (사)로터스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02)725-4277

김내영 기자

# "노아의 방주 관리 세금낭비 안 돼"

## 종교편향특위, 간담회서 뜻 모아

## 해미읍성 방문 계획도 구체화



최근 일부 지자체가 '노아의 방주' 구조물을 지역 내에 유치하기 위해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종교편향특위 스님들이 "특정종교 상징물을 운영·관리하는 데 세금이 낭비돼선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종교편향특위)는 10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아의 방주' 구조물 한국 유치 논란과 관련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사진〉 간담회에는 위원장 선광 스님, 종회의원 제정·설조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 교육부장 덕림 스님 등이 함께했다.

앞서 네덜란드 건축가 요한 휘버스가 자신이 만든 '노아의 방주' 대형 모형을 한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방주유치위원회가 방주 한국 유치와 관련해 지자체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자체가 앞장서 기독교 상징물을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유치하는 것은 정교분리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과도한 성지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위원장 선광 스님은 "(노아의 방주를) 기독교계에서 자체적으로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 설치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영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초기 비용은 기독교계가 마련한다 하더라도 토지나 운영비 등 향후 관리를 위해선 결국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법리적 검토 등을 통해 노아의 방주 한국 유치와 지자체 설치에 문제는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노아의 방주' 유치 지자체가 확정될 시 종단 차원에서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복되는 종교편향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불교계의 역량을 강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종회의원 제정 스님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불자들의 인식 전환"을, 설조 스님은 "발 빠른 대처를 위한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제안했다. 교육부장 덕림 스님도 "스님들과 불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불교계가 설 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종교편향특위는 천주교 성지화가 추진되고 있는 서산 해미읍성의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 계획도 구체화했다. 차기 회의에서 일정을 확정 짓고 현장에 동반할 역사학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



상월결사는 10월 28일 의성 고운사에서 마음방생 평화순례를 개최했다. 4000여 대중이 참석한 이날 순례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 대중이 고운사 산문에 들어서고 있다.



고운사 법계도림을 순례하는 자승 스님과 순례 대중들.



자승 스님이 상월결사 죽비를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고운사 법계도림에서 순례에 참가한 4000여 대중이 걷기수행을 하고 있다.

# 4천 불자, 가을 숲길 걸으며 평화 원력 세우다

## 상월결사, 의성 고운사서 마음방생 평화순례 개최

의성=신중일 기자 moltp79@hyunbul.com

"한걸음 닿는 곳마다 부처님의 도량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인류애로써 생명을 키워내는 자애로운 대지 위에서 그들의 고통 곁으로 묵묵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가을 한복판에 들어선 등운산 고운사에 평화를 서원하는 불자들의 발원이 울려 퍼졌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0월 28일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 일원에서 '상월결사 마음방생 평화순례'를 개최했다.

마음방생 평화순례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생이며 세상의 평화로 나아가는 바탕이자 첫 걸음"이라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걷는 수행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고 생명존엄의 가치를 깨닫는 데 순례의 목적을 두고 있다. 2022년 3월 대흥사에서 시작된 마음방생 평화순례는 월정사 · 백양사 · 법주사 · 은해사 · 화엄사에서 진행됐으며, 올해의 첫 순례는 고운사에서 이뤄졌다.

이날 마음방생 평화순례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조계종 원로의원 동명 대종사를 비롯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제16교구본사 회주 호성 · 주지 등운 스님, 제25교구본사 주지 호산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총무부장 성화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WISE캠퍼스 총장,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과 전국 40여 개 사찰 4000여 불자들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또한 김주수 의성군수,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장근호 의성경찰서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순례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마음방생 평화순례 입재는 고운사가 조성한 법계도림에서 봉행됐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신행문화가 정착되길 서원했다.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 마음방생 평화순례는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마음의 자유, 곧 마음의 방생을 이뤄내기 위해 시작했다"면서 "세상의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걷는 수행으로써 내 자신을 성찰하여 내 마음의 평화를 함께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생 전법을 통한 한국불교의 미래는 오늘 이 자리와 같은 신행문화의 진실한 참여에 기초한다"면서 "마음의 방생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순례가 지대한 원력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뭇 생명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어우러져 시대에 맞는 수행과 신행문화가 정착돼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과 순례 대중이 고운사 대웅전 부처님을 참배하고 있다.

**전국 40여 사찰 4000여 대중 참가**
**법계도림~고운사 걸으며 마음 방생**
**동국대 장학생들 참여, 자기 성찰해**
**자승스님 "걷기수행으로 마음평화를"**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 죽비를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에게 전달했으며, 등운 스님은 전달받은 죽비를 쳐 상월결사 정신이 고운사에 전해졌음을 알렸다. 등운 스님은 "오늘 마음방생 평화순례에 동참하기 위해 전국에서 이처럼 많은 불자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 고운사 숲길을 걸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란다"면서 "고운사 본말사 사부대중은 대학생 전법과 한국불교 중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례 참여 대중은 안윤효 제16교구신도회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했다. 순례 대중은 "내가 나의 마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대자유이고 방생이며 평화를 나누는 순례의 시작임을 알아가겠다"며 "우리 사는 세상이 차별 없는 자유와 평화의 정토이기에 슬픔과 비탄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새로 보게 하시고 절망과 공포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다시 얻게 해달라"고 발원했다.

본격적인 순례는 약 500m의 법계도림을 도는 것으로 시작됐다. 신라의 고승 의상 스님이 화엄일승의 교리를 7언 30구의 게송으로 정리한 것을 다시 도해한 것이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다. 자승 스님을 필두로 한 사부대중들은 법계도의 숲을 묵언으로 걷기 수행을 하며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법계도의 숲에서 시작된 순례행렬은 고운사 천년 숲길로 이어졌다. 가을 단풍으로 장엄된 2km의 숲길을 4000여 순례 대중들은 합장하며 묵묵히 걸어 나갔다. 숲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걷기 수행을 하니 어느덧 고운사에 도착했다. 대중들은 대웅보전 부처님을 참배하고 복전함에 보시를 이어갔다. 이날 순례에서 모연된 기금은 모두 상월결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전법 불사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운사는 이날 전국에서 찾아온 순례 대중에게 점심 공양을 제공했다. 국수 한 그릇에 힘을 얻고 휴식을 취한 대중은 다시 법계도의 숲을 향해 걸어갔다. 총 4.5km의 순례는 법계도림에서 순례 동참 사찰 주지스님들이 마음 방생 축원의식을 올린 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삼창으로 회향했다.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은 오늘의 순례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마음 방생 평화 순례에 처음 참석한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고운사에 오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준비했다. 이때부터 고운사의 모든 순간들이 저의 마음 방생 평화 순례"라면서 "고운사 숲길들을 걷기 수행하며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발원했다. 많은 청년들이 이 같은 대오(大悟)의 순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 정광중고 불교어머니회 회원 이미숙(46)씨는 "교법사스님의 권선으로 참석하게 됐다. 처음 마음 방생 평화 순례에 참여했는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 좋았다"고 말했다.

대학생 불자들의 순례 참여가 많았던 것도 이번 순례의 특징이었다. 특히, 동국대 장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해인사와 불굴사를 다니는 불자인 동국대 체육교육과 배준현(이서장학생)씨는 "평소에는 학업과 알바에 신행활동하기 어려웠다. 오늘 순례를 통해 신행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면서 "고운사의 숲길을 합장하고 묵언하며 걸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같은 신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체육교육과 황수영(불교청년지도자장학) 씨도 "동국대 장학생으로서 가을 천년고찰을 걸으면서 신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걷는 순간이 힐링으로 다가왔다. 내년에 임용고시를 보는 데 고운사 부처님께 임용 합격을 기원했다"고 말했다.


www.palgwanhoe.or.kr

2023팔관회보조금지원사업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부산불교연합회가 응원합니다!






2023 팔관회 Turn Toward Busan 참여

호국불교의 상징인 팔관회 행사를 맞아 '턴 투워드 부산'행사에 부산지역 전 사찰이 동참하여 신성한 불음(佛音)으로 고통 받는 중생의 번뇌를 벗게 하고 모든 중생의 영혼을 구제하는 범종을 울림으로써 순국선열의 왕생극락 발원

- 일시 : 11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역 전 사찰
- 내용 : - 1분간 범종, 죽비, 목탁 등의 11타와 함께 추모묵념
  - 부처님의 법음을 통하여 한국전쟁 참전용사 및 순국선열들의 왕생극락 발원

턴 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Turn Toward Busan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부산유엔기념공원을 향해 한국 현지 시각에 맞추어 동시에 묵념 및 추모행사를 진행하여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고 그들을 추모하는 행사이다.



동참방법 1. 오전 11시 범종, 죽비 등을 1분 동안11타 하고 UN기념공원을 향해 묵념 등 추모행사 봉행
2. 휴대전화 등으로 행사장명 녹화
3. 부산불교연합회로 영상 전달

영상전달 방법 문의 051-867-0501

이메일 전송 주소 story12311@naver.com ※ 제목 : 지역, 사찰명 표기

주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2023 팔관회조직위원회 후원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400호(양정동, 불교회관) 051)867-0501~3

# “천태 광명, 세상 곳곳에 회향되길”

## 부산 삼광사, 신도회 창립 54주년 기념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1월 1일 삼광사 지관전서**
**자비의 쌀 1만㎏ 관내 회향**
**모범불자 선정 표창패 수여**
**“전국 중심 대도량으로 성장”**


삼광사는 11월 1일 경내 지관전에서 ‘신도회 창립 5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가 신도회 창립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했다.

삼광사는 11월 1일 경내 지관전에서 ‘신도회 창립 5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삼광사 신도들은 신도회 창립 기념법회에서 부산의 불교중흥을 위해 삼광사를 창립한 상월원각대조사의 뜻을 되새기며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삼광사는 법회를 봉행하며 자비의 쌀 1만㎏을 지역사회에 회향해 자비나눔 실천도량으로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삼광사가 지원한 쌀은 부산진구청과 부산시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저소득가정 및 독거노인, 복지시설 등에 회향된다.

또 신도들의 신행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모범을 보인 불자에게 표창 및 공로패 등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천태종 종정 표창패는 최민국, 한영자 불자가 수상했으며 총무원장 표창패는 김용규, 신회자, 윤경희 불자가 받았다. 공로패는 고대전, 박수희, 송정분, 이맹순, 김민경, 김금랑, 우순희, 최윤임 불자가 수상했다.

기념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비롯해 원로원장 정산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과 이경훈 삼광사 신도회장, 정봉민 · 서병수 · 이헌승 국회의원,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국 부산진구청장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연혁보고 △표창패 및 공로패 수여 △자비의 쌀 전달 △봉행사 △법문 △격려사 △축사 △축가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법문에서 “삼광사가 창립한지 54주년을 맞았다. 정말 짧은 시간이 지난 것만 같은데 많은 시간이 흘렀고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며 “상월원각대조사님 뜻에 따라 부산의 불자 1만 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도량을 건립하고 전국의 중심 사찰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원로원장 정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삼광사는 상월원각대조사님의 호념 아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산지역 불자들의 인연 공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수많은 불자들이 일주문을 오고가며 온정을 나누고 신심을 더했으며, 함께 기도하고 수행력을 증장해 왔기에 삼광사라는 대도량이 세워진 것이다. 앞으로도 삼광사는 불자님들의 오고 감이 멈추지 않는 수행처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부산에서 삼광사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대조사님의 법광과 큰 서원으로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으며, 대들보와 기와를 올려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모셔 지금의 대가람이 되었다”며 “관음정진 백만독 정신을 되새기고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를 실천하여 천태의 광명이 세상 곳곳으로 회향되게 하고 모든 중생들을 불국정토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 범어사 어린이합창단, 제3회 정기음악회

## 10월 29일 ‘다시 꿈꾸는 꿈, 희망’ 주제로



금정총림 범어사 어린이합창단이 10월 29일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제3회 정기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1부 행복바라미 나눔부산문화제의 기부 행사에 이어 모금 캠페인이 진행됐다. 음악회에는 범어사 포교국장 눌은 스님과 장병주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사무총장, 신기열 범어사어린이합창단 후원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다시 꿈꾸는 꿈, 희망’을 주제로 열린 음악회에는 곡 ‘좋은 인연’과 ‘뭉게구름’ ‘나무의 노래’ 등 다양한 곡들이 무대를 장식했으며, 해동중 해동쇼콰이어와 범어사합창단의 특별출연이 이어졌다.

포교국장 눌은 스님은 “범어사 어린이합창단 한명 한명의 목소리에는 불자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희망이 담겨 있다”며 “세상에 만연한 혼탁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법이 꽃으로 피어나기를 노래로 발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제6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 조계종부산聯, 부산 벡스코서…1508명 수계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10월 31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제6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연합회 소속 사찰 및 전국에서 참여한 수계자 1508명이 동참했다.

연합회 초대회장 수불 스님의 증명으로 열린 법회에서 전계대화상은 수불 스님, 갈마아사리는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 교수아사리는 조계종 계단위원 지현 스님이 맡았다. 존증아사리는 원허 · 심산 · 목종 · 혜성 · 만초 · 하림 · 지일 · 원순 스님이 맡았다.

전계대화상 수불 스님은 “계를 받아 실천할 때 불제자의 모범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퍼져 나갈 것”이라며 “계를 받은 불자들은 내면의 불을 밝혀 전법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장 원허 스님은 “어디서든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마음을 닦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선광사, 개원 기념 어르신 행복 기원

## 11월 1일, 경로 큰잔치 개최
## 대덕여고 학생 장학금 지원도


부산 선광사가 개최한 ‘孝사랑 경로 큰잔치’에서 주지 성문 스님과 내빈,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 선광사(주지 성문)가 11월 1일 개원 22주년을 기념하며 ‘孝사랑 경로 큰잔치’를 봉행했다.

행사는 1부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주지스님 인사 △내빈소개 및 축사 △장학금 전달 △법문 △음성공양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는 효사랑 경로 큰잔치가 이어졌다. 경로 큰잔치는 신도들의 노래자랑 및 경품추첨과 가수 박상철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을 비롯해 사상구불교연합회장 성림 스님, 사상구불교연합회 총무국장 도법 스님, 기원암 주지 지오 스님, 성불사 주지 일도 스님 등 승가내빈과 장제원 국회의원, 조병길 사상구청장, 윤숙희 사상구의회 의장, 윤태한 · 김창석 시의원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경선 스님(前범어사 주지)은 “여러분이 불성을 가지고 살면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고통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나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삶이 고통이고 지옥이 되는 것”이라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고 듣고 말하게 하는 자리인 불성을 믿고 잘 발현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라”고 법문했다.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올해 다시 어르신들을 모시게 됐다.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제원 국회의원, 조병길 사상구청장. 윤숙희 사상구의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는 선광사의 자비행을 치하했다.

한편, 선광사는 대덕여고 학생 21명에게 장학금 각 30만원, 총 630만원을 전달했다. 선광사는 매년 대덕여고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및 쌀나눔 등을 진행해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대만식 수륙재 열린 부산 홍법사

## 묘통사, 10월 24~31일 대만 전통식으로



대만 묘통사가 수륙대재를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부산 홍법사에서 봉행했다.〈사진〉 묘통사는 국제적으로 수륙대재를 봉행하며 고혼과 아귀에게 법식을 공양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홍법사에서는 대만 전통방식으로 재를 올렸다. 도량결계를 시작으로 예불과 자비도량참법, 염구법회 등이 봉행됐다. 특히 수륙대재를 위해 묘통사는 대만에서 모든 장비를 직접 이운하고 200여 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묘통사는 대만을 시작으로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 수륙대재를 회향한다.

한편, 홍법사는 참여를 원하는 일반 대중을 위해 어린아이부터 가족 일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등을 함께 밝히거나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홍법사서 진행된 수륙재는 많은 환희로움을 안겨준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200여 대만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든 생명의 평화와 안위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만으로도 희유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



진각국사 전승관 건립을 위한
모연에 동참해 주세요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한국불교의 큰 발자취를 남기신 고려 2대 국사인 진각국사 전승관 건립을 위한 땅 1평 불사를 봉행합니다.
진각국사 혜심 큰스님은 지눌스님의 뒤를 이어 고려의 2대 국사로 간화선을 크게 펼치고, 「선문염송」, 「선문강요」 등 간화선 수행하는 스님들의 큰 가르침을 전하신 한국불교의 큰 어른입니다.
사)진각국사선양회는 지난 20여 년간 진각국사께서 탄생하신 화순에서 큰스님의 얼과 가르침을 이어가고자, 19년간 다례재와 학술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선양사업을 지금껏 정성을 다해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큰스님의 뜻을 선양하기 위해 탄생하신 곳에 건립하고자 했던 전승관 건립이 소승의 힘으로 요원하여, 여러 대덕 큰스님과 불자님들에게 모연을 청하옵니다.
진각국사 전승관은 어린 학생과 지역 주민, 그리고 화순을 오는 방문객에게 진각국사의 가르침을 알리고 수행하는 장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모연해 동참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불사에 동참한 분은 사적비에 이름을 새겨 영구히 보존하겠습니다.

▮주 소 : 전남 화순군 춘양면 돌정1길 24 혜심사
▮전 화 : 010-2971-4646
▮모연계좌 : 농협 355-0057-0146-43 (진각국사)

(사)진각국사선양회 대표 대현 합장

# “우뢰처럼 쟁쟁한 가르침 되새기겠습니다”

##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 삼천배 정진법회

**해인사 성철 스님 사리탑서**
**500여 대중들 동참해 정진**
**“큰스님 가르침 선양” 다짐**
**‘선림고경총서’ 무료 공개 등**
**30주기 추모사업들 잇달아**

성낙두 경남지사장

조계종 종정을 지낸 퇴옹당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백련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0월 28일 합천 해인사 성철 대종사 사리탑에서 삼천배 추모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삼천배 정진에 앞서 열린 입재식에서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제가 백련암으로 출가한 지 52년이 됐고 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30주년이 됐다. 30년 전 스님 열반 당시 50세였는데 어느덧 80살이 됐고 신도님들도 연로해지셨다. 저에게나 우리 신도님들이 느끼는 세월의 무게가 남다를 것 같다”며 “500개의 좌복을 준비했는데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가라앉히시고 삼천배에 온 정성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원택 스님이 낭독한 ‘성철 종정예하 열반 30주기 사리탑전 삼천배를 봉행하는 우리의 다짐’을 통해 큰스님의 가르침을 선양할 것을 다짐했다.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30년이 되었지만 스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아직도 우뢰처럼 쟁쟁하다”며 “자기는 아주 잊어버리고 영원에서 영원이 다하도록 오직 일체중생을 위하여서만 산다. 법성이 무진하므로 법계가 무한하며 법계가 무한하므로 시분이 무량하다. 시분이 무량하므로 중생이 무변하며 중생이 무변하므로 자비가 무궁하다”는 큰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겼다.

대중은 이어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모르게 남을 도웁시다” “일체중생 행복하게 하소서”라고 외치며 삼천배 정진에 임했다. 삼천배 추모 정진은 1시간에 500배가 이뤄졌으며, 저녁 무렵 온전히 회향했다.

원택 스님은 회향사에서 “대종사께서 열반하시고 신도님들의 가슴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매년 스님의 기일에 맞춰 삼천배 정진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큰스님의 법력도 대단하지만 큰스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 신도들이 보배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세세생생 큰스님의 법이 흐르고 불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백련문화재단이 10월 28일 해인사 성철 대종사 사리탑에서 삼천배 추모정진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백련불교문화재단은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10월 30일부터 성철 대종사의 기일인 11월 3일까지 백련암 고심원에서 4만 8천배 철야정진을 이어갔다. 이후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반 3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또한 재단은 11월 3일자로 ‘선림고경총서’ 37권 전권을 전자책 형태로 ‘성철넷’에 무료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선림고경총서’는 성철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람할 수도 있으며, 각각의 책에 대한 링크는 SNS를 통해 공유해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열람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선림고경총서’는 1984년부터 번역자를 탐문해 번역을 시작했으며, 1987년 가을 선문의 소의 경전에 해당하는 어록을 한 권으로 묶은 〈선림보전〉이 출간됐다. 이후 1993년 〈벽암록〉 상 · 중 · 하 3권을 발행함으로써 ‘선림고경총서’ 전 37권이 완간됐다.

원택 스님은 “‘선림고경총서’는 선의 바른길을 현창하고자 했던 은사스님의 정신과 30년에 걸친 추모사업의 근간이었다”면서 “이제 세계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선림고경총서’를 열람해 조계(曹溪)의 맑은 물을 맛보는 계기가 되고,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고경(古鏡)’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지역과 함께하는 부처님 도량 만들겠다”

##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공 스님 취임법회

**조실 지선 스님 법문 설해**
**“깨친 민주시민이 곧 보살”**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주지 법공)는 10월 29일 경내 대웅전에서 ‘지선 큰스님 특별법회 및 신임 주지 법공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창건주 승계와 함께 주지에 취임한 법공 스님은 취임 소감을 통해 “저의 오랜 기간 의지처였던 문빈정사는 어린이에서 청소년, 청년, 노보살들까지 항상 신도들의 밝은 웃음과 기도정진이 끊이지 않은 수행공동체였다. 특히 은사인 지선 큰스님께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 불교 개혁에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 깊은 장소”라며 “앞으로 저와 더불어 문빈정사의 모든 대중은 화합과 수행의 원력을 굳건히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만들고, 지역사회 대중의 아픔을 같이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하는 사찰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많이 부족한 저를 믿고 창건주 승계를 해주신 은사스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문빈정사가 광주를 대표하는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주지 법공 스님.

조실 지선 스님으로부터 창건주 권리승계서와 주지 임명장을 받은 법공 스님은 부처님과 은사스님, 신도들에게 각각 3배를 올리며 주지로서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주지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문빈정사 조실 지선 스님, 대구 보광사 주지 화명 스님,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 광덕사 상진 스님, 이병훈 국회의원, 김재식 동구의회의장, 이범식 前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장을 비롯해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마음을 다해 문빈정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하며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고, 현재 사회에서는 각성된 민주 시민이 보살이다. 민주시민으로 보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유주무주 모든 존재에게 평화를…

## 참당암, 영산대재 · 산신재 천왕문 주춧돌 발견 기념

지장참회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고창 선운사 참당암(선원장 법만)이 10월 29일 제3차 천일기도 중 900일 기도 입재를 맞아 영산재와 산신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전국 각지에서 10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삼독을 없애고 과거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기원했다.

이날 영산재는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축원 및 법문, 식당작법, 권공, 신중퇴공, 시식, 산신대재 및 소대의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당암 선원장 법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3차 지장기도 900일, 기도를 시작한 지 2800일을 맞아 영산대재와 산신대재를 봉행하게 됐다”며 “〈금강경〉에 아상, 인생, 중생상, 수자상의 사상을 여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처럼 유주무주 모든 존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선 수행과 참회 기도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실천해서 인생의 참 행복이 어디있는지를 알아가는 참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산대재를 마친 대중들은 이어 의운국사 산신재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 산신재는 참당암 수로공사 중 발견된 천왕문 터 발견을 축하하는 자리로 그 의미를 더했다.



참당암 천왕문 터는 대웅전과 마주 보는 곳에 있던 것으로 수로의 물길을 바로잡는 공사 중 주춧돌이 발견됐다. 이를 계기로 참당암은 천왕문 복원 등 종합 불사계획을 수립해 복원에 나설 예정이다.

참당암 천일 지장기도는 2015년 7월 5일 시작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선원사 ‘만의의사 수륙재’ 100여년 만에 재현

## 국운융창과 남원발전 기원 21세기 들어 처음 봉행돼

남원 선원사 ‘만인의사 수륙재’가 100년 만에 재현됐다.

남원 선원사(주지 운문)는 10월 28일 경내 앞마당에서 국운융창과 남원발전을 염원하고, 남원 만인의사 영혼을 천도하는 ‘선원사 만인의사 호국 수륙재’를 봉행했다.〈사진〉

수륙재는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에서 왜군과 싸우다 전사한 만인의사의 영령을 달래기 위해 시작됐다. 일제강점기 당시 만인의사에 대한 제향이 일제에 의해 폐지됐다 100여년 만에 재현됐다.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봉행된 ‘선원사 수륙재’는 남원사암연합회가 후원했으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산스님들이 대거 참여했다.

선원사 주지 운문 스님은 “오늘 수륙재 동참 공덕으로 남원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전월산음악회 성료

## 첫 음악회,시민 호응 높아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원묵)이 10월 28일 관내 2층 중정에서 ‘제1회 전월산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음악회에는 세종전통문화체험관 관장 원묵 스님과 사무국장 선중 스님, 안신일 세종시 시의원, 송아영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등 세종 시민 100여명이 음악회에 참석했다. 특히 전통 한옥 아래서 펼치는 클래식 공연에 시민들의 호응은 높았다.

이날 음악회 공연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종클래식음악연구소가 진행했다.

이날 세종클래식음악연구소는 여인의 향기 OST로 유명한 ‘por una cabeza’부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 ‘언제나 몇 번이라도’, ‘비목’, ‘연꽃 만나고 가는 파람같이’, ‘아리랑’, ‘아름다운 나라’ 등을 공연했다.



관장 원묵 스님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전월산 음악회에 내외빈 모두가 참석하여 자리를 밝혀 주셔 감사하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 월정사, 명상으로 녹색사회 꿈꾸다

## 10월 27~28일 ‘그린 명상 대화’ 기후위기 극복 위한 강연 열려



명상을 통한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꿈꾸는 프로그램들이 명상힐링 성지 월정사에서 진행됐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뭇 생명과 함께 조금 느린 하루’를 주제로 ‘그린 명상대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사진〉

1박 2일 경내 대법륜전에서 열린 ‘그린 명상대화’에서는 청년, 교사, 직장인 등이 참여해 세 차례에 걸쳐 명상을 체험했다. 명상대화 지도법사로는 동국대 WIS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혜성 스님과 월정사 사회국장 지철 스님이 맡았다.

명상대화 1, 2를 진행한 혜성 스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은 ‘인과’다. ‘인과’ 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해보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이라며 “너와 나, 자연과 인간(문화)은 독립되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삼천대천 세계가 인드라망임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삶의 가치가 서면 기후위기 극복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의 ‘천년의 대화’ 우리는 별 먼지’ 특강과 생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 광주 지역 사찰들 무등산 산사음악회 개최

## 증심사 · 약사사 · 문빈정사 공동 원효사 신도회도 29일에 개최



가을 광주 무등산을 만끽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 약사사(주지 무진), 문빈정사(주지 법공)가 공동으로 마련한 ‘무등산 가을 산사음악회’가 10월 28일 문빈정사 앞 광장에서 열렸다.〈사진〉 10월 29일에는 원효사(주지 해청) 신도회가 주최한 ‘원효사 산사음악회’도 개최됐다.

행사에는 포크가수 박강수, 이광배 밴드의 포크송과 공연아티스트 신디의 마술, 트롯가수 나혜진 등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가을 음악의 진수를 선보였다.

공연과 더불어 3곳 사찰 주지스님들의 사찰 안내와 소감을 듣는 시간도 진행됐다.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은 “무등산 증심사는 광주 대표 사찰로, 템플스테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힐링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친 현대인들에게 언제나 평안을 주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사 무진 스님과 문빈정사 법공 스님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찰의 문화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다음날 열린 원효사 산사음악회에서는 가수 정용주를 비롯해 소리노리, 김영식 웃음박사, 여우비 통기타, 박은숙, 김용철, 지주자, 노래발자국 등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음악과 웃음을 선사했다.

신도회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은 “사찰에서 다 함께 음악을 듣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광주영산재보존회, 영산재 시연회 봉행

## 10월 28일 광주전통문화관서



사)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회장 월인)가 10월 28일 무등산에 위치한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제19차 시연회’를 개최했다.〈사진〉

광주시무형문화재 23호 지정된 ‘광주영산재’의 정기시연 행사로, 이수자인 월인 스님(법륜사 주지), 호산 스님(세심정사 주지), 혜령 스님(율곡사 주지)을 비롯해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월인 스님은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영산재는 해탈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식”이라며 “영산재 이수자의 후학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영산재는 2014년 범패에 혜령 스님, 바라에 호산 스님, 작법에 월인 스님이 지정되어 현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는 매년 연수교육 등 후학양성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위령재와 서구청 위안부 희상재를 위한 위령재 등 다양한 공익적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동국대 WISE캠, 불교 어린이 음악축제 개최

## 10월 30일 유아교육과 주최로



동국대 WISE캠퍼스 유아교육과는 10월 30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불교 어린이 음악축제를 개최했다.〈사진〉

‘구름애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불교 어린이 음악축제는 동국대 WISE캠퍼스 유아교육과,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국공립현곡푸르지오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경주어린이집, 이편한 로렌츠어린이집, 휴포레 어린이집, 중앙가야스트라, 그리고 예작 등 다양한 공연팀과 학부모들이 참가하여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이번 불교 어린이 음악축제는 불교문화와 음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인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린이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다양한 음악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상상력을 키워주는 자리로 꾸며졌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불교 어린이 음악축제를 통해 불교미래의 심장인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역량의 씨앗이 심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 “부처님께 옷 입혀요”…체험 ‘인기’

### 日, 나라국립박물관 워크숍 화제
### 매년 가을 개최 쇼소인 특별전서
### 불상에 옷 · 가사 등 입히는 체험
### 학예사 도움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

박영빈 객원기자


불상에 의복을 입히는 워크숍 참가자. 사진출처=엘터뉴스

벌거벗은 모습의 불상에 옷과 가사를 입히는 체험 워크숍이 화제다. 지난 10월 22일 일본의 ‘엘터 뉴스’는 나라국립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특별 워크숍에 대해서 보도했다.

일본 4대 국립박물관 중 하나로, 특히 불교미술의 보고로 불리는 나라국립박물관. 특히 매년 가을에 열리는 쇼소인(正倉院) 특별전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나라국립박물관은 정기적으로 체험형의 워크숍을 개최해 방문객들이 소장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매달 2주차와 4주차 일요일에 열리는 특별 워크숍은 나라국립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한 체험형 워크숍으로 동관과 서관을 연결하는 지하회랑의 광장에서 진행된다. 특히 2주차 일요일 오전 10시반부터는 정기 체험형 워크숍, ‘부처님께 옷을 입히자!’가 개최된다. 이 워크숍에선 벌거벗은 나신의 불상에 옷을 입혀보는 체험이 진행된다.

나라국립박물관 측은 “나신의 모습으로 불상을 조성하는 것은 가마쿠라시대 이후 자주 보이는 양식”이라며 “불상을 단순한 조각상이 아닌, 실제 살아 있는 불보살로 생각하는 생신불(生身佛)사상이 유행하면서 불상에 실제로 의복을 입히고 예경하는 풍습이 유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물관이 소재한 나라시에도 렌죠지(蓮城寺)의 ‘나신 아미타여래입상’이나 덴코지(傳香寺)의 ‘나신 지장보살입상’ 등이 전해져 정기적으로 의복을 새로 입히는 법요가 봉행되고 있다.

워크숍에 이용되는 불상은 2022년, 실제 박물관에 소장 중인 ‘나형 아미타여래입상’을 모델로 해, 작은 크기로 복제한 것이다. 당시 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워크숍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연령을 불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정기 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있다.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체험해 볼 수 있는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나형의 불상에 크게 3종류의 옷을 학예사들의 도움과 설명을 들어가며 직접 불상에 입히는 것으로 진행된다. 먼저 불상의 하반신에 청색의 치마인 군(裙)을 두른 후, 어깨를 덮는 녹색의 부견의(覆肩衣), 마지막으로 붉은색의 가사를 입히는 것으로 불상의 장엄이 완성된다.

박물관 측은 “많은 분들이 ‘불상에 의복을 입히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라던지, ‘어떻게 입혀야 할지 모르겠다’ 며 손사레를 치시는 방문객도 계신다”면서 “하지만 학예사와 스태프들이 함께 하며 알려주므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나형의 불상만으로도 드문데 의복을 입힐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체험할 수 없기에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시길 바란다”며 워크숍에 대한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 中, 선불교 통한 일대일로 발전 도모
〈一帶一路〉

### 10월 19~20일, 다훙산 포럼
### 20개국 500명 사부대중 참석


다홍산 포럼에 참석한 각국 불교대표들. 사진출처=중국불교협회

중국정부의 주요한 대외국책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프트 파워 사업에서 중국불교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중국불교의 중요한 핵심인 선불교의 가르침과 문화를 중심으로 두는 일대일로 사업의 불교정책은 중국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불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중국의 ‘차이나 데일리’, ‘인민망’ 등은 지난 10월 27일, 츠언사(慈恩寺)에서 개최된 국제 선불교 문화 포럼인 ‘다훙산 포럼’의 내용을 보도했다.

걸쳐 후베이성 쑤이저우시에 소재한 다훙산(大洪山) 츠언스는 송나라 때부터 이어오는 고찰로 특히 선종에서는 조동종과 깊은 인연이 있는 선찰이다. 지난 10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국제포럼인 ‘다훙산 포럼: 중국 선문화의 해외확산과 영향’에는 20개국에서 500명의 출재가자가 모여 진행됐다.

포럼을 주관한 츠언스의 주지이자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인 인쉰 스님은 “일대일로를 통한 선불교문화의 발전과 확산은 국가와 지역 간 인적연결을 촉진하고, 불교의 지혜를 진작하기 위한 중국불교계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포럼이 열리게 된 계기를 밝혔다. 스님은 “불교 일대일로의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총해 사람들 사이의 인연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했다.

포럼 개막사를 맡은 중국인민정협의 치쉬춘 부주석은 “다훙산 포럼은 중국 선 문화의 국제적인 교류와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또한 다훙산에서 일어난 선 문화의 그 국제적 명성과 영향력으로 인류 문명의 진보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중국선의 우수성을 자랑했다.

현재 중국불교계의 다양한 문화 · 교육사업은 일대일로의 경로에 있는 불교국가인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인도, 몽골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국제적인 사업의 중간 점검을 위해 최근 베이징에서 진행됐던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대응하여 개최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이 주도하여 2016년에 만든 불교 국제기구인 남중국해 불교원탁회의의 개최권을 이양하는 행사도 열렸다. 원탁회의는 그동안 중국에서 개최되다가 지난해 최초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됐으며, 오는 12월엔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포럼이 실제 불교 문화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 중국의 관제 선전을 위한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일고 있다. 중국의 인권문제를 주로 다루는 ‘비터윈터’는 “포럼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난 정상회의에 맞춰 진행된 것은 다분히 중국의 하드 파워과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 印, 달리트 ‘불평등’ 이유로 400명 불교 귀의

### 구자라트 주 각지서 개종 법회
### “불교의 평등 · 자비사상 감명”


아마다바드 개종 법회에 참석한 스님과 불자들. 사진출처=더 인디안 익스프레스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아마다바드에서 달리트 400명이 불교로 개종해 화제다.

10월 25일 인도 매체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아마다바드에서 달리트의 집단 불교 개종 소식을 전했다.

지난 10월 24일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아마다바드에서 두세라(दशहरा, 라마 신이 악마 라바나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축제)를 맞아 개종 법회가 열렸다. 올해 14회를 맞은 개종 법회는 구자라트 불교 아카데미가 주최했으며 법회에는 구자라트 주 전역에서 약 400명의 힌두교도가 참석했다. 이들 대부분은 달리트 공동체 출신으로 카스트 제도의 차별을 피해 개종을 선택했다.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프라빈바이 파르마르(38)은 “2013년부터 구자라트 불교 아카데미와 인연이 있었었지만 이제야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불교로 개종했다. 인도 도처에는 차별이 있다. 달리트를 향한 흉악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개종을 결심했다. 불교는 힌두교와 달리 평등과 자비가 있다”고 밝혔다.

구자라트 불교 아카데미의 라메시 반카르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난 달 구자라트 주 행정센터에 개종 신청서를 제출한 418명 중 90%가 불교를 택했다. 라메시 사무국장은 “인도는 공식적으로 카스트 차별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카스트에 기반한 편견과 범죄가 만연하다”면서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카스트제도의 최 하층민, 달리트가 대부분 불교로 개종한다. 뿌리 깊은 차별과 멸시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불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파르마르의 견해에 동의했다.

간디나가르의 란데자 출신인 아쉬위니 쿠마르 솔란키(22)의 가족도 불교에 귀의했다. 그는 “69세, 70세의 부모님도 오늘 개종 법회에 참석해 함께 불자가 됐다”면서 “아버지께서는 2004년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어왔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불교 교리를 말씀하시며 가족 모두가 불교에 귀의해야 한다고 설득하셨다”고 말했다.

가족이 함께 불자가 된 솔란키의 사연과 반대로 홀로 개종한 R K 자다브(71)는 “우리 가족도 불교를 접하긴 했지만 아직 개종 의사는 없다”면서 “내가 먼저 개종하면 가족들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 美, 태국계 사찰 절도 피해…인명 피해 없어

### 감시 카메라까지 가져가 수사 난항
### 보안 강화 및 범죄 예방 기금 모연


강도 피해로 엉망이 된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출처=왓 라오 사원

지난 10월 25일 미국 필라델피아 텔레비전 방송국 ‘6ABC’는 필라델피아 내 태국 불교 사원 절도 피해 소식을 전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왓 라오 불교사원에 강도가 침입해 수천 달러의 보시금과 귀중품 절도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사원에 아무도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피해 당시 불자의 장례식을 위해 스님 및 사찰 관계자 모두 외출 중이었다.

피해 사원의 피아쿠 라 스님은 “장례식을 마치고 사원에 돌아왔더니 법당과 요사채 모두 아수라장이었다. 불전함 자물쇠도 파손되어 있었으며 보시금을 포함해 강도들이 사원의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설명하며 “당시 사원의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해 인명 사고를 피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현재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당시 범행 현장이 녹화된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으나 범인은 감시 카메라 수신기와 하드 드라이브까지 훔쳐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왓 라오 사원은 보안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기금 모연을 시작했다. 라 스님은 “많은 분들이 피해 소식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기금 모연을 열었다”면서 “내부 회의 끝에 보안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려 한다. 기금은 모두 보안 카메라 수리 및 증설에 사용 할 예정이다. 우리 사원의 스님과 관계자 모두 안전하게 지내 수 있도록 동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 성지순례 10일
동 참 금 : 269만원~
주 요 일 정 : 녹야원–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아그라–델리
체크포인트 : 호텔, 열반당 가사 공양, 인도 · 네팔 비자 비용 포함, 성지순례구간 한식 요리사, 전 구간 불교 전문 가이드
▶2024년 2월 22일 ~ 2024년 3월 2일
▶2024년 3월 14일 ~ 2024년 3월 23일

인도 성지순례 13일(아잔타 석굴 포함)
동 참 금 : 320만원~
주 요 일 정 : 델리–오랑가바드–아잔타 석굴–엘로라 석굴–산치 대탑–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쉬나가르–케사리아–바이샬리–나란다–죽림정사–영축산–보드가야–녹야원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순례 6일
동 참 금 : 259만원~
주 요 일 정 : 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 불치사–콜롬보

주요 불교성지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액티비티 체험까지 多!
라오스 성지순례 5일
동 참 금 : 149만원~
주 요 일 정 : 탓루앙–탁발 행렬 참관–꽝시 폭포–왓씨엥통–탐쌍/탐남동굴
체크포인트 : 특급호텔, 롱테일 보트 체험, 블루라군, 전신마사지 2시간
▶ 2024년 1월 12일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17일 ~2024년 1월 21일

불광산사 등 대표순례지와 자연과 문화, 휴식까지
대만 완벽 순례 5일
동 참 금 : 169만원~
주 요 일 정 : 불광사–불타기념관–중태선사–자제공덕회–태로각협곡–법고산사–자항사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20일
▶2024년 2월 25일 ~ 2024년 2월 29일
▶2024년 3월 14일 ~ 2024년 3월 18일

세계 3대 불교유적지 보로부두르 사원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5일
주 요 일 정 : 자카르타–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 사원–프람바난 사원–머라피 화산

중국 4대 불산
–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 · 낙가산
– 지장보살의 상주처 구화산
– 보현보살의 상주처 아미산
– 문수보살의 상주처 오대산



예약·상담 02-365-7747
www.mahayeon.com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 “스님들 문자 생활, 훈민정음 창제 영향”

## 영축총림 통도사, 10월 28일 추계학술대회

**한글 창제 前 문자생활 상황 분석**
**차자, 향가 등 훈민정음 창제 토대**
**스님들 향찰 문자사용 · 이해 탁월**
**석독구결 문헌 불경서 확인 가능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는 10월 28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전 문자생활과 불교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종정 성파 대종사와 주지 현덕 스님, 발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이전의 백성들의 문자생활이 불교에 영향을 받았고, 이 영향이 훈민정음 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10월 28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전 문자생활과 불교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통도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전 사용한 문자에 대해 살펴보고 불교의 경전 연구와 스님들이 사용한 문자가 훈민정음 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연구했다.

학술대회 발표는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가 ‘향찰의 문자-표기론적 고찰’을, 문현수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가 ‘고려시대 화엄경 점토 석독 구결과 유가사지론 점토 석독 구결의 현토 방식 비교 연구’를 발표했다. 이어 하정수 동국대 교육연구원 연구교수는 ‘고려말 조선초 능엄경 구결의 기입 양상과 계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지오 교수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사용한 향찰(향가에 사용된 한자의 음과 뜻을 우리말로 적은 표기법)에 대해 설명하며 “향찰에 대한 다양한 특징을 살펴보면 문자 발달사에 등장하는 방법을 모두 시험해본 문자실험의 장”이라며 “훈민정음이 새롭고 위대한 문자인 것은 분명하나 세종 한 사람의 역량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700년 가까이 우리말을 표기한 차자, 특히 향가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자 사용 경험들이 한글창제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향찰이라는 문자의 사용자와 문자를 기록 보존한 사람은 불교 승려가 압도적이었다. 실제, 현재 전하는 향가는 모두 26편이며 이 가운데 출 · 재가 수행자를 포함한 불교 대중이 지은 작품이 18편으로 전체 향찰 자료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불교의 사부대중이 향가를 짓고 향찰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고 향가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능숙도가 다른 집단들 보다 뛰어났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들이 향찰 표기에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불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사용되었던 구결, 그 중에서도 석독구결과의 관련성을 빼놓고선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문으로 된 불경 텍스트를 어휘부터 문법 형태까지 당시의 우리말로 번역하고 표기하는 방식에 능숙했던 집단이 승려집단이었으므로 다른 직군보다 향찰을 보다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문현수 교수는 석독구결이 대부분 불경에서 확인되는 점을 주목했다. 문 교수는 “구결자와 구결점이 사용된 석독구결 문헌들은 모두 불경이다. 석독구결이 기입된 불경은 대부분 화엄종의 소의경전인 〈화엄경〉이거나 법상종의 소의경전인 〈유가사지론〉”이라며 “구결자와 구결점이 보이는 형태와 소리의 체계성에 대한 인식이 훈민정음의 탄생에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정수 교수는 ‘고려 말 조선 초 능엄경 구결의 기입 양상과 계통’을 발표하며 “능엄경 간행은 언해사업의 전형”이라며 “조선 초기 한글 창제 이후 능엄경을 시작으로 불경 언해 사업에서 고려말 음독 구결 자료가 교량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참석해 훈민정음 창제에서 불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 갈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파 대종사는 “오늘 이 자리는 한글 창제에서 불교의 역할을 연구 발표하는 자리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발표로 그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주지 현덕 스님도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불교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 지원 후원하고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수묵 언어로 펼친 선적 사유의 미학

## 월전재단, 김대열 작가 초대전
##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전시


김대열 작가의 ‘보현보살도’

수묵화는 채워져 있으나 채워져 있지 않은 매력이 있다. 그 여백의 미는 선(禪)적이기에 여러 사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동국대 명예교수이자 중국 남개대학 객좌교수인 김대열 작가는 수묵화가 가지는 선의 미학을 작품 활동을 통해 투영해왔다.

월전미술문화재단은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벽원 미술관에서 김대열 교수 초대전을 개최한다.

‘김대열 수묵언어-무상(無象) · 유상(有象)’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표작 ‘보현보살도’를 비롯해 김 교수 특유의 선취(禪趣)가 느껴지는 작품들이 대거 전시된다.

실제 김 교수의 작품 주제는 ‘선적(禪的) 사유’ 이자 ‘깨달음’이다. 직관을 통해 얻어지는 이미지를 시각언어로 표출하고 있어서다. 그의 표현방법 역시 빠른 필묵 운용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는 선종화(禪宗畵)나 문인사의화(寫意畵)에서 즐겨 사용하던 감필화(減筆畵) 방식이기도 하다. 대담하고 활달한 운필(運筆)은 형상을 개괄적이고 간략하게 드러내며 색채는 절제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순간에 이뤄지는 붓놀림과 발묵(潑墨) 효과는 선과 면, 구체적 혹은 추상적 형상을 한꺼번에 표출해 내며 선종화의 미학적 특징을 잘 드러낸다.

김 교수는 전시 서문에서 “선과 수묵은 그 이론과 실제에서 상통하며 그 결합은 자아실현의 유력한 표현수단이다. 필묵을 빠르게 휘쇄(揮灑)하는 순간순간 드러나는 형상에서 오는 미묘한 감정이 바로 선열(禪悅)은 아닐까? 그래서 선과 수묵이 결합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묵화는 객관사실을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화가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적극 반영할 수 있어, 수묵화와 선종은 인간의 자아를 새롭게 이해하고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상보상성(相補相成)의 관계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02)732-3777

신중일 기자

# 고려 후기 대표 동종 ‘내소사 동종’ 국보된다

**문화재청, 10월 31일 지정예고**
**고려代 특징 확인되는 ‘기준작’**
**선찰사 석가여래좌상 보물 예고**

고려 후기 동종을 대표하는 ‘부안 내소사 동종’ 〈사진〉이 국보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부안 내소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예고 하고, 안동 선찰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유물과 고려 청자, 조선시대 문집 등 5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가 이번에 국보로 승격되는 ‘부안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종으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표작이자 기준작이다.

종을 만든 내력이 적힌 주종기(鑄鍾記)를 통해 도인(道人) 허백과 종익의 주관 아래 장인 한중서가 700근의 무게로 1222년 제작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본래 청림사에 봉안됐다가 1850년(철종 1) 내소사로 옮겨졌는데, 이 내용을 적은 이안기(移安記)도 몸체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문화재청은 “내소사 동종은 양식, 의장, 주조 등에서 한국범종사와 제작 기술과 기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주종기와 이안기 등을 통해 봉안처, 발원자, 제작 장인 등 모든 내력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된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수조각승 현진을 비롯해 응원, 수연, 성인, 인균 등 당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해 1622년(광해군 14) 조성한 불상이다.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장열왕비章烈王妃, 1576~1623)’가 발원하여 왕실의 비빈(妃嬪)이 출가하던 자수사 · 인수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한 11존의 불상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부안 내소사 동종’과 보물로 지정 예고된 5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 보물)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매듭 연구가 성낙윤 작가, ‘매듭인생’ 회향전

**11월 8~14일 종로 KCDF갤러리서**
**단주 · 108염주 등 200여 점 선봬**



“불자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염주를 만들며 기도발원하고, 수행, 기도, 친목, 포교를 생활화 했으면 하는 바람과 현대매듭의 선구자로 전통매듭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습의 매듭을 선보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전시회를 열게 됐죠.”

한평생 매듭을 연구해온 성낙윤 작가(조계종전국여성불자회 고문)가 매듭인생 마무리를 위한 회향전시를 연다.

성낙윤 작가는 11월 8~14일 서울 종로 KCDF갤러리 2층에서 ‘성낙윤이 만든 매듭’ 특별전을 개최한다. 성낙윤 작가는 전통적인 매듭의 계승은 물론 기존 매듭 형태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 창조적인 작품을 선보여왔다. 이번 전시에는 2년여 동안 직접 만든 △단주 △108염주 △목걸이 △팔찌 △노리개 등 200여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11월 1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성낙윤 작가는 “작품을 만들 때마다 ‘천수경’이나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며 수행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면서 “이번 전시는 우리 매듭의 우수성을 알리는 보급과 전수를 위한 전시인 동시에 불자로서 큰 원력으로 살아온 매듭 인생을 회향하며 전법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낙윤 작가는 전시 판매 수익금 전액을 비구니스님의 노후 복지기금 및 불교인재 양성과 전법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낙윤 작가는 매듭 보급과 현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생도 모집, 자신이 한평생 다져온 매듭연구를 전수해 나갈 예정이다.

성낙윤 작가의 전시 개막식은 11월 8일 오후 3시. 02)732-9382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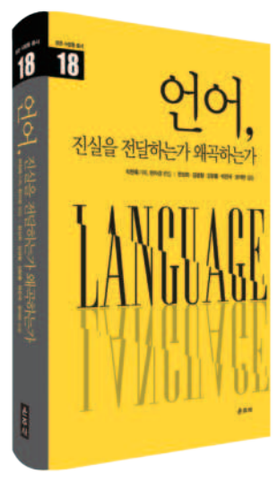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22,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이필원 외/24,000원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이필원 외/25,000원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학술연찬회
주제: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일시: 11월 18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인식하고 사유하며 의사소통을 한다. 이 책은 불교와 동서양 철학, 심리학에 이르는 다양한 시각으로, 과연 언어는 사물의 본질(진리)을 그대로 보여주고 전하는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한상희 외 /신국판양장/23,000원




YouTube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지난 학술연찬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1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11) 마음을 만드는 뇌의 구조 | 문일수 | 운주사 |
| 2 |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 클린턴 오버/김연주 | 히어나우시스템 |
| 3 | 미얀마 아라한의 수행:9위빠사나 선사들의 법문모음 | 강종미 편역 | 해장각 |
| 4 |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초기불전001) | 각묵옮김 | 초기불전연구원 |
| 5 | 운명을 바꾸는 법(정공법사요법사훈강설) | 정공 법사/이기화 | 불광출판부 |
| 6 |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 아헹가/현천 역 | 선요가 |
| 7 | 아비담마 길라잡이(1) 아비담맛타상가하*ABHIDHAMMATTHA SANGAHA*전정판 | 아누룻다/대림,각묵 | 초기불전연구원 |
| 8 |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원고68편 수록*법정스님 원적10주기 추모집 | 법정스님 | 불교신문사 |
| 9 | 능엄경대의 풀이:우주와 인생의 진리근원을 밝힌(증보판) | 남회근/송찬문 | 마하연 |
| 10 | 맛지마니까야(3) 중간길이로설하신경 | 대림 스님 옮김 | 초기불전연구원 |

책세상

## 독서의 계절 불교 소설에 빠져볼까

완연한 가을이다. 가을만큼 독서하기 좋은 계절은 없다. 불교 소설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 귀중한 소설 2편이 발간됐다. 한 책은 사명 대사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역사소설이고, 다른 한 책은 불자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자전적 소설이다. 두 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愛民정신으로 칼을 품었던 사명을 그려내다



칼을 품고 슬퍼하다
이상훈 지음
여백 / 1만6800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임진왜란은 1592년(선조 25년) 5월 23일부터 1598년 12월 16일까지 약 7년간 이어진 전쟁이다. 흔히들 왜적이 침략해 지난한 전투를 벌이다가 이순신 장군으로 인해 왜적이 패퇴한 전쟁으로 알고 있으나,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이라는 통일국가가 가용한 유 · 무형의 자산을 총동원한 최초이자 유일한 총력전이자 동북아 최초 국제전이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한 · 중 · 일 삼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그만큼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전개가 드라마틱하다보니 임진왜란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였다. 현재까지 제작된 임진왜란 영화와 드라마는 총 8편으로 다른 주제에 비하면 압도적인 숫자다. 하지만, 승병을 분연히 일으켜 왜적과 싸운 승장(僧將)과 승병의 이야기는 매우 편린적으로 다뤄진다. 공전의 흥행을 기록한 영화 '명량'에서도 승군은 관군과 함께 싸우는 비정규 원군으로 그려지고 있다.

스타 PD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상훈 소설가는 우연히 접한 사명 대사의 애끓는 한 마디가 화두가 됐다.

**"포검비(抱劍悲), 칼을 품고 슬퍼하다."**

불살생을 맹세한 승려가 칼을 들고 적이지만 귀중한 목숨을 거둬야 하는 참담한 심경이 묻어나는 일구(一句)다. 이 일구가 이상훈 소설가에게는 10년의 화두가 됐다. 그는 10년 동안 사명 대사의 흔적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고, 수차례 일본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했다.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벼려낸 것이 바로 장편소설 〈칼을 품고 슬퍼하다〉이다. 〈사명집〉권3 '과진천'에 있는 일구 '포검비'에서 가져온 소설의 제목은 곧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다. 소설은 사명의 어린 시절, 천재 소년으로 불리던 응규의 첫사랑 이야기로 시작한다. 첫사랑 아랑과의 가슴 뛰는 사랑도 잠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아랑과 어릴 때 잃은 형제, 그리고 부모의 죽음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워하던 사명은 승려의 길로 들어선다. 자신을 짝사랑하던 미옥을 끝내 뒤로한 채.



사명대사의 진영

**임진왜란 종결자 사명대사 면면들**
**이상훈 작가 10년 취재로 되살려**
**왜적에 대응한 건 민초와 승려들**
**"사명은 조선을 구한 영웅" 강조**

출가 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던 사명은 승과에서 장원을 차지했으며, 그의 학문적 깊이를 알아본 사대부들과 시문을 나누고 우정을 쌓아갔다. 하지만 곧 임진왜란이라는 격랑이 조선을 덮쳤다. 왜적으로 인해 민중들은 스러져갔고, 결국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사명 대사는 분연히 일어나 승병의 대장이 돼 왜적을 물리쳐 나갔다.

승장으로서의 사명은 유학을 신봉하는 조선 사관들이 기록해 놓은 것보다 훨씬 뛰어난 전쟁 영웅이었다. 왜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의 목을 움츠러들게 한 "그대 목이 조선의 보배"라는 일갈처럼 사명의 활약상은 그야말로 종횡무진 눈부신 것이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전투의 그 어떤 승리보다 참으로 값진 것은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에 대한 사명의 측은지심이었다.

오직 자신의 권세만을 누리려는 조선의 권력자들이 외면해 온 조선인 포로들을 위해 사명은 거침없이 적의 소굴로 들어갔다. 일본의 많은 적들이 사명에게 글 한 줄을 얻기 위해 줄을 서고, 사명의 가르침을 받으려 머리를 조아렸다. 사명은 무도한 일본의 적들에게 결국 문(文)이야말로 무(武)를 이기는 진리임을 설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했다. 그리고 끝내 일천오백 명에 달하는 조선 백성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온다.

다 알고 있는 역사이지만, 작가가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은 탄탄하고 촘촘하다. 허균, 허난설헌과의 인연, 일본 등 주변국의 정세, 사명 대사의 십자가 이야기 등을 흥미롭게 엮어낸다.

이를 통해 작가는 말한다. 포로 일본으로 끌려간 민초들에게 사명은 살아있는 부처였다고. 사명 대사는 조선의 고승이 아니라 조선을 구한 영웅이었다고. 그렇기에 임진왜란의 영웅은 이순신 장군만이 아니라고. 애민정신으로 계를 어기면서까지 칼을 들었던 사명이야말로 조선을 구한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이상훈 작가는**

KBS 공채 피디로 방송에 입문, SBS 개국에 참여해 수많은 히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14년 첫 소설 〈한복 입은 남자〉가 국민적인 관심 속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소설 〈김의 나라〉는 제16회 류주현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문학성을 인정받았다.

# 나를 치유해나간 여정 그리고 불교

**성폭력 등 삶의 질곡 겪었던 작가**
**불교 귀의하기까지 성장통 그려**



빛과 소녀
최다경 지음
인디북스 / 1만6800원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남에게 털어놓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이 자신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야기라면 더욱더.

자전 소설 〈빛과 소녀〉를 내놓은 최다경 작가는 어릴 적 성폭행의 후유증으로 20년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한국과 독일을 오고 가며 여러 번 정신병동에 입원해야 했다.

잊으려 해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고, 덮으려 해도 당최 덮어지지 않는 그 시간대를 그저 인생의 침체기, 무덤, 함정, 암 덩어리라 여기며 의식 저편으로 밀어 넣고 달리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던 작가는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상처는 희미해졌지만 다시 꺼낼 용기를 좀처럼 낼 수 없었다.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장애를 경험한 예술인의 인생사를 작품으로 펼쳐 놓을 수 있는, 작가로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를 얻었지만, 자전적 스토리를 펼쳐 놓기 전의 심리적 중압감이 상당했다고도 전한다. "정신질환이란 표현은 아직도 여전히 실로 민감하고 조심스러우며 거부감이 들고 순순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어떤 모양새였건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루하루 생활하고 기능했다 항변하지만, 이 낙인엔 감내해야 할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너무나 강해 보인다"고 담담히 고백한다.

그런 그에게 빛으로 다가온 것은 불교였다. 불교에 귀의한 작가는 자신이 회복된 지난하고도 기나긴 여정을 되돌아보며 고통 속의 인간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담아 실화에 바탕을 두었지만 문학이어서 부르기 너무도 자유로운 노래를 마음껏 부르는 심정으로 여주인공 '리사'의 입을 빌려 자신의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펼쳐 놓았다.

실제, 리사는 소설 말미에 산사를 찾는다. 이곳에도 씩씩 거리며 분풀이 할 곳을 찾던 주인공은 스님들과의 만남에서 점점 제자리를 찾아간다. "참회를 해도 안 되고 용서를 하려해도 안된다"는 주인공의 성토에 스님은 이렇게 조언한다.

**"자비가 없어 그래. 우물이 얕아 길어 올릴 게 없어. '자'가 사랑, '비'가 연민, 자비를 키워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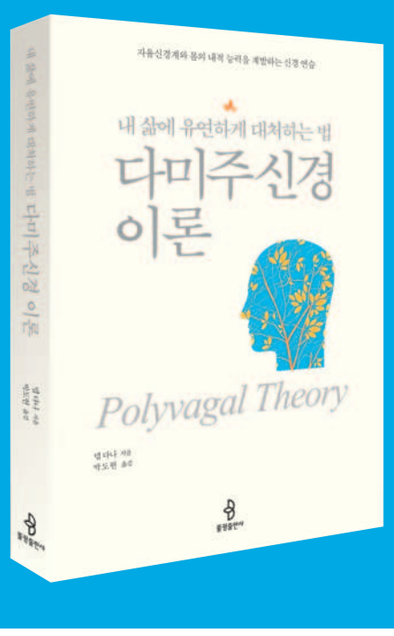
스님의 이 한마디는 리사를 변화시켰고, 어느 날 문득 변화를 체험한다. 그 순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노래한다.

**"먹구름 같은 머릿속. 끊어지지 않는 한 생각, 아니 오만 생각들. 모든 것이 환영들. 숨이 점점 가늘어지고 고동치던 머리도 가슴도 멎는다. 한 밤의 법당엔 자비의 빛이 깃든다. 눈을 뜨면 항상 그곳에 있는 붓다는 빙그레 웃다가 아름답다가 한낱 불상이었다가 그리고 멈춘다네. 그리고 사라진다네."** 신중일 기자


우리 안에 고통을 이겨내는 타고난 힘이 있다!

내 몸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놀라운 신경과학,
'다미주신경 이론'의 모든 것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최선의 방식으로 삶에 대응하는 힘을 길러 주는 신경 연습!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신경과학 신경심리학 분야 1위

내 삶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
다미주신경 이론
뎁 다나 지음, 박도현 옮김
304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문득' 찾은 사찰에서 '으레' 지나치는 것들
흔하고 오래된 것들 안에 깃든
우리 역사와 문화, 옛사람들의 염원!



당신이 사찰에서 발견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허투루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알면 알수록 보이는 사찰 구석구석 숨은 보물찾기, 마지막 라운드!

● 암벽 위에 새기고, 바위를 다듬어 만든 '사찰의 석조물'
마애불 | 석탑 | 석등 | 승탑 | 노주석 | 당간지주

●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 '사찰 속에 숨겨진 의외의 보물'
수미단과 탁자 | 계단과 석축 | 해우소 | 백자연봉 | 청자 기와 | 오리 조각 …





사찰에 가면 문득 보이는 것들
사찰 속 흔하고 오래된 것들의 놀라운 역사
노승대 지음 | 올컬러
432쪽 | 30,000원

# 목숨 건 극한 수행…전법 원력 다져



총도감 호산입니다
호산 지음
불교신문사
2만5000원

**상월결사 4년간 기록 정리해**
**총도감으로서 느낀 소회 풀어**
**"금생에 하나밖에 없는 순례"**
**부처님법 전하는 각오도 담겨**



인도순례 30일차,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뒤에서 순례를 함께한 총도감 호산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겨우내 난방하지 않은 천막에서 옷 한 벌로 생활하며 하루 한 끼 공양하고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정진이 끝나는 날까지 묵언해야 한다.…이를 어길 시 조계종 승적을 반납하겠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제출한다."

2019년 11월 11일 기해년 동안거 입재일. 위례 신도시에 자리한 상월선원 부지에선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아홉 스님이 풍찬노숙 천막정진에 들어갔다.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하루 한 끼 공양, 단벌 정진, 삭발 · 목욕 금지, 외부인 접촉 및 천막 출입 금지, 묵언이라는 혹독한 청규를 세우고 한겨울 목숨 건 수행에 나선 스님들.

이제는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 주지가 된 호산 스님은 4년 전 이때, 지객 소임을 자청했다. 종단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을 8년이나 지낸 자승 스님이 무문관 정진에 이어 풍찬노숙을 하겠다는 선언에 호산 스님은 오히려 피가 끓었다. 출가 40년, 드디어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밥값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 설렘이 샘솟았다.

그로부터 90일, 호산 스님은 천막을 나서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항상 후배들의 안위를 챙기며 고행을 이어간 회주 자승 스님의 지도력부터 죽을 고비에도 문밖을 나서지 않으며 수행의지를 다진 재현 스님의 마음가짐까지. 호산 스님은 천막 밖의 사부대중과 함께한 90일을 '조계종사에 다시없을 대중 무문관' 으로 평가한다.

천막정진이 끝날 무렵, 자승 스님은 이대로 수행 정진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결심과 함께 부처님 7대 성지를 걸어서 순례하자는 인도순례의 뜻을 전했다. 이후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의 모든 순례에서 총도감을 맡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에서 먼저 펼쳐진 2020년 자비순례 만행결사, 2021년 삼보사찰 천리순례, 2022년 마음방생 평화순례, 그리고 올 초 펼쳐진 43일간의 인도순례까지.

상월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호산 스님은 인도순례를 마치며 "금생에 하나밖에 없는 순례에 동참하게 돼 개인적으로 감동이가 가슴이 벅차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무엇보다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격려와 배려로 이끈 회주 자승 스님의 법력에 한량없는 공경을 표한다.

이처럼 〈총도감 호산입니다〉는 상월결사의 총도감으로서 정진에 함께한 호산 스님의 지난 4년을 기록하고 있다. 상월결사의 매순간 몸소 겪고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불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상월선원 천막결사에서 발원해 한국불교에 새바람을 불어넣은 인도순례로 이어지는 불교중흥을 위한 정신이 세상 속에서 살아 숨쉬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 호산 스님. 그 정신을 이어 부처님법 전하는 데 온 삶을 바치겠다는 스님의 각오가 오롯하게 전해진다.

# 어두운 세상 밝히는 노래



사람이 사람에게로 가 서면
글 최명숙 / 도서출판 도반
1만 3000원

만남, 동행, 기다림, 사랑,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최명숙 시인의 목소리가 따뜻한 감성의 언어로 탄생했다.

〈사람이 사람에게로 가 서면〉에는 한 계절을 절집에서 보낸 노 여행자 이야기, 여행길에서 만난 풍경들과 귀향 이야기, 화두처럼 찾던 길에 대한 단상들, 잊지 못한 사랑 이야기, 몽골평원에서의 이야기와 귀가 들리지 않는 몽골 소년과 맞은 저녁의 그리움 등 시인의 곁에 왔다 간 것들이 시로 담겼다. 그저 평범해 보였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시인의 마음에서 꽃처럼 피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노래가 돼 다가온다. 선한 시심을 간직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인 듯 마주한 삶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둘러 싼 세상에서 어두움을 어둡다 하기보다는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밝고 깊어진 시선으로 그려냈다.

시인에게 있어 시 쓰는 일은 삶에 있어서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가리고 마음의 고요를 얻는 과정이며 그렇게 써간 시가 누군가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그의 고요가 되길 바란다.

최명숙 시인은 "지나간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별의 먹먹함에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이별이 아닐지도 모르며, 보내야 할 것을 보낸 후에 남은 기억들은 슬픔이기보다 영원히 남을 추억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세상을 향한 시인의 시선따라 시를 읽다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따듯해지면서 생의 길이 나고, 마음을 내려놓을 공간이 보일 것이다.

임은호 기자

**▲저자 최명숙 시인은?**

등단 30년이 넘은 중견시인이다. 1992년 시와 비평으로 신인상을, 2002년 구상솟대문학상 본상을, 2018년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마음이 마음에게〉 〈따뜻한 손을 잡았네〉 등 8권의 시집을 출간했으며 〈심검당 살구꽃〉은 2021년 한국불교출판협회의 올해의 10대 불서로 선정됐다. 현재 보리수아래 대표,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이상, 도서출판 도반 편집주간, 조계종포교사단 포교사를 담당하고 있다.



## 한 편의 가슴 벅찬 시 같은 책



작은 빛 하나가
글 캇 예
그림 이자벨 아르스노
옮김 황유진
불광출판사
1만 4000원

"작은 빛 하나가 온 하늘을 밝힐 순 없어도…작은 시작이 되어 줄 거야!"

〈작은 빛 하나가〉는 어둠을 다루고 있다. 그 어둠은 불을 다 끈 뒤 아이 혼자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와 같은 말 그대로 어둠일 수도 있고, 폴이 죽거나 외롭거나 절망하거나 위험할 때 아이 마음에 깃든 어둠일 수도 있다.

어떤 어둠과 맞닥뜨리든 언제나 희망이 있다고 글쓴이는 말한다. 희미하게 깜박거릴지라도 분명히 빛이 있다고, 그 작은 빛으로도 자신감을 기르고 자기 앞의 세상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이다. 우리 안에서 조용히 반짝이는 작은 빛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어쩌면 이런 희망의 메시지는 아이보다는 어른에게 더 진실한 울림을 줄지도 모른다. 수십 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힘든 시간들을 건너 지금에 이르렀을 테니 말이다.

〈작은 빛 하나가〉는 어떤 어둠과 맞닥뜨리든 언제나 희망이 있다고, 희미하게 깜박거릴지라도 분명히 빛이 있다고, 그 작은 빛으로도 자신감을 기르고 자기 앞의 세상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아마도 아이와 어른이 함께 마주 보고 읽을 때, 아이가 그 어른을 믿고 따를 때, 책을 읽으며 둘이 각자의 감상과 느낌과 경험을 꺼내 놓고 도란도란 얘기할 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한 희망의 빛이 더 잘 눈에 띌 것이다.

임은호 기자

## 칠하고 읽고 답하면 소원도 이뤄진다



마음을 전하고 마음에 답하는 33관음 컬러링북
정기란 지음
담앤북스
1만 6800원

세상 모든 소리를 듣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33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비의 상징, 관세음보살. 모든 질병과 삿된 기운을 물리쳐 주는 양류관음부터 어민이나 항해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아뇩관음까지 〈33관음 컬러링북〉에는 33관음응신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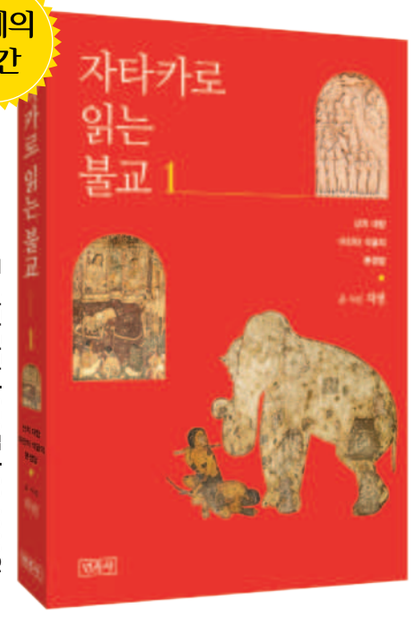
관세음보살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명호만 불러도 큰 덕이 온다고 한다. 붓다아티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기란 작가의 관세음보살은 조금 더 특별하다. 친근하고 편안한 모습의 관세음보살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다독이는 작은 위안이 된다. 관세음보살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칠했다면 다음페이지에 있는 '관음예문' 과 '오늘의 기록' 이 나만의 시간을 조금 더 풍성하게 채워 줄 것이다.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365일 중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날은 언제인가요?"와 같은 기분이 좋아지는 질문에 하나씩 답을 하다 보면,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관세음보살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칠해보자. 매일이 조금 더 행복해질 것이다.

임은호 기자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본생담 자타카로 읽는 불교 1

화제의 신간



부처님의 본생담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책!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의 저자 각전 스님의 역작!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석벽에 그려진
본생담의 내용에 환희와 기쁨에 젖어들었습니다.
본생담의 스토리텔링의 힘은 대단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글·사진 각전 | 350쪽 | 23,0000원

각전 스님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정치철학 전공)를 졸업하였다. 39회 행정고시 합격,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출가를 단행하였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 직지사 선원 등에서 정진하였으며, 대장경 천년 축전 해인사 준비위원, 〈해인〉지 편집장을 잠시 맡아 활동하다가 다시 선원으로 돌아와 수행,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 미얀마의 쉐우민 국제명상센터에 다녀왔다. 현재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법주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으며, 수행의 여가에 법보신문에 '각전 스님의 본생담으로 읽는 불교', 월간 불교문화에 '각전 스님의 부처님 성지 순례'를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백금남 소설

# 아디카야의 검 40 여기 있었군 1



**▶한줄 요약**

이 기자 일행은 이석원의 행방을 찾기 위해 트리운트 사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석원의 행적을 듣게 된다.

## 트리운트 사원에 이석원 행적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온 그림쟁이 오빠가 시오레 언니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안 것은 술집 생활을 시작한 지 꽤 지나서였다. 오빠가 처음 우리에게 접근했을 때 한국에서 들어온 여행객인 줄 알았다. 여행비가 떨어져 떠도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오레 언니가 빚이 있어 쫓기고 있었는데 그 빚을 오빠가 갚아 주었다. 이 바닥을 잡은 오빠들이 혀를 내둘렀다. 어릴 때부터 배운 선무도로 세 명을 때려눕히고 시오레를 구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보기에는 비실거려 보이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다른 나라 사람이 이곳으로 들어와 활개를 치면 가만두지 않는데 오빠가 주접을 떨어도 이제 그러려니 하고 만다. '저 자식 웃긴다니까 비실거려도 제대로 날고 긴다니까.' 그러고 만다. 그 후부터 우리는 오빠를 아디카야라고 부른다. 순수한 마음의 원초신. 우리를 구원하는 수호신. 천사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그럴 수는 없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렇게 영혼이 맑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사창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고 있는 사람. 갈 곳 없는 늙은이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고 밥을 먹여주고, 그들의 몸을 씻겨 주고, 발을 씻겨 주고, 옷을 꿰매 주고…. 예전에 우리를 도와주던 성당 수녀님이 와서 그랬다. 욕망이 들끓는 지옥에 피어난 한 송이 꽃이라고. 시오레 언니는 가끔 차라리 몸을 팔더라도 아디카야 오빠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 오빠와 뱀을 잡아 팔아 배고픈 사람들의 양식을 장만하고는 했는데 뱀을 잡기가 무섭단다. 그림쟁이 오빠는 시오레 언니에게 셋집도 마련해주고 어쩌든지 이곳에서 건져내려고 하지만 시오레 언니는 빗나가기만 하고 있다.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 달란 말이에요! 그랬던 시오레 언니인데. 시오레 언니도 요즘은 가슴이 아픈 모양이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 가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다.

-시오레 언니가 아디카야 오빠가 얻은 셋집에서 살았다고 하던데 알고 있소?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오오스마 기자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사람들을 데리고 셋집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지내라고. 그런데 주인이 내쫓았어요. 여기가 창녀 집이고 걸뱅이 집이냐며. 그날 아디카야 오빠가 써놓은 글을 보았어요.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세 든 집을 내놨다고. 셋돈을 빼 다리 밑에 천막이라도 치겠다고.

-그 오빠가 지금 어딨는지 모르오?

역시 오오스마 기자가 물었다.

-몰라요. 언젠가 천추사원 공사가 다 끝나간다고 그러면서 한국으로 나갔다 온다고…. 그 후론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소?

역시 오오스마 기자가 물었다.

-다리 밑에요. 갈 곳 없는 식구들이 벌써 스물다섯 명이 넘었어요. 아디카야 오빠가 쳐준 천막을 나라에서 뜯으라고 하는데, 국유지라고….

문득 밖을 내다보자 찻집 앞으로 벤츠가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고 있었다. 이 지옥 속을 저들은 무슨 복으로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어제도 없는 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돼지 취급도 하지 않는다. 더럽다며 먹지 않는 돼지고기보다 못한 인간들….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는데 문득 그녀의 음성이 들려왔다.

-며칠 전 시오레 언니가 죽었어요.

-네?

하나 같이 입을 벌리고 할 말을 잃었다.

잠시 후 나는 시오레가 집을 나갔다고 하던 주인 여자를 떠올렸다.

-술집을 나간 것이 아니에요. 시오레 언니가 죽자 이빠오레 언니가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왜 주인 여자는 시오레가 집을 나갔다고?

-모르겠어요. 시오레 언니 죽기 전날 밤. 이 골목을 잡은 왕초한테 눈에 멍이 들게 두들겨 맞다가 결국 그놈이 휘두르는 칼에 배를 찔렸거든요. 번 돈 반을 떼어 모으다 보니 그놈에게는 아디카야 오빠가 눈엣가시였을 거예요.

-그래 범인은 잡혔소?

오오스마 기자의 물음에 그녀가 고개를 내저었다.

-아뇨. 주인 여자가 숨기고 있는 거 같아요. 주인 여자가 어제도 그랬어요. 아디카야란 놈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몸 파는 애들이 한푼 두푼 모아 아디카야 오빠가 세운 사랑의 모임에 내놓거든요. 그 오빠 때문에 몸을 팔지 않고 뱀을 잡으러 다니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 술집 주인이 가만 있겠어요. 그 오빠 지금 트리운트 사원에 있다는 말이 있던데 만나면 이곳에 얼씬도 말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오오스마 기자가 달려오는 택시를 잡고 세 사람을 돌아보았다.

-이 길로 바로 그녀가 말한 트리운트 사원으로 갑시다. 내가 그곳을 알고 있으니.

네 사람을 태운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트리운트 사원이 있는 외진 마을에 닿은 것은 한 시간을 달려 해가 뉘엿거릴 무렵이었다. 차를 마을에 정차한 다음 어울려 사원으로 올라갔다. 이곳저곳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솔솔 피어오르는 게 보였다. 그 뒤로 둥그스름한 산들이 어깨동무하듯 누워 있어서 한결 더 정겨워 보였다.

길도 닦이지 않은 사원이어서 작을 줄 알았는데 초원을 헤쳐 등성이를 넘어가자 다시 마을이 나오고 제법 큰 사원이 보였다. 절 이름은 이 나라에 맞추었지만, 이곳도 한국 절이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큰 사원이었다. 우선 원주스님을 찾아 이



삽화 · 김상규

석원에 관해서 물었더니 지안 금어가 천추 사원에 머물면서 가끔 찾아와 탱화 작업을 하던 곳이라고 했다. 지안 스님의 아들 이석원도 함께 머물렀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다. 지안 금어가 살아 있을 때 그린 그림이 칼을 맞고 몇 점 모셔져 있었는데 성치 못하였다.

-탱화가 찢어졌군요?

내가 이석원을 생각하며 원주스님에게 물었다.

-어느 날 제 아버지와 그린 그림을….

-이석원 짓이군요?

오오스마 기자가 끼어들자 원주스님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십니까?

-이곳만 그런 게 아닌가 보더군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작업할 땐 순한 양인데….

그의 안내로 지안 금어가 살아 있을 때 그렸다는 극락과 지옥의 길이라는 작품이 보관된 곳으로 갔다. 다포로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는데 창을 열자 거대한 그림이 나타났다. 붓다의 일생이 수놓아진 그림이었다. 천추사원에서도 이런 유의 그림을 볼 수 있었는데 인상적이었다.

그림 위를 덮은 유리가 깨어져 있었다.

-이것도 이석원의 짓인가요?

심 작가가 원주스님에게 물었다.

원주스님이 머리를 내저으며 웃었다.

-아닙니다. 더 좋은 틀을 만들어 넣으려다가 그만…. 그러잖아도 천추사원으로 기별을 놓을 참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시지 않았으면 지안 스님을 모시려고….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오오스마 기자가 눈치를 보며 말하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듣고 난 원주스님이 기가 막히는지 눈을 감았다. 그는 잠시 후 무슨 생각에서인지 사원에서 제일 웃어른이라고 하는 조실스님에게 네 사람을 인사시킨 다음 이곳까지 오느라 시장할 텐데 공양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공양간으로 데리고 갔다. 차려다 주는 음식을 받아 보니 자빠디 한 쪽이었다. 시장기가 돌아서인지 먹을 만했다.

식사가 끝나고 나자 사미가 오더니 원주스님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어떻게 시장기는 달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주가 네 사람에게 물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미가 차를 내오자 원주스님이 찻잔마다 차를 따랐다.

-이런 말을 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깨어진 성화만 보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도 그림에 미치다 보니 그런 짓을 한 모양인데….

-그래요?

오오스마 기자가 그제야 눈을 빛내며 물었다.

-사실 이 사원은 그놈에게 고향 같은 곳이지요. 그놈이 제 아버지를 따라 이 나라로 드나들면서 처음 머물렀던 곳이 여기였으니까요.

-우리는 천추사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천추사원에서 그들을 모시기는 했는데 이석원이는 이곳이 좋았던가 봅니다. 틈만 나면 드나들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듣고 있던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최근에도 들렀겠군요?

내 물음에 원주스님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보자. 한 며칠이나 되었나?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군요.

-그래요? 그럼 그 후로 연락이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며칠이나 묵었다 갔습니까?

아쉬운 듯 대답하던 나는 원주스님을 향해 다시 물었다.

-한 이틀 묵었을 겁니다. 지안 스님 잘 계시느냐고 물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는 날 자신이 그린 탱화를 찢어 버렸어요. 제 아버지를 죽이고 불태웠을 줄이야….

원주스님이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그가 여기로 오면 기거하는 방이 있었을 텐데요? 쫓기면서 그가 의지한 곳이 여기였다면 말입니다?

-아무튼 이상한 놈입니다. 소문에 들으니 늘 가난한 이웃들을 구한다고…. 아니 여기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된다고. 언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곳을 동경했다고. 붓다가 태어난 곳이고 법을 펴신 곳이니…. 그런데 이곳으로 들어와 보니 지옥을 봤다고 했습니다. 지옥. 그 지옥이 밤마다 자신을 부른다고…. 그러다 미쳐버린 모양입니다. 자주 천추사원을 나와 구걸해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갔고, 그들에게 밥을 해 먹이고….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아비를…?

-그의 소지품 같은 것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스님의 심중을 알겠지만 내가 계속 물고 늘어졌다.

-글쎄요. 그가 쓰던 방도 이미 다른 이가 들었고, 그가 가고 난 뒤 보니 책 한 권이 떨어져 있더군요.

-책?

-그걸 어디 두었을 텐데…….

-경전이었습니까?

-경전은 아닌 것 같았는데….

-그걸 좀 볼 수 없을까요?

원주스님이 남은 차를 후루룩 들이켜더니 잠시 후 누군가를 불렀다. 이제 25살이나 되었을까. 젊은 스님이 나타났다.

-가서 이석원 금어 책 좀 내어 드리거라. 저번에 다락에 넣어 두지 않았느냐.

-네. 그러겠습니다.

-따라들 가시지요. 전 곧 예불을 올려야 해서….

네 사람은 스님을 따라나섰다.

이석원이 거처했다는 방은 본당을 지나 대중처소 한 쪽에 있었다.〈계속〉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박희승의
##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㉑ 생사 윤회의 정견과 禪



▶한줄 요약
입으로만 무아를 말하고 행은 유아에 머물러 있따면 생사 윤회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 "현실 바로 보면 지상이 극락"

죽음의 괴로움은 인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에 두려움을 느낀다. 아무리 부자여도 권력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죽음의 괴로움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종교에서는 죽음 이후 다시 태어나는 윤회나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 가는 사후 세계를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깨치고 첫 설법인 〈초전법륜경〉에서 당신은 "중도(中道)를 깨달아 죽지 않는 불사(不死)의 문을 열었다"고 설하셨다. 이것이 부처님의 중도대선언이다. 죽지 않는 문을 열어 보임은 부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부처님은 우리 인류에게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다.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과 불교인재원 생활참선회원들 기념촬영.

### 삶과 죽음의 괴로움이 지속되는 윤회 문제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깨달음의 지혜를 알려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지혜의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으니 생사 윤회의 괴로움을 받는다. 인간이 생사 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일으킨 어리석음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명(無明)에 덮인 중생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치달리고 윤회하므로 그 시작점을 꿰뚫어 알 수 없다."** 〈상응부경전〉

인간은 깨달음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져 분별망상을 일으켜 삶과 죽음의 윤회 바다를 헤매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깨달음의 지혜를 공부하여 믿고 행하면 생사 윤회를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부처님은 안내한다.

### 불교와 힌두교의 윤회설은 같은가?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불자들 사이에도 이 윤회 문제에 대하여 적지 않은 혼돈과 논란이 있다.

먼저, 윤회는 힌두교의 교리이고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셨으니 불교에서는 윤회가 없다는 주장이다. 힌두교가 윤회를 말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인도의 4성 카스트제도를 합리화하는 브라만계급이 만든 윤회설이 있다. 금생에 브라만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그만큼 선한 업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생에서 지은대로 내생에 태어난다는 힌두교의 윤회설은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숙명론(宿命論)이다.

이와 같이 힌두교의 숙명론적인 윤회설과 달리 불교의 윤회는 지은대로 받는다는 인과설(因果說)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불교는 운명론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한 해탈의 길을 제시한다. 즉, 불교는 숙명론의 윤회가 아니라 윤회에서 해탈하는 깨달음의 가르침이다. 힌두교는 윤회하는 진아(眞我)를 말한다면, 불교는 윤회에서 해탈하는 중도 무아의 깨달음을 말하니 근본적으로 다른 길이다.

부처님 말씀 이해했다고
생사윤회 해탈한 것 아냐
오로지 각고의 정신으로
무아를 깨달아 증득해야

### 윤회를 불교의 핵심으로 하는 상좌부 명상법

그런데, 근래 남방 상좌부 승가의 전통에서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법으로 공부하고 온 분들이 "윤회가 불교의 핵심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느 이름 있는 재가 수행자는 자신의 저서와 방송을 통하여 "불교의 핵심은 윤회이며, 수행을 통하여 전세 5생과 후세 5생을 관하는 수행"으로 자기의 전생과 내생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부처님 말씀을 모아 놓은 경전의 곳곳에서 전생과 윤회에 관한 말씀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불교에서 윤회를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불교의 핵심이 깨달음이 아닌 윤회라고 주장하니 이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전세 5생과 내세 5생을 관찰하는 수행과정을 말하니 더 놀랍니다.

실제 미얀마 파욱명상센터의 파욱스님의 법문집 〈사마타 그리고 위빠사나〉(무념 옮김, 명상선원 오솔길)라는 책을 보니 "12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에서 '연기는 과거, 현재, 미래의 3기간 동안에 작용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다' 하며 과거로 나아가서 '전생의 죽음의 순간의 순간의 정신-물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고 안내한다.

현존하는 남방 상좌부 승가의 대표적인 선지식이라는 파욱스님은 이렇게 전생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익힌 사람은 '미래의 삶에서 원인과 결과를 식별할 수 있다' 고 한다. 더 나아가 파욱스님은 이렇게 내생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안내한다.



하루 5분 좌선법을 알려주신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

**"여러분이 보게 될 미래는 계속 변할지도 모르지만, 과거와 현재의 결과이다. … 이런 식으로 계속 관찰해서, 무명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수많은 미래의 삶을 식별해야 한다. 무명의 소멸은 아라한도의 증득과 함께 일어난다. 과거 현재 미래에서 정신-물질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식별했다면, 당신은 두 번째 통찰지(위빳사나), 즉 원인과 조건을 식별하는 지혜를 완성한 것이다."**

파욱스님은 과거 전생을 관찰하여 통찰지를 얻은 사람은 미래 내생을 관찰하여 무명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래의 삶을 식별해서 마침내 무명을 소멸시켜 아라한도를 증득하는 내생 관찰 수행법을 닦으라고 안내한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전생도 알 수 없는데 내생까지 관찰하는 수행이라니…

### 무아(無我)라고 생사 윤회는 없는가?

간혹, 유튜브나 SNS를 보면 불자라면서 윤회와 인과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누가 알 수 있느냐고 말한다. 실은 경전에도 이런 주장과 반박의 문답이 나온다. 〈장아함경〉 〈폐숙경〉에 보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지 얼마 되지 않아 마하가섭이 500비구와 함께 코살라국 어느 숲에 머물고 있을 때 근처에 사는 한 바라문이 '저 세상이란 없으며 윤회전생도 인과응보도 없다' 고 주장하며 가섭 존자를 찾아와 이렇게 문답한다.

"나는 저 세상도 윤회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존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내 친척 중에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저 세상이 있거든 구경하고 돌아와 나에게 말해달라고 했는데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집행장에서 급한 볼 일이 있으니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한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겠는가?"

"저 세상이 있다고 치자. 그러나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비유를 들겠다. 그대도 잠잘 때 꿈을 꿀 것이다. 그대가 꿈꾸는 것을 그대의 가족들이 볼 수 없다고 그대에게 인식이 없는가?"

생사 윤회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경전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럼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말씀을 믿지 않는 이는 윤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생사 윤회를 바로 보지 못하고 부정하는 이는 영원히 윤회와 인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 무아이니 윤회란 없는 것인가?

흔히 불교 공부를 좀 한 불자도 부처님이 무아(無我)를 말씀하셨으니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느냐?" 하면서 윤회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다. 부처님이 중도를 깨치고 무아의 지혜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가 무아' 를 깨치지 못했다면 '내가 있다' 는 분별망상을 없애지 못한다.

무아라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했다고 생사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생각으로 무아를 이해한 것일 뿐이다. 무아라고 아무리 말하고 생각한들 무아가 되어 해탈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입으로 밥을 말하고 아무리 간절히 밥 생각을 할지라도 굶주린 배를 채울 수는 없다. 오직 각고의 정진으로 무아임을 깨달아 증득해야 한다. 입으로만 무아를 말하고 행은 유아에 머물러 있다면 생사 윤회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불교는 무아이니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견해를 부처님은 단견(斷見)에 떨어졌다고 경책하셨다. 반대로 내가 있다고 보고 깨달음과 무아를 부정하는 이를 부처님은 상견(常見)에 떨어졌다고 하셨다. 부처님의 정견은 단견과 상견의 양변을 떠난 중도 무아이다.

### 생사 윤회에 대한 禪의 지혜

본래성불을 종지로 하는 선종에서는 생사 윤회를 어떻게 보는가? 선종의 6조 조계혜능대사를 찾아가서 첫 만남에서 깨침을 인가 받고 〈증도가(證道歌)〉라는 주옥같은 선어를 남긴 영가현각대사는 이렇게 말한다.

**"조계(曺溪)의 길을 깨치고부터는 생사와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도다"**

선(禪)에서도 부처님처럼 깨치면 생사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영가대사가 말하는 조계의 길이 바로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말한다.

조계종에서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는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설법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얻을 수 없다. 현재도 또한 무상(無常)이고 무아(無我)이니 잡을 수 없다. 이것이 중도 정견이고 선의 지혜이다.

우리나라 선사 성철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생사(生死)란 모를 때는 생사입니다. 눈을 감고 나면 캄캄하듯이. 하지만 알고 보면, 눈을 뜨면 광명입니다. 본래 생사란 없습니다.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윤회라는 것도 눈감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눈을 뜨고 보면 자유만 있을 뿐이지 윤회는 없습니다. 현실을 바로만 보면, 마음의 눈만 뜨면 지상이 극락입니다. 이 현실 이대로가!"** (성철스님과 법정스님의 대담, 1982년 1월 1일)

성철스님이 생사도 윤회도 본래 없다고 해서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깨달은 이에게는 생사 윤회가 없다는 말이지, 깨치지 못한 중생에게는 생사 윤회는 멀고도 멀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 겨우살이환 | 여주환 |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
|---|---|---|
|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등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
|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
| **골담초환** | **산수유환** | **어성초환** |
|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
|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 | | |
|---|---|---|
| 가루자죽염 | 125g | 45,000원 |
| 가루자죽염 | 230g | 82,000원 |
| 알갱이자죽염 | 125g | 50,000원 |
| 알갱이자죽염 | 230g | 90,000원 |
|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 20g | 9,000원 |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 | | |
|---|---|---|
| 보급형 민속죽염 | 500g | 20,000원 |
| | 250g | 10,000원 |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㉑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불단



▶ 한줄 요약
백흥암 극락전에는 1968년에 보물로 지정된 목조 불단이 있다. 한국산사 불단의 백미다.

# 길상으로 충만한 불가사의한 초현실 세계

**백흥암 불단, 한국산사 불단의 백미**

백흥암은 팔공산에 깃든 비구니 도량이다. 도량은 청정하며 삼엄하다. 부처님 오신날과 백중날(음력 7월 보름), 1년에 두 차례만 대중에게 산문을 개방한다. 폐쇄성과 삼엄함은 수행 사찰이 지닌 엄격함의 면모다. 극락전은 청정도량 백흥암의 중심 불전이다. 대세지보살-아미타불-관세음보살의 아미타삼존을 모셨다. 1643년에 중수한 조선 중기 건물이다. 그곳에 일찍부터 나라의 보물로 지정한 목조 불단이 있다. 법당인 극락전보다 18년이나 앞서 1968년에 보물로 지정했다.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것은 백흥암 극락전 불단의 아름다움을 호소력 있게 대변한다. 한국산사 불단의 백미로 손꼽는 데 망설임이 없다.

불단은 불상을 모신 단이다. 불단은 한국산사에서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는 독특한 법당장엄의 한 장르다. 조선 유교사회의 배향 의례와 불상 봉안 형식이 접목됐다. 그리하여 불단이라는 세계 불교미술 장르에서 유례가 없는 한국산사 고유의 법당 장엄 양식을 정착시켰다. 불단은 괘불과 함께 조선시대 불교미술이 성취한 고귀한 성보다.

한국산사 불단은 장엄 양식 및 지역성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경상지역 양식, 둘째는 호남호서의 서남해안지역 양식, 셋째는 기하적 추상 양식이다. 경상지역의 불단장엄은 한국산사 불단 장엄의 정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형과 근본원리에 충실하다. 대단히 고전적이며 조형에 근엄한 분위기가 흐른다. 꽃과 용, 수생생물의 연지(蓮池), 기린, 봉황, 공양비천, 주악비천, 인비인 등 장엄 소재도 다채롭다. 조형에 진채 채색을 입혀 보다 신비롭고 초현실적이며 이상적이다. 통도사 대웅전, 범어사 대웅전, 직지사 대웅전, 파계사 원통전, 관룡사 대웅전, 백흥암 극락전의 불단 등은 그러한 고전주의 불단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서남해안지역의 불단장엄은 대체로 단순하다. 불단 장식의 중심 소재도 용과 꽃으로 단출하다. 대신 화면엔 익살과 해학이 흐른다.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이며 낭만적이다.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순천 정혜사 대웅전, 익산 숭림사 보광전, 나주 다보사 명부전,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의 불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정혜사 대웅전 불단의 용은 머리에 꽃을 꽂고 파안대소하는 파격을 보여준다. 두 지역의 불단장엄 양식을 서양미술에 비하자면 경상지역은 고전주의에 기반한 기념비적 바로크양식에, 서남해안지역은 낭만주의 양식에 대비할 수 있다. 불단에 원과 사각형, 십자형 등 기하학적 도형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셋째 양식은 추상주의 경향에 가깝다.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부여 무량사 극락전, 구례 화엄사 대웅전 등 중부내륙지역의 대형불단이 대체로 기하적 추상주의 양식을 띈다.

한국산사 불단의 진면목을 지닌 백흥암 극락전 불단은 크기에서 소박하다. 가로 길이는 413cm이고, 측면 폭은 185cm, 높이는 상대에 얹은 보탁까지 134cm에 이르는 아담한 크기다. 백흥암 불단은 전형적인 3단 구조다. 하대-중대-상대로 구성했다. 불단 중심부인 중대는 다시 3단으로 구획하고 그 위에 천판을 올려 의식단으로 활용한다. 상대에는 보탁을 배치하여 아미타삼존께 차와 꽃을 상시적으로 헌공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불단의 모든 조각은 투조로 새겼다. 투조 조형 안쪽에 가림막 청판을 덧대 뒀다.



백흥암 극락전 불단과 아미타삼존.



백흥암 극락전 불단 향좌측(좌)과 향우측 측면(우)



백흥암 극락전 불단 정면 중대부분 세부.



백흥암 극락전 불단 좌우 측면에 조형한 인비인 형상들.

**경상지역 불단은 고전주의 경향**
**서남해안지역은 낭만주의 경향성**
**좌우측면은 서수, 인비인의 세계**
**불단 불가사의세계 아미타불 화현**

**기단의 용면은 화마에 대한 벽사**

기단부인 하대는 용의 세계다. 기단 높이는 약 20cm이다. 정면부 기단은 5칸, 좌우 측면은 2칸씩 족대로 나눴다. 각 칸은 물결 형상의 테두리를 지닌 독립된 안상(眼象)의 틀을 갖췄다. 안상은 성스러운 아치형 틀을 말한다. 기단엔 삼면에 걸쳐 총 9칸의 안상을 마련했다. 좌우대칭의 구도로 칸마다 용을 조영했다. 기단에 새긴 용은 두 형상이다. 하나는 용을 정면에서 바라본 용의 정면 얼굴, 곧 용면(龍面)이다. 다른 하나는 측면에서 본 용틀임하는 용이다. 기단의 정면 중앙 3칸엔 용틀임하는 용을, 그 외 6칸엔 용면을 조각했다. 왜 용 모습을 다르게 조각하였을까? 용 형상에 따라 상징성이 다르다. 찬찬히 용 조각을 살펴보면 중앙 3칸의 용틀임하는 용은 붉은 여의보주를 움켜쥘 찰나이거나 입에 물고 있다. 정중앙의 용만 입에 물었다. 여의보주를 쟁취하는 순간, 용은 자유자재의 무한한 변신능력을 갖는다. 신출귀몰의 경지에 이른다. 그때 여의보주는 깨달음과 상통하는 고차원의 상징성을 갖는다. 용이 왕을 상징하고, 부처를 상징하는 내밀한 코드는 여의보주와 연결되어 있다. 그에 비해 용면의 용은 여의보주 대신 연꽃 넝쿨이나 모란 꽃가지를 입에 물고 있다. 정면과 좌우 측면 세 면에 한 쌍씩 조영한 용면은 대위법적이다. 한 용이 연꽃 봉우리를 물고 있다면, 다른 용은 모란 꽃가지를 물고 있다. '입에 물고 있다'고 표현하였지만 보다 엄격하게는 '용의 입에서 연꽃이 피어 나온다'고 하여야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때때로 용이 물고기를 물고 있는 조형도 만난다. 왜 용은 입에 연꽃 넝쿨을 물고 있고, 물고기를 물고 있는 것일까? 연꽃과 물고기는 용의 본질을 환기시켜주는 보조 장치다. 연꽃과 물고기는 용의 본질이 물 에너지임을 강조하는 보조관념들이다. 이때의 용면은 마로부터 청정법계를 수호하는 벽사가 된다. 바로 화마의 정신을 살(殺)하는 해중인(海中人)으로 승화된다. 통도사 대광명전 평방에 새긴 묵서 '하늘의 물을 내뿜어 불의 정신을 없애는' 바닷속 사람이 곧 용이다. 용은 수신(水神)이고, 우주에 충만한 물 에너지의 의인화다.

**중대 27칸 서수와 인비인의 세계**

불단의 중심부인 중대는 3단으로 층층이 나눴다. 각 단마다 정면은 5칸씩, 좌우측면은 2칸씩 마름동자를 세워 분할했다. 정면의 중대는 3×5=15칸, 좌우측면의 중대는 3×2=6칸씩 구획했다. 중대에 총 27칸의 화면을 만든 것이다. 중대 27칸의 화면은 길상으로 충만한 서수의 세계이고, 불가사의한 초현실적 신화의 세계다. 정면의 중대 15칸은 길상의 신령함과 생명에너지로 충만하다. 전설 속 네 가지 신령한 서수인 사령(四靈)-용, 봉황, 기린, 거북은 물론이고, 선학, 여섯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도 등장하고 물고기, 게, 개구리, 물총새 등의 수중 및 물가 생물도 표현했다. 찬찬히 살펴보면 정면의 중대는 좌우대칭으로 질서정연하며 규칙성에 따라 조형을 편성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제일 아래 1단은 땅에서 네 발로 살아가는 서수들의 집합이다. 향좌측부터 '코끼리-기린 기(수컷)-사자-기린 린(암컷)-해치'의 구도로 배치했다. '기린'의 '기'는 수컷이고, '린'은 암컷이다. 수컷은 뿔이 없고, 암컷은 뿔이 하나 있다고 전해진다. 불단 조형에서도 암컷의 '린'에는 외뿔이 선명해서 눈길을 끈다. 1단의 서수 조형은 모두 활짝 핀 모란꽃 속에서 나툰다. 중대의 2단은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중생들의 세계를 펼쳤다. '어변성룡-동자, 황룡, 물총새, 개구리-동자, 황룡, 물고기-동자, 황룡-물고기'의 순서로 배열했다. 2단은 연지의 연꽃 속에 뭇 생명을 깃들게 했다. 연꽃과 동자, 어변성룡의 표현들에선 득남과 입신출세를 염원하는 현세구복 발원을 읽을 수 있다. 중대의 3단은 날것들의 세계다. 향좌측부터 '공작-봉황 황-선학-봉황 봉-공명조'의 차례로 조영했다. 모란을 비롯해서 가지가지 꽃과 함께 장엄했다. 봉황도 1단의 기린처럼 수컷 '봉'과 암컷 '황'을 따로 조각하여 대칭적으로 배치하는 규칙성을 보여준다. 정면의 중대 조형에선 길상과 상서의 서수 출현을 시종일관 견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백흥암 극락전 불단 조형의 압권은 좌우측면 중대에 조각한 조형들이다. 〈산해경〉이나 〈삼재도회〉, 그리고 〈대지도론〉 등의 불교경전에서 묘사하고 있는 가릉빈가, 나찰, 사람 얼굴 가진 사람 아닌 신인인 인비인(人非人) 등 초현실적 세계를 펼쳐뒀다. 불가사의한 하늘새, 나찰, 인비인들이 집결한다. 인비인은 좌우측면에서 모두 여섯 장면 나온다. 물고기 몸에 사람 얼굴을 한 인어 형상의 인두어신 셋, 가릉빈가, 사람 얼굴 가진 거북, 나찰 등 여섯이다. 그중 3명의 인비인은 아미타삼존께 공양 예경 올리는 공양 인비인이다. 날개 가진 가릉빈가는 접시에 진귀한 과일을 담아 가고, 인어와 등에 귀갑을 두른 나찰은 붉은 보주를 두 손에 받쳐 들었다. 신인들의 공양 장면은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에서도 나타난다. 일본 대덕사 소장 수월관음도 등에서도 신인들이 보주, 향목, 산호 등의 진귀한 물품을 공양 올리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다. 백흥암에서 멀지 않은 경산 환성사 대웅전 불단에서도 나찰이 보주 공양 올리는 장면이 포착된다.

중대의 모든 조형은 율동적인 넝쿨과 활짝 핀 다채로운 꽃, 구름 등과 함께 양감 도드라지게 깊게 새겼다. 조형 위에 조형을 능수능란하게 층층이 새겨 입체감이 뚜렷하고, 박진감과 생동감을 생생하게 살려냈다. 구성과 구도경영, 섬세하고 치밀한 조각 표현력, 명암과 채도 대비의 안목 등 어느 하나 부족한 데가 없다. 추상과 초현실의 세계를 구상으로 실감나게 구현한 목조각 장인의 전지적 통찰은 입지전적 경지다.

왜 이런 불가사의한 장엄이 현현할 수 있을까? 〈불설아미타경〉의 제4 천인공양분(天人供養分)과 제5 금수연법분(禽樹演法分)에 그 대목이 나온다. "극락정토에는 항상 아름답고 기묘한 여러 가지 빛깔을 가진 새들이 있다. 백학새, 공작새, 앵무새, 사리새, 가릉빈가, 공명조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맑은 소리로 노래하느니라. 그 소리는 칠보리분과 팔정도를 설하는 법음이니라. 극락정토의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느니라. 이러한 장면들은 법음을 전하기 위해 아미타불께서 화현하신 것이다." 이를 통해 백흥암 중대의 불가사의한 세계는 만유의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기 위한 아미타불의 공덕장엄임을 이해할 수 있다. 백흥암 불단은 아미타여래의 법음을 시청각의 생생한 관상으로 전하는 입체 경전의 걸작이다.

〈사진작가〉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 불교인문학살롱

21 질 들뢰즈의 '차이 생성'과 '연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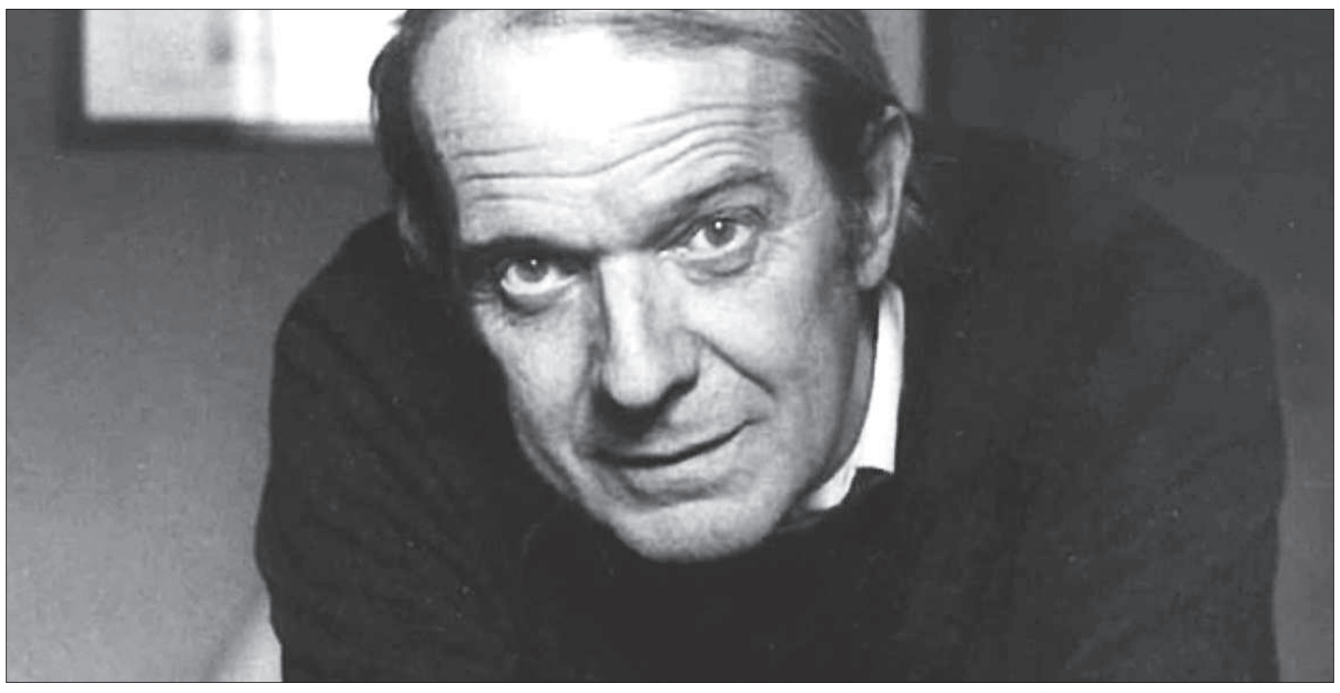
▶**송마나 수필가**는 완도에서 태어나 전남여고와 이화여대 외국어교육학과(불어)를 졸업했다. 2016년 〈에세이문학〉에서 수필, 2017년 〈한국산문〉에서 평론으로 등단했다. 〈에세이문학〉 '인문학 살롱'에 〈신화속, 여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본지에 '송마나 시절 인연'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수필집으로 〈하늘비자〉가 있다.



# "부처의 나무는 그 자체가 리좀이 된다"

**리좀은 시작하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는다. 리좀은 언제나 중간에 있으며 사물들 사이에 있고 사이-존재이고 간주곡이다. 나무는 혈통 관계이지만 리좀은 결연 관계이며 오직 결연 관계일 뿐이다. 나무는 '~이다'라는 동사를 부과하지만, 리좀은 '그리고…그리고…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조직으로 갖는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천개의 고원〉 서론**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의 모습. 20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작가로 활동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 인드라망의 철학자, 질 들뢰즈

21세기는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미셸 푸코의 말처럼,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철학자이다. 들뢰즈는 서구의 전통적인 경험론과 관념론을 해체하고 '존재의 철학'에서 '생성의 철학'으로 탈주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낡고 위계적인 질서에서 벗어나 정주민적인 사유가 아닌 유목적인 사유를 하라고 부축인다. 중심이 고정되지 않은 접속들의 향연, '공(空)'과 '화엄(華嚴)'의 세계로 나아가라 한다.

들뢰즈는 '생성/되기(devenir)'의 철학으로 이끌어가는 방편으로 노마디즘, 기관 없는 신체, 욕망하는 기계, 탈영토화, 재영토화 등 다양한 개념들을 열거했는데, 이것을 하나로 집약해 '리좀(rhizome)'이라 했다.

리좀은 식물학에서 대나무나 연꽃처럼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줄기를 일컫는다. 들뢰즈가 이 단어를 철학적 용어로 사용하면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리좀은 줄기 자체가 다른 줄기의 어디든 달라붙어 접속할 수 있고, 다른 줄기 또한 접속할 수 있다. 수목형 나무는 중심 뿌리가 있고, 그 뿌리로부터 잔뿌리들이 나오는데, 리좀은 연결된 줄기들이 서로 만나고 흩어져 제3의 것, 새로운 것을 생성한다.

나무는 중심 뿌리로부터 위를 향해 수직으로 뻗어나가는 계통적 질서를 유지하지만, 리좀은 중심이나 계층이 없이 수평으로 끊임없이 연결하고 도약해 불교의 인드라망을 형성한다.

인드라망은 제석천을 덮고 있는 거대한 그물이다. 그 그물은 끝없는 그물코로 연결돼 있고, 그곳에는 빛나는 구슬이 달려 있어 그 빛은 서로 비추고 서로 반사하고 있다. 세상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해 중중무진(重重無盡)하는 화엄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들뢰즈는 '내재성의 사유'로서 서양의 '초월적 철학'에 반기를 든다. 현상 세계는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플라톤은 세계 밖에서 모든 사물의 원인이자 본질로서 이데아를 착안했다. 그리고 이 이데아는 불변의 신으로 전이돼 서양 사회의 중심 뿌리를 형성했다. 이데아나 신은 초월적인 일자(一者)로서 우리의 삶 너머에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창조된 주체는 세계 밖의 신을 인식해야 하고, 받들어 섬겨야 했다. 서양 철학은 모든 사유의 정초를 삶의 외부에 두었다.

하지만 들뢰즈는 존재의 근원을 삶의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창조적인 역능으로 해석한다. 창조란 중심이 되는 일자로 포섭되거나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되기'로 생성되는 것이다. 오직 접속하는 상호간의 내재적인 관계에 의해 새로운 생성이 이루어진다. 삶 자체가 창조이고,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초월적인 신에 의해 일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서양의 창조와는 달리 조건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생성된다는 불교의 연기법에 바탕을 둔 인드라망에 닿아 있다.

**"부처의 나무는 그 자체가 리좀이 된다."**

들뢰즈가 〈천개의 고원〉에서 한 말이다. 리좀, 그것은 고정된 뿌리(본질)가 없이 줄기 자체가 다른 것(외부) 과의 접속에 따라 발생과 변형을 일으켜 각각 뿌리 역할을 한다. 즉 리좀은 출발이나 기원, 끝이나 종말에 관한 사유가 아니라 중간에서 각각 다르게 형성되는 '차이의 생성'이라 할 수 있다.

들뢰즈는 차이를 생성하는 존재의 특성을 '양태(mode)'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양태는 고정되지 않고 항상 관계 속에서 변화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원인은 존재할 수 없고, 설령 동일한 원인이 가능하더라도 그 과정은 결코 같을 수 없다. 기원이나 동일한 존재라고 여기는 대상이 반복될 때, 그것은 언제나 다르게 반복돼 생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는 존재할 수 없고, 오직 현존을 뚫고 지나가는 과정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듯, 차이를 바탕으로 하는 들뢰즈의 '생성존재론'은 "모든 것은 연기적인 조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용수(龍樹 150?~250?)의 사상과 흡사하다.

**포스터모더니즘 철학자 질 딜뢰즈의 노마디즘 등 개념들 집약체가 '리좀'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줄기 의미 뻗어난 그의 개념들 '인드라망' 이뤄 '생성존재론', 불교 연기법과 맞닿아**

용수 보살은 연기법(緣起法)에 대해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써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라고 설법했다. 삼라만상은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연기에 의해 무엇인가가 생성돼 '있다'라는 것은 고정돼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모든 사물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자성(自性)이 없다는 것이다. 용수 보살의 말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무자성(無自性)이며 공(空)이라는 것이다.

존재는 서로 다른 것과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며 인대(因待)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언어나 개념으로 인식되는 현상 세계는 연기에 의한 상대적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연기론은 '있다(有)'라고도 '없다(無)'라고도 할 수 없는 공(空)으로 포섭된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존재가 이미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들뢰즈의 차이의 생성과 불교의 연기론은, 존재들은 다른 대상들과 만나 끊임없이 세워지고 부서지면서 연속적인 변주를 하고 있다고 한다.

부처의 나무는 한 점으로 뿌리를 내려 정착하지 않고, 하나의 물결이 또 하나의 물결과 어우러져 강물처럼 흘러간다. 연기적인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리좀, 바로 부처의 나무이다.

## 인간은 붓다가 될 수 있을까?

'-되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되는' 것이다. 확고한 것에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 탈영토화하는 것이다. 뿌리가 아니라 리좀으로, 그것은 연속적인 결연을 통해 이루어진다.

들뢰즈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을 '기계(machine)'로 비유한다. 기계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부품과 접속하고 결합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물건이 만들어진다. 인간 역시 접속하는 항에 따라 기계처럼 다른 욕망이 작동된다. 입이 성대와 접속하면 말하는-기계, 음식과 접속하면 먹는-기계, 성적 리비도와 접속하면 섹스-기계가 된다. 욕망이 이끄는 방향으로 문턱을 넘는 것이 '-되기'이다. 들뢰즈는 인간의 욕망을 프로이트처럼 성적으로, 가족 간의 엄마-아빠-나의 오이디푸스적인 관념으로 보지 않고, 접속하는 대상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창조적인 에너지의 흐름으로 해석한다. 욕망이란 고정된 본성을 갖지 않은 자유로운 무의식으로, 이것을 '기관 없는 신체'라고 명명한다.

'기관 없는 신체'는 하나의 중심, 하나의 일자로 귀속하지 않고 접속된 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뻗어나간다. 해 들뢰즈는 인간을 복수성을 지닌 '다양체(multiplicities)'라고 한다. 이것은 불교의 인간에 관한 해석과 유사하다. 인간은 오온(五蘊)과 12처(處)와 18계(界)의 작용으로 이뤄져 있다. 오온은 색(色, 물질), 수(受 감각), 상(想, 지각), 행(行, 경향성), 의(識, 의식)의 다섯 가지 요소들의 쌓임이다. 12처는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의 여섯 가지 근(根)과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의 6가지 경(境)으로 이뤄진다. 18계는 12처에 6식(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을 합한 세계를 의미한다. 이처럼 인간은 다양한 요소들로 연결된 다양체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들뢰즈는 다양체로 이루어진 인간은 강밀도(intensities)의 분포에 따라 신체가 열린다고 말한다. 강밀도는 관계 속으로 흘러가는 운동이나 속도로, 동양 사상의 사물을 형성하는 기(氣)의 집중과 분산을 떠올리게 한다. 강밀도가 0일 때, 신체는 알(egg)의 상태가 된다.

들뢰즈는 이 탄드라적 알에서 생성되는 흐름을 '동물-되기'로 표현한다. 영토란 동물들이 사는 삶의 터전이다. 동물은 무리, 패거리, 개체군 등으로 서식이 복수성의 형태로 존재하고, 전염병 역시 유전에 의한 계통과는 상관없이 이웃으로 전염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양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접속된 다른 양태들에 의해 새로운 양태로 변용되며, 그 안에는 모든 양태들을 함축하고 있다. 의상 대사의 '법성계(法性界)'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여럿 속에 하나가 있어(一中一切 多重一)/하나가 곧 일체요 여럿이 곧 하나다.(一卽一切 多卽一)/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담겨있고(一微塵中 含十方)/일체 모든 티끌 속에도 또한 그러하다.(一切塵中 亦如是)**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하나라는 법구는 시작과 끝을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티끌과 시방세계는 강밀도의 연속체로서, 그것은 어떤 양태로도 변용될 수 있는 무궁한 실재적인 과정이다. 이는 모든 존재와 현상들은 서로 끊임없이 연결돼 있으며, 그대로가 바로 불성(佛性)을 드러내고 있다는 화엄사상 아닌가.

'동물-되기'란 실제로 동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동물을 통해 자신의 신체와 감각을 변용시키는 것이다. 여성-되기, 흑인-되기는 여성이나 흑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적, 백인 중심적 사유에서 벗어나 공생의 관계로 감응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요가나 권법으로 동물-되기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뱀이나 사마귀, 학의 신체적 모습을 따라 사권(巳拳), 당랑권(螳螂拳), 학권(鶴券) 등으로 동물-되기를 하며 신체를 단련하고 있다. 하물며 우리 마음이야, 이미 '부처-되기'에 연결돼 있는 것 아닌가.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 마경 잘못 알면 바른 수행 못해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㊶ 마의 경계

〈원문〉 그때 여래께서 법회를 마치려 하시다가 사자상(師子牀)에서 칠보의 책상을 당기시며, 자금산(紫金山)을 돌려 다시 와 기대시고 대중과 아난에게 고하셨다.

"너희들 유학인 연각과 성문이 오늘 마음을 돌이켜서 대보리인 위없는 묘각(妙覺)에 나아가려 하므로 내가 지금 참된 수행법을 설했거니와, 네가 아직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닦는 데 있어 미세한 마사(魔事)를 알지 못하나니, 마(魔)의 경계가 나타날 적에 네가 능히 알지를 못하면 마음을 닦는 것이 바르지 못하여 사견(邪見)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마(魔)라는 것이 혹 너의 음마(陰魔)이며, 혹은 다시 천마(天魔)이며, 혹은 귀신이 붙거나 도깨비를 만나는 것이니, 마음속에 분명히 알지 못하면 도적을 잘못 알아 아들이라 여기는 것과 같으리라. 또 조금 얻은 것을 가지고 다 얻은 것처럼 여기면 제4선의 듣지 못한 비구가 허망하게 성과(聖果)를 증득했다 말하다가 천상의 과보가 끝나서 쇠잔한 모습이 나타나면 아라한도 몸이 후유(後有)를 만난다고 비방하다가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으리라."

〈강해〉 선정을 닦는 수행 도중에 간혹 마(魔)의 경계가 나타나는 수가 있다고 한다. 〈능엄경〉에는 이 마(魔)의 경계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변마장(辨魔章)이라 하여 10권 중 9권 10권이 모두 마사(魔事)를 가려내는 이야기다. 수능엄정(首楞嚴定)을 닦을 때 오음(五陰)에 열 가지씩 50개의 변마(辨魔) 이야기가 나온다.

능엄법회를 마치시려던 부처님이 아직 번뇌가 남아 있는 이승의 무리를 대표해 아난에게 설해주는 특별한 내용이다. 자금산은 부처님 몸을 가리킨 말이다. 마(魔)란 원래 범어 마라(魔羅:Mara)를 줄인 말로 선정을 닦는 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몸과 마음을 시끄럽게 하여 선법을 방해하고 좋은 일을 못 하게 한다고 한다.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지(止)와 관(觀)으로 선정(禪定)을 닦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미세한 마경(魔境)이 나타나는 수가 있는 것을 아난이 그걸 모르니 잘 알아 두라는 말씀이다. 이 마(魔)의 경계를 잘못 알면 사견에 떨어져 올바른 수행을 못한다는 것이다. 음마(陰魔)는 오음마로 공부하는 가운데 자기 몸에서 이상한 경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외부로부터 오는 마가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마이다. 천마(天魔)는 천인들이 마구니 노릇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귀신이 붙거나 도깨비를 만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마경이다. 사람이 죽은 후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을 중유(中有)라 하고 달리 중음(中陰)이라고도 한다. 이 기간이 보통 49일이라 하여 사찰에서 그 날수에 맞추어 재(齋)를 지내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을 49재라 한다. 물론 지극히 선하거나 악한 업을 지은 경우에는 49일이라는 중음 기간에 관계없이 죽은 다음 바로 선도(善道)나 악도(惡道)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귀신이 붙는 것은 중음이 사람에게 붙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경우 신들렸다고 한다. 신들린 사람들이 무당(巫堂)이 되는 수도 있다. 도깨비(魑魅)는 잡귀(雜鬼)의 하나로 민간전설에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한다고 한다.

선정을 닦을 때 이러한 마경이 나타나면 이것이 마사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모르면 올바른 선정이 닦아지지 않아 마경에 빠져 사견(邪見)을 이루고 만나고 하였다. 제4선은 색계(色界) 제 4선천(四禪天)의 복생천(福生天), 복애천(福愛天), 광과천(廣果天), 무상천(無想天)을 말한다. 이곳은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판별이 없이 그냥 희로애락이 없으니까 그것을 부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감정이 없어져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를 두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에서 무문비구(無聞比丘)라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천상의 과보를 마치면 다음 생의 몸 후유(後有)를 받게 되는데 생사를 해탈하여 더 이상 몸을 받지 않는 아라한이 된 줄 알았는데 아라한도 몸을 받는지 실망하고 비방한다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 중극, 대범천과 연결되는 자리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㊶ 12개의 기점

세 번째로 세워지는 단(壇)이 중극(中極)이다. 중극은 흉수 5번 신경이 시작되는 척수의 배쪽 면에서 세워진다. 중간 기둥의 세 번째 기점이다. 심장으로 영입되는 교감신경이 시작되는 자리이고 4선정의 사마타가 성취되는 자리이다. 3지, 4지를 엄지손가락으로 굴곡시킨 다음 나선 호흡으로 백회에서 흉수 5번까지 숨을 들이쉰다. 호흡 경로에서 뻑뻑하게 억제된 느낌을 인식한다. 그런 다음 모음 발성 히!이~~~! 발성으로 중극 기점을 자극한다. 후끈한 열기가 일어나면 중극이 자극된 것이다. 중극은 이다와 핑갈라, 슈슘나에너지가 합쳐지고 밝은성품이 생성되는 자리이다. 갈비뼈 순화와 반신소주천이 시작되는 기점이다. 중극은 색계 1천인 대범천과 연결되는 자리이다. 중심과 중극 사이에서 2선정과 3선정, 4선정이 성취되고 견성오도가 이루어진다.

네 번째로 세워지는 단(壇)이 영대(靈臺)이다. 흉추 넷째 마디와 다섯째 마디 사이에서 세워진다. 옥침, 명문과 함께 뒤 기둥을 이루는 중심 기점이다. 중심, 중극과 연결돼서 흉부 교감신경의 기능을 보완해 주고 심장, 폐, 간, 비장에 이다와 핑갈라에너지를 공급해준다. 인체의 앞뒤 자기장을 유지시키는 기둥 역할을 하면서 등 쪽 체감각을 보호해 준다. 중극과 영대는 같은 막단에서 세워지는 기점이다. 엄지손가락으로 3지, 4지를 억제하고 코숨호흡의 경로를 따라서 흉추 5번째 마디까지 숨을 들이쉰다. 그런 다음에 옴자 발성으로 중심을 울려서 영대를 자극한다. 흉추 5번 부위가 배 쪽으로 함몰된 느낌이 들면서 불편해지면 영대 단(壇)이 세워진 것이다. 그 상태에서 배 쪽으로 중극과 중심 기점을 함께 인식한다.

다섯 번째로 세워지는 단(壇)이 백회 기점이다. 중간 기둥의 첫 번째 기점이다. 내기(內氣)가 표출되고 외기(外氣)가 유입되는 자리이다. 백회로 표출되는 내기는 자기장(磁氣場)이다. 유입되는 외기는 초양자 에너지이다. 충맥의 종지(終止)이다. 엄지손가락 끝으로 3지 끝을 살짝 눌러주면 백회 기점이 활성화된다. '츠' 발성으로 강하게 자극해주고 오호~~~! 발성으로 부드럽게 열어준다. 호흡을 들이쉴 때 백회 기점에서 나선으로 움직이는 감각이 느껴지면 단(壇)이 세워진 것이다. 양신(陽身)이 출신하는 경로이고 진여신(眞如身)이 내왕하는 경로이다.

여섯 번째로 세워지는 단(壇)이 미심 기점이다. 양쪽 눈썹 사이에 세워진다. 옥침의 송과체와 연결되어 있고 뇌하수체와 입천장, 천골과도 연결되어 있다. 전두엽피질의 파동이 표출되는 자리이다. 내관(內觀)을 행하고 염력(念力)을 표출시키는 통로이다. 엄지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리면서 미심의 느낌을 관찰한다.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끝 쪽으로 최대한 굴곡시킨다. 그런 다음 미심의 상태를 관찰한다. 미심이 조여드는 느낌이 느껴지면 코숨호흡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미심과 중황 사이의 공간을 지켜본다. 혀끝으로 입천장을 울려서 길게 니~~~!하고 발성하면서 미심과 중황을 함께 울려준다. 미심을 시각적으로 바라본다. 백색의 밝은 빛이 인식되면 미심 단(壇)이 세워진 것이다.

일곱 번째로 세워지는 단(壇)이 옥침 기점이다. 시각피질과 송과체의 중추점이다. 앞쪽의 미심과 연결되어 있고 천골과 연결되어 있다. 송과체와 미심을 연결해서 함께 운용하면 7식의 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엄지손가락을 새끼손가락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굴곡시킨 다음 코숨 호흡으로 미심에서 옥침까지 숨을 들이쉰다. 혀끝으로 입천장을 울려서 니~~~!하고 길게 발성한다. 그런 다음 미심의 울림을 옥침까지 끌고 온다. 옥침단의 안쪽에서 밋밋한 판자때기가 느껴지면 단(壇)이 세워진 것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㊶ 전도된 의식

## 꿈 속에서는 하나의 사실도 없다

'나' 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나' 라는 인식으로 만들어진 과거의 관념에 초점을 모으고 살아간다. 이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느낌과 생각은 우리의 본질과 상관없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관념의 정보를 바탕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게 된다. 생겨난 새로운 관념의 정보는 퇴색하여 필요 없는 정보와 바꿔가면서 자신에게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계가 실재하는 세계가 아닌 자신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세계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 상상하고 창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더 나은 삶을 공유할 수 있다고 느끼는 착각인데, 그 착각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생각하여 본질을 잊어버리고 누구와도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지 않은데 같은 시공간에 사는 것처럼 생활하게 된다.

본질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공간은 관념일 뿐이다. 그 관념이 동일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zero)다. 그 관념은 '예', '아니오' 처럼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예' 속에도 수많은 '예' 가 있고, '아니오' 속에도 수많은 '아니오' 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공유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생겨날 수가 없는 일이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할 수 없는 본질은 같은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다.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나' 라는 인식으로 펼쳐진 세계는 스스로가 만든 세계가 아니므로, 스스로가 그 인식의 세계를 지울 수도 없고 나타나게 할 수도 없는 입장 때문이다. 스스로는 펼쳐져 있는 관념의 세계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관념의 세계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허깨비 같은 것이다. 일일이 개개인들에게 하나하나 일러줄 수가 없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의 허깨비는 다른듯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다.

스스로는 '나' 라는 인식이 만들어 놓은 관념에 무(관)심하는 일이 그의 일이다. 여기에서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는 허깨비에 대해 관심과 무관심이 처음부터 없으니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오해가 완전히 해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오해가 해소되지 못하면 반쯤 깬 상태의 잠에 취해 있으므로 꿈에서 완전히 나왔는지 꿈을 꾸고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된다. 스스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꿈속의 일인 동시에 꿈속을 나오는 말들이다. 그와 같이 춤을 추고는 있지만 춤을 추기 위한 춤은 아니다. 그가 꿈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의 입장에서는 같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는 꿈속에서 노는 일이 없다. 그의 모든 일은 꿈속에서 나오는 일 이외에는 어떤 관심도 없다. 영화 '매트릭스' 처럼 파란 알약과 빨간 알약이 있어 건네줄 수 있다면 아마도 당장 그에게 그 약을 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약이 없다. 사실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꿈속 일이니 사실 약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꿈속의 환상에서 사실이 하나라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전도된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으므로 터럭 하나도 허락할 수가 없다. 어찌 보면 숨이 막힐 지경이겠지만 그것은 스스로가 아닌 사대오온이다. 스스로는 사대오온이 숨이 막힐 때가 가장 편안한 때이다. 그때는 아무 일이 없다.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도된 의식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조언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말해봐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일이고, 또다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일들이다. 조언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머릿속에 있는 모든 개념은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님을 알고 찾아 헤매는 일을 멈추어야 아무 일 없는 일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Interview CEO / 어싱슈즈 · 수행화 보급 나선 **홍재화** 필맥스 대표 기업 PR

# “땅의 기운 그대로 느끼는 신발, 걷기 명상에 딱 맞죠”

**1998년 핀란드서 발가락양말 수입하며 발 건강 주목, 신발 개발에도 뛰어들어**
**2008년 독일서 맨발신발 국내 첫 도입**

**비바미 신발 3mm 밑창, 땅 굴곡 전달 ‘수행화’ 개발, 행선 수행 효과 배가시켜**
**승복과 비슷한 재질 활용, 착용감 높여**

**전자파 노출 현대인 위한 ‘어싱슈즈’ 출시**
**캠핑 · 둘레길 트레킹 등에서 땅과 접지돼**
**“불교 행선 · 걷기명상 보급도 일조할 터”**





홍재화 필맥스 대표가 서울에 위치한 필맥스 신발제작소에서 본인이 개발한 ‘수행화’를 들고 밝게 웃고 있다. 발건강 지킴이라는 그는 필맥스 신발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건강을 챙기길 기원했다.

**홍재화 대표는…**

1962년 충남 예산에서 출생한 홍재화 대표는 1989년 중앙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코트라(KOTRA)에 입사 홍보부에서 활동했다. 코트라에서는 무역 박람회 주최를 담당했으며,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파나마무역관으로 근무하고 1995년 드미트리상사를 설립했다.

2022년 캐나다 벤쿠버박람회서 발가락양말로 ‘BEST FIRST COMER’상을 수상했고 같은해 네덜란드 선물용품박람회서 ‘BEST PRODUCT’상을 수상했다.

이후 필맥스(Feelmax) 브랜드에서 풋맥스(Footmax) 신발을 제작하여 마케팅하였으며, 이후 비바미(Viva!me) 브랜드로 변경, 미국과 유럽, 캐나다,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신발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무역전문가이자 발건강 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한경닷컴에 ‘홍재화의 매트릭스로 보는 세상’, 조세일보에 ‘홍재화의 무역이야기’ 등을 연재하고 있다. 맨발신발에서 착안한 수행화와 어싱슈즈 보급에 나서며 삼성 SDS,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등에서 사이버 강의를, 와우패스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한 강연에도 나서고 있다.

무역전문가로 다양한 저서도 펴냈다. 2006년 ‘무역&오퍼상 무작정 따라하기’를 시작으로 2007년 ‘경제의 최전선을 가다’, ‘홍사장 책읽기’, 2010년 ‘CEO경영의 서재를 훔치다’, 2014년 ‘어제를 바꿀 순 없어도 내일은 바꿀 순 있다’, 2017년 ‘혼자 다하려 하지 마라’, 2018년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나’, 2021년 ‘한권으로 읽는 비즈니스 명저’, 2022년 ‘트레이드워 무역은 왜 무기가 되는가’ 등을 발간했다. 여기에 2023년에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 등을 펴냈다.

불교에서 걷기는 오래전부터 수행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화두를 잡고 걸으며 참선하는 ‘행선(行禪)’, 위빠사나 알아차림 수행의 방편인 ‘경행(經行)’ 등이 그것이다. 불교경전 〈대념처경〉에서 ‘수행자는 걸어갈 때 나는 걷고 있다고 알아차릴 것’이라고 이를 정도다.

걷기 명상, 행선, 경행에 필수적인 것은 바로 발의 상태. 위빠사나에서 맨발로 경행을 하는 것은 알아차림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쉽게 걷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우리의 맨발과 비슷한 상태, 그리고 발이 최대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닐까.

홍재화 필맥스 대표(61)는 2008년부터 맨발에 가까운 건강신발 ‘수행화’와 ‘어싱슈즈’를 만들고 있다.

중앙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홍 대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파나마무역관으로 근무한 무역통으로 1998년 핀란드 필맥스의 발가락 양말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며 발건강에 천착하게 됐다.

“발을 보면 건강이 보입니다. 푹신한 깔창만 신는다고 발이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흙과 풀밭 등을 밟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오히려 맨발이 건강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맨발 걷기가 유행한 이유도 그것이에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맨발에 가까운 걷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수행화와 어싱슈즈죠.”

**수행화, ‘3mm 얇은 바닥, 선지식 정진 마음 담아’**

홍 대표가 개발한 ‘수행화’는 깔창 높이 3mm의 맨발신발에 스님과 불자들이 익숙한 회색 천으로 감싼 신발이다. 발볼 부분이 넓어 발가락이 서로 죄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 가르침에 젖어 경주 기림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을 찾고 있는 홍 대표가 불자들이 산중 생활에서 편리한 신발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개발한 신발이다.

홍 대표는 “예전 스님들과 불자들은 짚신, 고무신을 신고 산사에 올랐을 겁니다. 돌길 숲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포행하고 수행하신 거죠”라며 “수행화 속에는 옛 선지식들이 걸으며 수행하신 마음을 담았다”라고 표현했다.

2008년부터 독일에서 개발한 1mm 밑창의 맨발신발을 수입하여 한국에 보급한 홍 대표는 한국 지형에 맞도록 3mm 밑창으로 개선하고 필맥스 브랜드 하에 ‘비바미’(Viva!me)란 단독브랜드를 런칭했다. 여기에 색상과 재질을 승복과 유사한 캔버스 재질로 하여 만든 것이 바로 수행화다. 바닥이 얇지만,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대 방수기능까지 더했다.

**어싱슈즈, 산업현장 ‘접지’ 차용 ‘어싱’ 기능 더해**

여기에 최근에는 도심 걷기명상에 최적화된 ‘어싱슈즈’도 개발했다. ‘어싱(Earthing)’은 흔히 땅에 흐르는 기운을 느끼는 것으로 과학적으로는 우리 몸에 남아 있는 3~6볼트의 양전하와 땅의 음전하가 만나 중성화, 몸에 흐르는 각종 나쁜 기운을 비우는 대체의학의 한 분야다.

홍 대표는 반도체 산업현장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몸속 전류를 흘려보내는 접지 신발의 기능을 채용하여 카본이 섞여 전기가 흐르는 특수고무로 3mm 밑창을 구성했다.

현대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전자파는 몸 속 각종 질환과 질병, 특히 암 발생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홍 대표는 우리가 신는 신발 대부분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절연체 고무로 이뤄진 부분이 전하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홍 대표는 “땅의 굴곡을 느끼는 기존 맨발신발에서 더 나아가 땅의 기운을 느끼는 ‘어싱’(Earthing) 기능을 더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접지 기능이 있는 어싱을 통해 전자파 또한 배출하여 건강을 지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대표는 “둘레길 걷기, 캠핑 등에서 어싱 기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땅과 기운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맑아진다. 이 것이 바로 건강 지킴이”라고 강조했다.

**걷기명상, 현대인에 도움…보급에 일조 계획**

올해 2월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란 책을 펴낸 홍 대표는 발 건강 전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제2의 심장인 발이 건강해야 합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건강해지려면 발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해요.”

홍 대표는 “우리가 많이 걷거나 오랫동안 서 있을 때 피곤함을 강하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발 때문이고 몸이 건강하기 위해선 우선으로 발이 건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불교에 빠져들고 있는 홍재화 대표는 상월결사 행선을 시작으로 불교계에 일고 있는 걷기명상이 현대인들의 심신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서울에 소재한 필맥스 신발 제작소에서 홍 대표는 수행화를 들고 밝게 웃었다.

“마음공부, 마음 건강뿐만 아니라 몸 건강에도 불교 걷기 명상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건강을 위해 걷는 문화가 현대인들에게 보급되고 불교 걷기 명상도 널리 퍼지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수행화

캔버스 수행화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어싱 트레킹화
어싱 윙 캐쥬얼화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자정보

1458호 | 18 | 전면광고

이 세상에 고통 받는 중생들이
끝없이 많으니 내 부처 되어 마지막
한 생명까지 기어이 건지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본행집경》에서

##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안양 • 2층포교당 : 60평
- 법당(삼존불), 공양간, 종무소, 룸
- 시설비무료인계, 시내, 주차가,
- 보증금 : 1천만원 • 임료:60만원
- 위치 : 경기 • 부지 : 1100평
- 건평 : 약40평 외
- 주차가능
- 매가 : 3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 : 교통이 좋습니다.
- 집기류 다 주고 갑니다. 그냥 오셔서 법회를 하시면 됩니다.

010-2366-2821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6764-0034

## 토 굴 안 내

- 진주시 정촌면 무선산로 332 약수암
- 임대시 전세 일천만원
- 권리비 및 시설비 없음
- 매매시 주인 직접

010-4999-5624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 가액 : 4억 5천

010-7710-8334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 사 찰 안 내

- 경주시 산내면
- 대지 : 142평
- 한옥 2채 (위채:법당, 아래채), 큰 창고 1동
- 교통편 편리
- 가액 : 1억 8천만원 (절충 가능)

010-9338-1755

## 건 물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시랑로 118 번길 66-8
- 4층 건물 (1층 33평 법당, 2층 24평 종교시설, 3층 20평 주택, 4층 15평 주택)
- CCTV 4대 설치
- 가액 : 4억원

010-9881-7363

##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연산동 황령산
- 가격
  전세 : 일백만원
  월세 : 십오만원
- 시설비 : 일천백만원

010-4435-5660

## 사 찰 안 내

- 위치 : 동해시
- 여법한 목조건물(법당30평,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공양간, 창고, 주차장) 동해시와삼척 중간지점으로 포교 최적지임 / 인근에 휴양지 근접 (추암, 망상, 증산, 삼척해변)
- 원력과비젼을 가진분께 양도함
- 주지스님의 건강상 가액은 시세 이하로 협의합니다.
- 좋은 인연을 기대합니다

010-9279-4542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 옆에 작은 폭포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 매매가 : 1억 3천만원 (비품대 미포함)

010-2807-0509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북후면 산북로 1104-13
- 법당, 산신각, 요사채, 황토방, 미륵입상
- 가격 : 2억 8천만원
  집기류는 다 주고 갑니다. 그냥 오셔서 법회 하시면 됩니다. 스님이 연로하셔서 인연자를 기다립니다.

*굿당으로 해도 좋은 자리입니다.

010-9355-1779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대지 : 약 340평
- 건물 : 1, 2층 - 1층 26평, 2층 법당 20평, 요사채 15평(거실2칸, 해우소 3칸)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8914-1762

##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삼기면 석기길 익산시내에서 10분거리
- 토지 : 160평
- 건물 : 법당30평외 2동
- 동불보살님 3분과 탱화 및 살림 포함가능
- 가격 : 1억1천만원 (다른곳 소임문제로 급매매)

010-3676-4788

##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현대불교신문
##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출퇴근가능
서울지역

010-8600-3421

## 그린그린심리치유 상담센타

한의학전공 한중역학대학원석사증 철학박사학위증
심리상담사 1급자격증 2011-12-82948호
사업자등록번호576-10-00995호 통신판매업신고증 번호 제 2019-전남보성-00002호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는법
아파서 병원에 다녀도 치유가 안되시는 분, 탈골교정, 구안와사 상담후 치매 완치 100% 세계 최초 치매완치(完治)전문의 [업무 오전 10시~오후 4시]

061-852-1003 / 010-2159-3003

##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 GTN 손도사

책50권 저술출간함
세계1등 운명상담
010-5105-5000

##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 비구니스님 부 전 스 님 모 십 니 다

60세이상 (연령무관)

010-5049-1533

## 하나힐링 광물찜질

모든 병은 독소, 염증, 혈관막힘이 원인
1억 파장 양자 음이온 토로말린 파장
암개선, 간, 신장, 척추, 허리, 무릎, 피부, 만성질환, 모든 환자에게 도움

- 1회 15,000원 대림역 10번 출구
- 자연치유 무료 상담

010-4633-8864

## 뚜렷한 병명도 없이 아프신 분들이나 소원을 꼭 이루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은 연락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토속신앙 지장신앙 산신신앙 연구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산암행스님은 동양 최초로 각명산의 산신령님을 한분도 빠짐없이 다 모신 제천 심흔사 회주 스님으로써 수십년동안 염불기도로 수행정진해온 원력으로 마지막 회향 기도로 몸과 마음 다 바쳐 혼을 실은 기도로써 부처님 불보살님 산신령님의 위신력을 입증해 보여드리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010-8547-1473, 043-642-941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효민의
##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⑲ 무위(無爲)



# 본성대로 사는 삶

가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다 싶더니 어느새 또 다른 계절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김없이 도래하는 시간과 시간 사이에서 '삶'이라는 명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오늘의 대중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 점점 더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처럼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가는 일은 힘겨운 삶에서 크나큰 축복이자 공부라고 생각한다.

힘겨운 오늘 '무위(無爲)'라는 말이 떠오른다. "우리의 삶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밝아지고,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기에 훤히 드러나고, 자랑하지 않으니 자기 공로가 있게 되고, 스스로 내세우지 않으니 오래 간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무위(無爲)가 아닐까?

울긋불긋 가을단풍과 함께 마음의 풍성함과 같이 내 마음 내 뜻 다 아시는 부처님 전에 우리의 모습 보여드리며 익어가는 가을이 풍성했으면 참 좋겠다. 나무 석가모니불.

〈서예가〉



하성미 기자의
## 心 心 talk talk

③ 상실의 고통 극복할 힘 '애도'

# 섣부른 위로보다 진정한 '공감'을

한국인에게 할로윈은 슬픔의 축제가 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159명의 안타까운 청춘이 목숨을 잃었고 334명은 부상을 입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현장을 담은 사진을 보면 가슴이 내려앉는다.

통계로 집계된 사망자 수는 159명이지만 그들과 관련된 가족과 친구의 수는 헤아릴 수 없다. 일순간 가족과 친구들은 '살아남은 자'가 되고 그들의 삶은 끝없이 이어질 상실의 과제를 감당하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참사가 났던 그 순간에 멈춰있고 하루를 왜 살아야 하는지 물으며 견디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꽃처럼 아름답던 청춘의 장례는 온갖 루머로 얼룩졌다. "놀러가서 죽었다"는 사람들의 말은 슬퍼할 권리인 '애도' 마저도 박탈했다.

이번에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애도다. 애도는 죽음과 상실에 관련된 고통스러운 주제다. 급작스럽게 사별한 사람들은 살아갈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사별 후 살아가는 방법'이며 '회복 가능성과 고통을 참고 견디는 법'이다. 다른 사별자들의 경험을 찾아 자신에게 적용하고 인공호흡기를 매단 것처럼 겨우 숨을 쉰다.

전문적인 치료법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애도의 자세부터 언급하고 싶다. 사별 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죽음에 대한 정보를 물을 필요도 없다. 그저 "얼마나 힘드니…." 이 말이면 된다. 사별자들이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말이 "이제 정신 바로 차리라"는 말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억지로 막지 말라. 그들에겐 울어야 할 시간이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우는 사람의 시간을 함께 견뎌주지 못한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아파하면 "좀 적당히 해라.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쉽게 말한다. 울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폭력이다. 친절한 인내로 함께 울어야 하고 충분히 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고타마 붓다의 애도는 섬세하고 자비로웠다. 붓다는 고타미라는 여성을 만난다. 고타미는 외동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아이의 시체를 안고서 울부짖는 그녀를 향해 사람들은 동정하거나 미쳤다고 평가했다. 넋을 잃고서 아들을 살리겠다고 발을 동동 거리는 고타미에게 누군가 다가와 붓다에 대해 말했다.

"붓다는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고타미는 붓다를 찾아간다.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비통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녀는 소리쳤고, 붓다는 "마을로 가서 겨자씨를 구해오라. 단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얻은 겨자씨여야 한다"고 했다.

고타미는 집집마다 방문해 문을 두드렸다. 작은 겨자씨를 구하러 온 고타미에게 사람들은 이유를 물었다. 고타미는 자신의 외동아들을 살려야 한다며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얻어온 겨자씨가 아이의 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을 떠올렸을 것이다. 누구는 아버지였고 혹은 할머니 아니면 딸, 아들…. 그들이 맞은 사별의 사연이 쏟아져 나왔다. 고타미는 얼마나 많은 집을 돌아다녔을까? 그 가운데서 자녀가 죽은 어머니도 만났을 것이고 부모를 잃은 사람도 만났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사별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울었다. 마을사람들은 고타미의 고통에 공감하며 마치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처럼 함께 슬퍼했을 것이다.

이처럼 상실의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는 마치 자신의 가족이 죽은 것처럼 공감해야 한다. 울고 또 울다 보면 어느새 슬픔의 동굴에서 스스로 나오는 힘을 얻게 된다. 정서중심 심리치료자들은 감정이 정리되어야 행동과 생각이 바뀐다고 말한다.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섣부른 충고의 위로는 해악이 될 뿐이다.

고타미는 마침내 아들의 죽음을 수용하고 생로병사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출가해 비구니가 됐다. 이처럼 감정을 해결하고 난 후 그 다음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애도에 대해 사회가 갖춰야 할 위로의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면 이제는 사별자와 가족을 위한 안내를 하고자 한다. 죽음은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고 힘든 시련이다. 애도를 단순히 정의하자면 상실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다. 애착이 붕괴되어 새롭게 재정리를 하는 과정 중에 겪는 정서적 고통이다.

볼비(Bowlby)는 상실에 대해 네 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둔감해진다. 두 번째는 사별한 사람을 인지하게 되고 찾고 그리워한

**겨자씨로 아들 잃은 고타미 일깨운 붓다**
**함께 울어준 배려가 건강한 애도 만들어**

다. 세 번째 단계는 혼란과 절망을 경험하고 우울감이 높아진다. 네 번째는 고인의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다.

건강한 애도에서는 이 과정을 거쳐 새롭게 애착 관계를 성립하고 맺지만 감정을 억압하거나 지지해주는 대상이 없는 경우 고정된 단계에 고착되어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애도 기간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수용하며 그로 인한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줘야 한다. 울지 않거나 감정을 표현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책감과 무력감,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안심시켜줘야 한다.

건강한 애도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믿는다. 무슨 말이냐면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사람들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한다. 안타깝지만 상실의 아픔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아픔 없이 잊을 수가 없다. 빨리 고인을 잊고자 하는 내담자에게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그분이 쉽게 잊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기억을 억압해 숨겨 둘 뿐 어느 순간 튀어나와 이성과 감정을 압도해 버린다.

애도 상담은 여타 상담과는 결이 많이 다르다. 해결보다는 상실의 아픔이 당연하다고 인정해주며 아픔의 과정을 긴 시간 함께 손잡고 견뎌주는 따뜻함이 가장 중요하다. 따뜻하게 고인을 기억하고 견디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치료다.

일일시호일

헛디딘 발끝 한 번에
산산이 부서진 고향 생각

추석날 가파른 계단서 실족…두개골 · 허리 골절에 중환자실
밀린 병원비 3000만원…"수술 불가피" 권고에도 엄두 못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박태수의 알아차림의 파워 ⑩ 희망이 안내하는 길



▶한줄 요약
희망은 갖되 희망이라는 미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삶이 흘러가는 길은 희망이 안내하는 방향이다.

# 희망 갖되 순간에 머무르자

이사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 35년간 살았던 살림살이의 규모가 엄청났다. 버리고, 남 주고, 팔면서 그동안 보물인 양 모아놓은 것들이 어찌나 많은지 감당하기 힘들었다. 모르긴 해도 내가 버린 책들만 1톤 트럭 하나는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를 떠날 때의 마음은 '희망이 길을 안내할 것' 이라는 희망 하나였다. 그래서 선뜻 떠나기로 했지만 그 긴 세월의 흔적을 지우는 데는 물질뿐 아니라 정신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났다. 명상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 운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이분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낸 일과 사연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동시에 이러한 현실과 더불어 안동으로 갔을 때 나의 희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앞섰다. 물론 희망은 지금까지 공부해온 상담과 명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일이다.

안동에 왔다. 제주에서 떠날 때 그렇게 많이 버렸는데도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 만나야 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도 적지 않았다. 모두가 낯설고 서툴렀다. 그래도 만나야 하고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일들이었다. 그러면서도 안동이라는 곳, 고향이라는 곳, 이곳은 알게 모르게 친근감이 느껴졌다. 아는 사람들의 아침인사인 "밥 잡싼니껴"라든가 시장에 가서 누군가 마주치면 "어르신 장에 오셨니껴",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다가 다 먹었는지 확인하면서 "밥 남구치 마레이"라는 표현 등은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친근한 말들이다. 이런 일상에서 더욱 내 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내가 형제자매들과 만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그런 모습을 보노라면 '내가 참으로 오랜 세월 아내에게서 저러한 삶을 뺏어버렸구나' 하는 미안함이 밀려온다. 그나마 이러한 모습들이 나를 좀 편안하고 안정되게 해주었다.

내가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 코스는 초·중등학생들이 야구를 하도록 만들어진 낙동강 둔치의 야구장 둘레길이다. 30분 정도의 거리다. 걷다보니 마침 야구공 하나가 울타리를 넘어 날아왔다. 내 딴에는 이 공을 던지면 야구장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주워서 힘껏 던졌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펜스의 3분의 2정도 위치에서 걸리고 말았다. 아하, 내 팔 힘이 여기까지로구나. 평소에도 느끼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공을 줍기 위해 오는 학생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새삼 나 자신의 체력의 부실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할머니 산소에 성묘를 가기 위해 산길을 올랐다. 산길이 매우 가팔라서 거의 기다시피 올라갔다. 그런데 참으로 오랜만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걷다보니 땅에 떨어진 알밤을 보게 된 것이다. 반갑고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알밤을 주웠다. 한 개를 줍고 나니 바로 그 옆에 또 다른 알밤이 보여서 계속 주웠다. 할머니 산소의 성묘보다 알밤 줍는 일이 더 즐겁고 신났다.



고향 오일장도 나에게는 낯설면서 정겨웠다. 시골 장이라 온갖 장물들, 농산물을 비롯하여 어물, 축산물들이 인도를 꽉 메웠다. 무엇을 살까 하고 이리저리 살피며 아내와 천천히 걸었다. 마늘, 무, 땅콩, 새우젓 등을 사고 맛있게 익은 홍시도 샀다. 홍시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걷노라니 옛날 시골장터를 걷던 기억이 떠올라 저절로 흥이 일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정거장 쪽을 향해 걷다가 나무벤치를 발견하고 거기 앉았다. 그 과정에 비닐봉지에 담긴 홍시가 흔들리면서 부딪쳐 성한 게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와서 펴보니 홍시가 물러 터져 범벅이 되었다. 그냥 먹을 수가 없어 넓은 그릇에 부었다가 작은 그릇에 담아 숟가락으로 떠먹었다. 고향의 5일장이 홍시 범벅으로 나를 대접해 주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니 내가 사는 집을 좀 벗어나보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 정신문화를 꽃피운 곳인 도산서원을 향했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학당이다. 〈퇴계집〉에 실린 글을 보면 '身退安愚分 學退憂暮境' 몸은 은퇴하여 어리석은 분수에 편안하건만 학문은 후퇴하여 늘그막에 근심이 되는구나.

> "안동에서의 새 출발, 정겨움 느껴
> 주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겨
> 황혼기에 의식하게 된 삶의 변화
> 희망을 미래의 결과로 인식 말길"

'溪上始定居 臨流日有省' 시내 위에 비로소 자리 잡고 살면서 흐르는 물에 날마다 돌이켜보네. 퇴계선생 자신의 겸손하고 신의로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퇴계선생은 간판 글씨도 작게 써서 보는 사람들에게 권위나 위압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 이를 테면 '陶山書堂' 이라는 글자도 벽의 기둥 넓이만큼 좁고 작게 썼다. 모든 것을 상대방이 기를 펴고 바라볼 수 있게 자신을 작고 낮게 표현하였다. 자신의 존재를 낮춤으로써 청빈함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서당 어디를 가더라도 편안하고 안정되었다. 이 과정을 보면서 퇴계선생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의 앞날도 어리석은 분수를 알아 흐르는 물같이 쉼 없이 돌아보기를 희망하였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나 이 순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 숙연해졌다.

그리고 삶의 공간을 좁혀서 나의 집을 꾸미는 데도 마음을 썼다. 그동안 집은 아내에게 맡겼는데 이제는 그 집도 함께 꾸미고 싶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하였다. 모처럼 실내를 꾸밀 화분을 사기 위해 교외 화훼농장으로 갔다. 그동안 명상센터를 운영하면서 온갖 화분을 주거나 받아왔는데 내 집을 위해 화분을 들여놓기는 참으로 오랜만이라 마음이 들떴다. 여인초, 맛삼, 고무나무, 장미 등을 사서 햇볕이 드는 창 쪽으로 진열하고 보니 새삼 희망이 솟아났다. 그동안 화분을 이처럼 정성스레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놓고 보니 집안이 더 풍성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의식을 갖고 계속 바라보니 거실 안이 온통 꽃으로 가득해 보였다. 마음이 꽃과 하나 된 순간이었다.

집안을 정리하고 나니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동안 산책을 하면서도 나무와 나무 사이가 붙어 있어서 나무 몇 그루가 길 전체를 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계속 같은 길을 걸으면서 나무를 보니 나무와 나무가 떨어져서 각각 독자적으로 서있는 모습임을 알게 되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바라보다보니 그 틈새가 훤하게 뚫려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여러 곳을 옮겨 다녔다. 인생이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흔히 말하듯이 역마살이 낀 것처럼 한 곳에 진득하게 머무르지 못하고 옮겨 다녔다. 초등학교 교사에서 중등학교 교사로, 중등학교 교사에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연구기관에서 대학교수로, 학문의 발전 측면에서 이동은 불가피하지만 공간의 이동도 삶과 함께 이루어졌다.

경북 봉화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제주로, 제주에서 안동으로 옮기면서 마음의 분열도 일어났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대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고 하지만 주변의 물리적인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하였다. 내 나이 팔십이 가까워서야 내 인생이 이처럼 변화하고 있음을 보았고, 이제는 의식적으로 그 변화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도 갖기 어려운 나이가 된 것이다. 인생이 이처럼 덧없이 흘러왔다.

어떤 사람이 임제에게 물었다. "누가 와서 스님을 마구 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임제가 이렇게 말했다. "오라고 하라. 오기 전에는 나도 모른다. 웃을지도 모르고 울지도 모르고 뛸지도 모른다. 아니면 거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오면 그 순간에 결정할 것이다.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전체성이다. 오기도 전에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깨달은 사람은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는 신의 손안에 있으며 일이 일어나는 대로 내맡길 뿐이다. 깨달은 사람은 그 순간에 맡긴다. 순간에 모든 것을 만난다. 온 존재계가 그 순간에 참여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무의식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삶의 모든 습관에 깨어있으면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습관에 협조하지 않게 된다(손민규 역, 쉼, 2004).

희망은 갖되 희망이라는 미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삶이 흘러가는 길은 희망이 안내하는 방향이다. 사실 나는 제주로 갈 때 일생동안 제주에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35년이란 긴 세월을 살아왔다. 그런데 누가 알겠는가? 깨닫지 못하니 마음으로 살 수밖에. 그래서 안동으로 왔다. 이제는 물리적인 변화도 정신적인 변화도 희망은 갖되 순간에 머무르리라.

〈前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아름다운 사람들
본방송 수 09:30
재방송 수 21:30 / 목 14:30




김지원의 스님 계십니까
본방송 목 09:30
재방송 목 21:30 / 화 15:3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본방송 월 09:30
재방송 월 21:30 / 화 23:25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본방송 화 13:00
재방송 화 20:30 / 토 23:15




죽음에서 배우는 삶
본방송 수 13:00
재방송 수 20:30 / 일 22:50




최광식 교수가 알려주는 삼국유사와 불교문화
본방송 목 12:00
재방송 목 22:30 / 토 08:3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58 호 현대불교
2023년 11월 8일(음 9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 지구의 수명도 여러분 마음의 조절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 마음공부로 세상이 바뀔까요

**질문** 지금 시대는 크고 작은 삶의 사건, 사고들 속에서 마음 중심이 없으면 정말 살아나가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공부가 중요한 거 같긴 한데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한다고 해서 정말 세상도 바뀔 수 있을까요?

**답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한 생각 내서 악으로 가느냐 또는 마음 한 생각 잘해서 영생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요내 몸 안에서 이탈을 하고 또 내 가정에서 참 점프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감옥 아닌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고통이 많은데, 병고에 휘달리고 또는 자녀들을 키우는 데 휘달리고 또는 먹고살기 위해서 휘달리고 사람 살길이 참, 얼마나 천차만별로 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위대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고가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큰 괴로움이 있는 집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아집과 아상과 또는 욕심과 착 이런 거를 다 버리신다면, 그러고도 거기다가 놓고 거기에 맡겨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밝게 한마음의 등이 켜지게끔 한다면, 자녀들도 이탈을 안 할 것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내놓는 그 새싹들도 역시 뿌리가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음 하나가 우주를 조절하고 이 세상을 조절하고 평화 문제 또는 남북통일 문제와 수많은 청소년들 문제를 조절하고, 정치하는 사람들과 과학자들을 조절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하게, 마음의 등불을 켜준다면 우리는 모두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이치도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조그마한 나라에도 아주 새 빛으로서 역력하게 역사를 이끌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앞에 아마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입 걸러 두 입 건너, 한생각에 바로, 여러분 한생각이 우주 법계에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딴 사람이 아무도 몰라도 우주간 법계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풀 한 포기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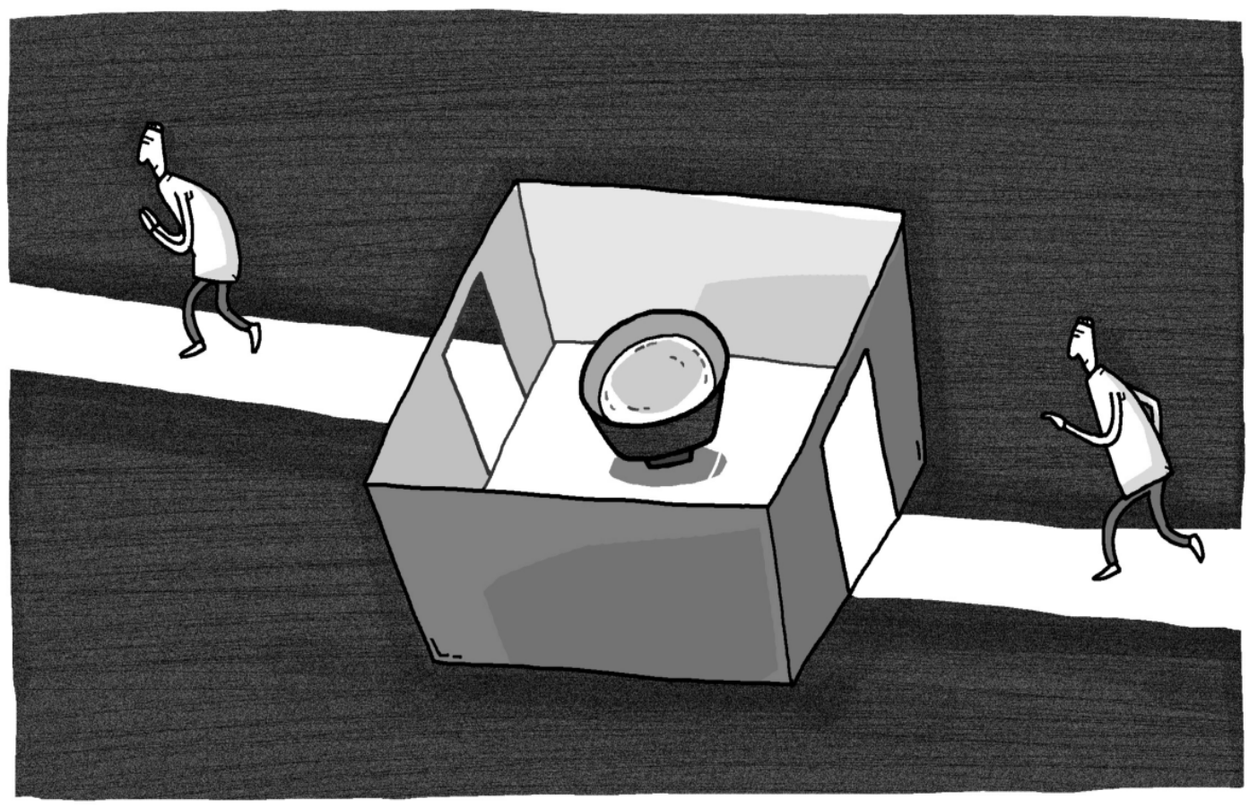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즈음 인구가 너무 많이 팽창됨으로써 생기는 병들, 우리 마음들이 산란함으로써 그 혼백, 즉 영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세균과 그 영계성이 너무도 많이 꽉 찼다고나 볼까요? 그럼으로써 알지 못하는 병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빈 까닭에 그저 빈집을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며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은 어떻게 되며 우리 지구는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있어서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다면, 여러분의 한생각에 우주 법계를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 마음의 공부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공부가 중요하다는 그 점,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하는 데 중요한 점은 우리 지구라는 혹성도 혹성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걸 조절해 나가는 일, 세계평화도 바로 우리의 마음의 조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수명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고 당장 부딪치는 자원 문제, 즉 말하자면 인구가 팽창됨으로써 우리 지구의 자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달렸다고 봅니다. 바로 인구 이 자체의 팽창도 여러분의 마음의 조절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주간 법계에서 모두 한마음으로써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주간 법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불이라는 것은 아주 그대로 영원히 변함 없이 흘러 도는 이런 불덩어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그 자기의 자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불성, 그 불성이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충만하기에 우리 마음들이 자전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법계의 법바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 안에서 벗어나서 법바퀴를, 우주 전체 법계를 두루 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면서 한 발 한 발 실천을 하는 데에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써, 아집을 갖지 않는 마음으로써, 또 관습을 갖지 않음으로써, 우린 통틀어 내놓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죠.

'아이구,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병이나 나으면 고만이지.' 이런 정도로만 공부를 하신다면, 병 자체도 못 고치거니와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 못 할 것입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이다 뭐다 하지마는 원자에서 그렇게 입자가 많아서 분자로 화해서 수없이 대기권을 지키고 나가는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차차로 여러분이 이 공부를 소중히 알고 열심히 하신다면 과학자들이 해결 못 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서 해결하게, 아마 그 마음이 응해 주실 겁니다. 가고 옴이 없이 말입니다. 하는 사이 없이 하고, 보는 사이 없이 보고, 듣는 사이 없이 듣고, 자유자재권을 한 손에 쥐고 중용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마음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그 한마음 주인공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 제법이 무아라는데

**질문** 제법이 무아라고 하는데 그 이치가 확연하게 다가오지 않아 다시 한번 가르침 받고 싶습니다.

**답변** 그러죠. 없다는 것은 공했다 이겁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보는 걸 고정되게 보고 사십니까? 듣는 걸 고정되게 한 소리만 듣고 사십니까? 하나도, 생활하시면서 하나도 거기에 고정되게 있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공해서 그냥 그저 쉴 사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세울 게 있겠습니까?

물론 세울 게 없기 때문에 예전에 스님네들은 무무역무(無無亦無)라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없고 없고 또 없다고 그랬는데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지금도 모두 없습니다. 이거 뭐, 눈도 깜짝거리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니 뭐, 어떤 거 생각할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 없는 거죠, 모두.

그러니 자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중생이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이 중생이라 그러고, 자기 소견이 나는 그렇게 못 한다 그러고, 자기 소견이 나쁘다 그러고 그래서 그렇지 본래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

☞ 22면으로 계속



# 묵묵히 걸어가면서 한발 한발 실천하는 데 게으름이 없어야

☞ 21면에서 계속

도 없고 자기가 할 따름입니다. 지금 빨리 부지런히 가셔서 색경을 보시고 한 팔 들어 보십시오. 거기 그림자가 어떻게 보이나. 그래서 자기부터 알아야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둘이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알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불(佛)은 어디 있다는 건가? "불이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 해골 쪽을 딱 던져 주거든. "이놈아, 이거야!" 그러고 주니까 아무리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아니 한 이삼 년 지나니까 아, 해골이 말을 하더랍니다. "야, 이놈아! 너, 나처럼 눈도 빼 버리고 귀도 빼 버리고 코도 없애 버리고 혀도 없고 네 몸뚱이도 없고 다 없어야지, 임마! 그래야 너가 어떤 걸 알 거다, 임마!"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해골을 붙잡고 "야, 임마!" 그러고 그거 가지고 몇 날 며칠 싸우다가 홀연히 알게 됐더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의식만 빼면 송장인데 그 해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그대로 지금 육근의 작용으로써 우리가 육진의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바로 육식도 거기 포함해서 둘이 아니게 절대적으로 자기 참자기를 발견할 것입니다. 과거의 자기와 현실의 자기가 상봉할 것입니다.

### 습에 휘둘리지 않고 싶은데

**질문** 마음공부를 하면서 참사람이 되고자 발원했는데 자꾸 습에 이끌려 가는 제 자신의 모습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습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 중심을 잘 잡고 갈 수 있을는지요.

**답변** 자기를 자기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구, 내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믿는 사람이 이거를 해서 안 되는데….' 하고 꼭 후회가 들어가고 반성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데 정말 나를 깨닫는 그 길을 택하려면 후회도 반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없는 거다 하고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 근본 주인공 속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즉, 직속으로 같이 상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 각각 논다면 이거는 정말이지 여러분은 자기 몸 하나 추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를 했든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잘못됐어도 그것은 잘못되게 한 장본인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에다 되놓는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정돈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냥 참 행이요, 그것이 참 선이요, 행선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왜 잘 써야 하느냐? 여러분이 한 번 잘못 쓰면 이 몸뚱이 속에 업식으로 뭉쳐집니다. 저지른 대로 업식이 돼서 내 몸뚱이에 뭉쳐 있으니 거기에 속지 말고, 잘못되는 것도 업식으로 뭉쳐져 있는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걸 놔라, 맡겨 놔라.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녹일 수밖엔 없다.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어떤 때 보면 여러분이 재밌게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있는데 시커먼 게 거기 죽들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눈이 멀어서 못 봐요. 잠시 잠깐 웃고 즐길 거라면 차라리 그게 뭡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에 그 업식으로 인해서, 업식을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바깥에서 오는 거,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찰나찰나 닥치는 겁니다.

> **어떤 거를 했든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 **잘못됐어도 그 잘못되게 한 장본인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 **그러니 거기에다 되놓는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놔라 이거예요. 모두, 모두 맡겨 놔라. 놓으라니까 무슨 놓을 게 있어서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고 '거기에서밖에는 해결 못 하고, 거기에서밖에는 감사함을 주지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서 모두 품 안으로 안을 수도 없고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없다, 거기밖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다.' 하고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것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놓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놓고 두 번 놓고 자꾸자꾸 놓아 들어가면 업보로 뭉쳐진 이 중생들이 다 그냥 보살로 화해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거기에서 호법신도 생기고 수호신도 생기고 화신도 생기고 법신도 생기고 모두가 수효가 없이 생기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냐고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는 일마다 귀인이 생기고 발이 넓어지고 속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 떳떳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죠.

그냥 묵묵히 일체를 나와 같이 보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실천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 공부' 하지만 사실 공부라는 이름도 붙이지 말고,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 그건 불쌍한 게 아니라 애처롭습니다. 여러분은 산 사람, 산 물질만 봐도 애처로운 일이 많은데, 죽은 영령들이 부모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마음, 애처롭게 끌고 다니는 그 마음, 세상에,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연이 뭐고 사랑이 뭐길래, 자식이 뭐고 부모가 뭐길래, 남편이 뭐고 아내가 뭐길래 그렇게들 인연 줄이 질기고 질겨서 그걸 놓지 못해 붙들고, 애처롭게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도 살고 있고 저 별성에도 살고 있다. 여기 모습대로 거기도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그건 화신입니다. 여기는 이것이 육신이지만, 그 모습들은 화신으로서 모두 보현보살로 화해서 영계들이나 산 사람들이나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해서 직속 왕래를 해 보세요. 얼마나 떳떳한가?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러겠죠?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빛보다 더 빨리 왕래를 하는데. 그러니 여러분은 기복으로만 만날 빌고 '아이구, 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제발 좀 이러지 말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뭐, 또 죽을까 봐 그렇게 살려 달라고 애를 씁니까?

나는 이날까지 나 살려 달라고 빌어 본 예가 없어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팔랑개비 대만 쥐고 다녔어요. 그게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대만 쥐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내가 대를 쥐면 나한테도 바람도 있지, 지수화풍이 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건 저절로 돌아갈 거라고요. 나는 그 대만 붙들고 다녔기 때문에 내 육신이 고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을 안 했으니까 고통이 없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돼요. 죽든 살든 여러분이 '주인공' 하면 벌써 스님과 첨보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스님하고만 첨보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은하계의 별성들이 다 첨보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마음이에요. 한마음이라는 걸 소홀히 생각하고 조그맣게 쓰지 말고 좀 더 지혜로운 지각을 가지고서 좀 널리 쓸 수 있는 그런 아량, 지혜, 자비를 가지고 넓게 포용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해 주소서.' 하는 것도 바깥으로 하지 마세요.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는 천지인하고 연결돼 있으니까요. 천지인이 따로 있다고 보지 마세요. 전부 한데 있죠. 그것에서 알게 되면은 대천세계를 알게 됩니다. 삼천대천세계 대천연화장불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일을 해도 되고, 미래로 돌아가서 일을 해도 되고 이렇게 삼세를 굴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걸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시고 계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공은 광대무변한 뜻을 그대로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수억겁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서 바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거기에 있는 거고, 여러분을 이끌어서 누진으로부터 오신통을 그대로 하는 것만이, 우리 지금도 오신통을 하고 가지만요, 그 오신통도 떠나서 모든 걸 자유스럽게 자유인이 되게끔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주인공밖엔 없으니까요.

### 목이 안 돌아가요

**질문**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자주 목이 잘 안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해서 살길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는지요.

**답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몸속의 그 생명들이 과거에 살던 인연에 따라서 온 업식들입니다.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그 생명들이 인연이 돼서 모두 합쳐진 한 몸뚱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식에서 나오는 야릇한 증세니까, 학생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더 잘 알겠죠.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아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이 모든 게, 그 다섯 가지 종류의 오신통이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아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되입력을 하는 겁니다. 되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괜찮아질 수 있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시장에서 솔이나 수세미 이런 걸 파는, 아주 오래 여기 선원에 다니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기 전에 고개가 그렇게 학생처럼 돌아가질 않아서 왔어요. 그때 내가 상원사에 내려와서 신도 집 여관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절을 하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극진히 삼배를 하는지 남자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내가 볼 때에 '남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저렇게 극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부처님도 안 모셔 놓고 그 방석,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절하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진짜로 믿고 그냥 삼배를 극진히 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저렇게 믿고 삼배를 올리는데, 그것은 부처님이 받으신 거지 내가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극진한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한데 이어진 거예요. 동시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목이 그냥 풀렸대요, 가다가 말입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그러니 그것이 도깨비장난 같고 요술쟁이 같고 하지만, 우리가 전부 요술쟁이고 도깨비장난이고 탤런트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모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을 각자 띄워 놓은 것과 같아요.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치면 '아이고, 살려 달라' 고 뭐, 아우성을 치게 되죠. 학생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죠. 지금 고개가 안 돌아가니까 파도가 치는 거와 같죠. 그러니까 집중을 어디다 해야 하느냐? 아주 일어서서 나 죽는다고 살려 달라고 바깥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침착하게 가지고, 선장더러 하는 소립니다. '선장! 이 배를 가는 곳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어!'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한마음으로 믿어서 거기에 한마음으로 뭉칠 때, 가는 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그와 같이 그 목도 파도가 치다가 선장이 잘 이끌어 가고 그런다면 파도가 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파도친다고 해서 제각기 일어나서 우왕좌왕한다면 배는 뒤집히고 말죠. 영영 고치지 못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겁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내 몸뚱이를 끌고 가는 선장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진짜로, 마음이 묘한 거니까 마음을 그렇게 가지세요, 진짜로 믿고. 그리고 자주 와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괜히 고개가 왜 그러겠소? 허허허. 그게 세포 하나하나에도 생명이 들어 있어서….


#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 본래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약탈문화재 취득시효 인정하면**
**약탈국가 소유권 주장 명약관화**

**문화재는 그 나라 문화 결정체**
**민족 혼과 얼 담긴 상징적 의미**

**약탈당한 전통문화재 넘기기 전**
**다방면 전문가 의견 청취했어야**

**한일 공동으로 교환 봉안하거나**
**상호 참배법회로 가교 역할 가능**

10월 26일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을 일본 사찰에 있다고 최종 판결을 하여 결국 대마도 관음사로 돌아가게 되었다. 관음상이 600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고향에 왔다가 집에 들러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니 마음이 아프다.

2012년 대마도 관음사에 우리나라에서 수탈해 간 불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한국인 5명의 자칭 문화재 의병 절도단이 모의하여 불상 두 점을 훔쳐서 한국으로 반입하다 경찰에 체포된 소설 같은 희한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불상 2점을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된 2점의 불상을 놓고 한일 간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물론 일본에서는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서산 부석사는 관음상 안의 기록물에 "1330년 조성하여 서산 부석사에 봉안했다"는 기록을 들어서 원래 소유자의 권한을 주장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한 점의 금동여래입상은 부석사와 달리 소장자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2015년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 관음상은 1330년에 조성되어 서산 부석사에 봉안되었는데 일본 왜구들이 자주 침몰했던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서산 바다에 침입하여 방화하고 약탈해 가서 그동안 대마도 관음사에서 봉안해 온 것이다.

2017년 열린 1심 재판부는 부석사의 승소 판결을 하였다. 검찰은 해당 불상과 불상 안의 기록물이 위작일 가능성을 제기하여 항소하였다. 2023년 2월 2심 재판부는 일본 측의 손을 들어 주었고, 마지막 대법원은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타인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20년) 평온하고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20년 취득 시효 완성' 의 일본 민법의 법리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1995년 채택된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사법통일국제연구소 협약' 에는 "협약 국가 간에 취득 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대로 우리가 약탈문화재의 취득 시효를 인정할 경우 앞으로 모든 약탈문화재 문제에 있어 약탈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 되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친일파 DNA인가. 우리는 왜 일본에게 늘 양보하고 작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 민족문화재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독도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면 어떻게 잘 지켜낼지 걱정이다.

문화재는 그 나라 민족 문화의 결정체로서 그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잘 보호하고 발전시켜 자손만대까지 전승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들에게 약탈당한 전통문화재를 우리 손으로 그렇게 쉽게 넘겨주는 행위는 경솔한 처사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다방면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숙고하였더라면 한일 양국이 서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11년 우리나라가 프랑스로부터 반환받은 외규장각 도서(병자호란 때 약탈당한 도서)는 양국의 정상이 회담으로 반환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파리박물관 사서직원 170명이 반환 반대성명을 발표하여 외규장각 도서를 5년 마다 계속 갱신해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양국이 서로 양보하고 노력하여 반환받은 실례가 있다.

문화재는 본래자리에 있어야 가장 빛이 난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정신으로 서산 부석사와 대마도 관음사가 자매사찰을 맺고 관음상을 공동으로 교환 봉안하고, 정기적으로 상호 참배법회를 연다면 양국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⑳ 디즈니+드라마 무빙

# 진짜 초능력은 공감능력

올해 방영된 드라마 중 단연 군계일학은 디즈니+ 오리지널에서 공개된 '무빙' 이다. '무빙' 의 장르는 뭐라고 딱 꼬집을 수가 없다. 하늘을 날고, 재생능력이 있고, 오감이 발달한 초능력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히어로물이다. 히어로들이 초능력을 쓰면서 다툰다는 점에서는 액션영화이다. 그런가 하면, 초능력자들이 정신적으로는 미숙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는 성장영화로 봐도 무방하고, 초능력이 대물림되고 2대의 가족사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족영화로 봐도 무방하며, 초능력자들이 서로의 비밀을 알아가면서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로맨스 영화로 봐도 무방하다.

〈씨네21〉 인터뷰에서 박인제 감독은 "현실에 발을 디딘 채 초능력이라는 장르를 타고 움직이는 작품의 밑바닥에 성장과 가족애 그리고 사랑이라는 기조가 흐르고 있는 작품이었기에 기꺼이 연출을 맡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대본을 보고서 박인제 감독은 쾌히 연출을 승낙했고, 그 대본에는 이미 초능력, 성장, 가족, 로맨스 등 키워드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강풀 작가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원작자가 대본 작업까지 맡은 까닭에 드라마의 줄거리는 원작을 유지하되 일부 에피소드는 변경됐다. 가령, 극중 국정원 요원들에게 부여된 암호명은 원작에는 없다. 원작에서는 이미현이 추어탕집(봉석이네 추어탕)을 운영했으나 드라마에서는 돈까스집(남산 돈까스)을 운영한다.

NTDP (국가인재육성프로그램)의 입안 시기도 원작과 다르다. 원작에서는 입안 시기가 2세대 초능력자들이 태어나기 전인데, 드라마에서는 2세대 초능력자들의 능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무빙' 의 재미 중 하나는 봉석(이청하)과 희수(고윤정)이 나누는 풋풋한 사랑 장면이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봉석의 초능력이 희수라는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서 로맨틱하게 극대화된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라는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의 가사가 떠오른다.

봉석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르고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는 희수의 대사는 드라마의 주제와도 맞물려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자신과는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신과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서로 길들여져 갈 때 상대방은 더욱 특별해지는 것인지도….

그런가 하면, 1대의 김두식(조인성)과 이미현(한효주)의 사랑 이야기는 과거에 펼쳐지는 이야기인데다가 남북문제가 얽혀 있어서 아릿하게 향수를 자극한다. 1대에서 2대로 이어지는 주인공들의 사랑이야기는 인생유전(人生流轉)을 떠올리게 한다.

미현이 자신의 초능력을 뽐내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어린 아들 봉석에게 하는 "사람의 진짜 능력은 공감능력"이라는 대사도 이 드라마의 주제를 명확하게 있다. 부처님은 신통력을 지녔음에도 신통을 부리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신통력을 금하게 하였다. 〈보적경〉에는 부처님이 신통에 대해 문수보살이 "설법이 큰 신통변화입니다. 중생에게 대자비를 베풀어 방편을 써서 갖가지 법을 설하니 이를 능가할 신통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대목이 있다.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히어로가 아니겠는가?

〈소설가〉

社 說

# 교회에 돌봄시설 만들면 저출산 해결되나

개신교계가 교회시설을 유아 · 아동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개신교계 TV인 CTS의 김경철 회장이 본부장으로 있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출대본)' 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법 및 관련법을 개정해 종교시설을 유 · 아동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월에는 이채익 · 김회재 국회의원이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를 개최했다.

범종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출대본은 개신교 인사들로 채워졌다. 지역본부장은 모두 목사이고, 토론회를 주최한 이채익 의원은 국회조찬기도회장, 김회재 의원은 교회 장로기도 하다.

사실상 '국고로 유 · 아동 선교를 하겠다' 는 개신교계의 사업에 불교계가 반발한 것은 어찌보면 수순이다. 실제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2일 '교회 내 영유아 돌봄시설 추진 철회 성명서' 를 채택 · 발표했다. 중앙종회는 "저출산과 아동돌봄을 볼모로 국비를 지원받아 교세를 확장하려는 개신교의 움직임에 공공돌봄정책이 붕괴 위기에 처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구절벽의 상황에서, 기존 돌봄시설들이 정원 미달로 폐업하는 상황에서 교회와 종교시설을 돌봄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저출산의 위기는 돌봄시설 부족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게 됐는지부터 살피는 게 우선 아닌가.

사회의 위기를 자기 종교의 교세 확장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라. 개신교의 성경에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누가복음 12:15)"고 써 있음을 알라.

# 이천오층석탑 환수, 우보천리 자세로

일본 오쿠라호텔 야외에는 고려시대 석탑 2기가 있다. 하나는 이천오층석탑이며 다른 하나는 평양 율리사지 팔각칠층석탑으로, 모두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에서 무단으로 반출됐다. 이중 이천오층석탑은 신라계 석탑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고려 초기 석탑으로 그 가치가 높다. 이 석탑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 출품되기 위해 경복궁으로 반출됐고, 이후 식민 재벌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郞)의 탐욕에 의해 1918년 반출돼 현해탄을 건너가 현재까지 일본에 있다.

이를 환수하기 위해 이천시민들을 중심으로 2008년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가 구성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지난 10월 10~12일에는 환수위 대표단이 방일해 오쿠라문화재단과 석탑 환수를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 자리에서 환수위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명한 환수지지 성명서와 김경희 이천시장이 서명한 환수 촉구서를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석탑의 환수 협상을 재개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석탑의 상태다. 환수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풍화로 인한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고, 훼손된 부분을 시멘트로 처리한 상황이라서 예후도 안 좋다고 한다. 우리의 석탑을 호텔 정원 장식품정도로 대하고 있는 오쿠라재단의 몰상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석탑의 환수는 장기전에 돌입했다. 부석사 관음상에 대한 대법원이 내린 최악의 판결은 환수운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래도 석탑의 환수는 이뤄져야 한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시민으로 힘으로 천천히 가자. '우보천리(牛步千里)' 의 자세로.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 2023년 생명을 살리는 걷기명상

불교상담개발원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을 살리는 걷기명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포교원에서 개발한 순례길 |

장성 참사랑의 길
서산 백제미소의 길
예산 경허 만공의 길
강릉 연화낭자의 길
강릉 해맞이길
원주 치악산 사유의 길
경주 천년미소길
부산 해수관음의 길
창원 용지호수의 길
천은사 상생의 길
화엄사 어머니의 길
제주 관음순례길
허응당 보우의 길



‖ 주최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